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 학위논문

## 시설이 아닌 ‘집’ 만들기

-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조아현

# 시설이 아닌 ‘집’ 만들기

-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

지도교수 이 현 정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조아현

조아현의 인류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정향진 (인)

부위원장 이현정 (인)

위 원 강윤희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0년대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이 가정이라는 아동 양육의 상징적·규범적 장소와 비교되어 오며 어떻게 일상을 수행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장소감(Sense of place)이란 주체가 자신이 속한 장소를 외부와 분리된 내부로서 경험하는 종합적인 감각을 말하며, 장소에 느끼는 애착과 내부 성원으로서 느끼는 안정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장소의 구성원들도 시설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시설 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경험한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일상에서 언제나 시설에 대한 편견을 의식하며 그러한 편견에 대한 대응 전략을 형성하면서도 외부의 편견에 의해 굴절된 장소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자는 아동양육시설의 구성원들이 시설에서의 일상을 통해 형성하는 장소감을 ‘낙인적 장소감’이라 지칭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설이라는 장소와 그 안에서 맺는 관계에 대해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경기도의 한 아동양육시설 ‘도담원’에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류학적 현장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서 아동과 직원을 포함한 시설의 주요 구성원들에게 주목하되, 또한 시설에서의 일상을 함께 구성해 가는 시설 퇴소인, 후원·봉사자와 사회복지 실습생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했다.

도담원의 일상은 ‘아무리 나쁜 가정이라도 시설보다 낫다’는 시설과 가정 사이 일방적 대립 구도를 흔든다. 하지만 아동 돌봄과 일상 수행의 장소로서 집-가정-가족이 (집단)시설과 대비되고 전자가 시설의 목표로서 추구될 때, 오히려 도담원에서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돌봄과 관계를 가려 정상 가족이 대체 불가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3장에서는 생활 공간으로서 가정-집과 시설이 대비되는 모습에 주목한다.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전제를 수용한 바탕에서 도담원이라

는 시설에서는 “시설스러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 왔다. ‘시설스러움’은 한 방에 대여섯 명이 같이 자던, 공간 증축 및 인원 감축 이전의 도담원 공간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인 현재의 도담원 공간은 구성원들이 시설과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직원들은 방의 인원 축소와 각 방 사이의 명확한 분리를 근거로 현재의 도담원 공간이 가정집과 더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공간 분리는 전체가 하나의 집이던 도담원 구성원들 간 교류를 더 어렵게 만들어 아이들과 퇴소인들은 “가족 같은 느낌”이 없어졌다고 인식했다. 구성원들이 도담원 공간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비유들은 서로 다른 장소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가정형 공간의 조성이라는 목표가 구성원들에게 다르게 체감된다는 것을 드러냈다.

4장에서는 아동 돌봄을 수행하는 단위로서 가정과 직장 사이 대비에 주목한다. 직원들의 돌봄 노동이 수행되는 장소로서 도담원은 ‘일반 직장’과 ‘일반 가정’에 끊임없이 비교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교대 근무와 이직으로 인해 바뀌는 도담원의 엄마들은 ‘일반 가정’의 영구적인 엄마와 대비되어 아동의 안정을 해치는 조건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편 이직을 줄이기 위한 ‘일반 직장’과 같은 근무 조건 개선은 아동 친화적이지 않다고 우려된다. 분명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함께 한 엄마의 떠남, 즉 직원의 이직 또는 퇴사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아이들은 많은 직원이 이직하는 배경으로서 이곳이 일하기 힘든 직장이라는 것을 이해한 채 이별을 다양한 강도로 받아들인다. 여러 사람이 머무는 만큼 떠나보내는 일도 많지만, 도담원에서 시작한 관계는 퇴사나 퇴소 이후에도 도담원을 매개로 지속되었다.

5장에서는 돌봄을 이어 나갈 관계로서 가족관계와 시설관계가 대비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도담원에 오는 이유인 가정 내 학대는 가정을 반드시 아동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직원들이 가진 가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아이들이 갖는다고 인식되는 ‘뿌리에 대한 갈망’으로 통합된다. 뿌리 또는 뒷줄에 대한 추구가 자연적이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갈망’의 논리는 ‘보육원이

집보다 낫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리고 혈연을 대체 불가한 관계로 본질화한다. 시설이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되는 가족의 위치는 시설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경험하는 낙인감과도 연결된다. 직원들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낙인을 우려하며 아이들이 고아라는 것을 부정했다. 입소 이유의 하나로서 ‘부모 사망’이라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할 때도 고아는 도담원 아이 중 5%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은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의 서사와 제도의 경계선 밖에 놓인 이질적인 존재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삶의 경험을 말하기 위해 때로 유희적으로 고아로 서로를 호명했다. 실제로 많은 도담원 아이들과 퇴소인들에게 원가정이 아닌 도담원이야말로 또 올 수 있는 장소이자 도움이 필요할 때의 지할 수 있는 관계망이었으나, 아이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결국 “나가면 끝”일 관계라고 제한했다. ‘끝’이 없는 가족과 ‘끝’이 있는 시설 관계의 대비라는 때로 실제와는 다른 인식이 도담원 관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이것이 퇴소 이전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안정적 장소감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일상에서 시설과 집, 직장과 가정, 시설 관계와 가족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이 가려지고 가정의 우위가 재확인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문제는 시설의 일상이 불러일으키는 모호함 자체가 아니라, 모호함이 시설에 대한 가정환경의 절대적 우위라는 전제 아래 계속 가려진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장소에서의 일상적 돌봄 관계가 폄하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에서의 삶이 언제나 시설과의 관계를 숨기라고 종용하는 시설 밖의 인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 안에서의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아동 양육시설의 구성원들에게만 부담되어 온 낙인에 대한 소명·해명의 짐을 시설 밖의 사회가 부담할 차례다.

주요어 : 아동양육시설, 낙인적 장소감, 가족, 집, 가정, 돌봄, 코로나19

학 번 : 2021-20432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 .....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4
1.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연구 .....	5
2. 장소와 낙인 .....	7
3.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미디어 속 아동양육시설 .....	13
제 3 절 연구대상 및 방법 .....	19
1. 연구대상 : 아동양육시설 도담원과 구성원들 .....	19
2. 연구방법 .....	23
3. 연구자의 위치성 .....	25
제 4 절 논문의 구성 .....	27
제 2 장 도담원에 오기까지 .....	30
제 1 절 도담원의 전반적 일상 .....	30
제 2 절 도담원 아이들의 입소 배경 .....	35
제 3 절 직장, 실습처, 봉사기관으로서 도담원 .....	41
제 3 장 시설이 아닌 ‘집’ 만들기 .....	53
제 1 절 ‘가정집’이 되기 위한 노력 .....	53
제 2 절 ‘시설스러움’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	63
제 3 절 숨겨야 하는 ‘집’ .....	70
제 4 장 문제시되는 ‘가정’ 이상의 돌봄 .....	84
제 1 절 코로나라는 재난 속 돌봄 수행 .....	84

제 2 절 ‘일반 직장’도 ‘일반 가정’도 아닌 도담원 .....	92
제 3 절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과 돌봄 .....	111
제 5 장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가족’ .....	131
제 1 절 ‘대체 불가한 핏줄의 갈망 .....	132
제 2 절 ‘고아’ 부정과 고아-됨의 의미 .....	138
제 3 절 가려지는 퇴소 이후의 이어짐 .....	142
제 6 장 결론 .....	154
참고문헌 .....	161
Abstract .....	170

## 표 목 차

[표 1] 면담 참여자 일람 표 .....	21
[표 2] 도담원의 시기별 정기 프로그램 .....	31
[표 3] 아동의 연고자 유무에 따른 ‘가정’ 프로그램 .....	33
[표 4] 도담원의 시기별 공간 단위 호칭어 .....	58

## 그림 목 차

[그림 1] 도담원의 건물 배치 .....	54
[그림 2-1] 101호의 외부 .....	55
[그림 2-2] 101호의 대략적 내부 구조 .....	55
[그림 3] 교사 초청 행사 모습 .....	79

## 일러두기

-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지의 고유한 명칭과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을 가명 처리하였다.
-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을 인용할 때, 비언어적 표현이나 문맥적 의미 등에 대해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인용부호를 사용하였다.

[ ] 연구자의 부연설명  
[...] 연구자에 의한 생략  
... 말 흐림  
- 음의 연장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

[사례] 도담원 정기행사-교사초청 중 사무국장의 인사말/참여판  
찰 일지/2023.05.25.

“우리 집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와주신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는 선생님을 초  
대하는 여느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집 안 청소를 하고 정리도  
하고 지금 저를 보시듯이 깔끔한 옷차림으로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이시나요?”

[사례] 이민지 아동 여 16세/비공식면담/2022.08.10.

이민지: 저희 집에 취직하시는 거 어떠세요?

연구자: 오, 어필해 주세요.

이민지: 좋아요, 저희 집 만큼 좋은 보육원<sup>1)</sup>이 또 없습니다. 왜  
냐면요, 생일마다 생일잔치도 하고요, 간식도 맨날 주고  
요, 그리고 여행도 자주 가고요, 맛있는 것도 해달라 하  
면 해주고요, 집도 좋고요, 선생님도 다 친하시고요, 애  
들은 좀 짜증나긴 하지만 다 좋은 애들이니까. 저희 집  
만 한 집이 또 어디 있습니까?

---

1) 아동복지법 제 52조는 “아동양육시설”을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  
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이때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  
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  
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3조). 한편 개별 아동양육시설의 명칭  
으로 ‘oo보육원’과 같이 보육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시설의 구  
성원들도 보육원과 아동양육시설을 혼용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공식명칭으로서 아  
동양육시설을 사용하되, 연구 참여자들이 보육원이라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문을 그  
대로 인용한다.

우리는 다양한 ‘집’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집이거나 직장, 일상의 장소인 곳이 고착화된 공간, 고정된 대상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나는 그 대표적인 곳이 아동양육시설이라고 본다.

2020년대 아동양육시설의 일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동양육 시설이라는 공식 명칭보다는 ‘고아원’이 더 익숙하진 않은가? 시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가 아동양육시설을 연상했을 때 떠오른 공간과 1950년대 전쟁고아를 돌보던 고아원, 그리고 지금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의 집으로서 시설은 어떻게 다른가?

식민지와 전쟁, 분단에 이르는 한국 사회의 고유성 속에서 전통가족질서나 가족관계는 새롭게 구성되었고, “척박한 사회에서 유일한 위안”으로서의 ‘가족’이라는 가족이데올로기는 역사적 국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왔다(권명아 2021: 14; 김동춘 2020; 장경섭 2018). “가족은 계층과 세대를 막론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체”(장경섭 2018: 16)이자 유일한 조직체로서 기능했으며,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부양의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은 점차 부담으로 이해되었다. 지난 세기말 급작스런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급진적 재편은 대다수 사람들 삶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켰으며 이때 “급류에 휩쓸린 듯한 상황 속 한국인들이 광범위하게 보여온 반응은 ‘가족이라는 집’을 더는 것”이었다(장경섭 2018: 7). 이혼, 별거, 가출, 유기, 부양포기 등 가족의 현실적 범위나 효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친족 등 연고가 없는 사람, 특히 ‘고아’라는 존재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서 고립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데 이용되었다. 고아의 문제가 가족의 부정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고아의 개념화와 그 관리는 거꾸로 가족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했다(박혜리 2019; 박선주 외 2014). 가족의 위기 속에서 가족 자체가 거부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핵가족이 보편화되어 갔다(김동춘, 2020; 조은주 2018).

부모와 혈연으로 이어진 자녀로 구성된 이성애 핵가족으로서 ‘정상

가족’ 모델은 가족과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폭을 제한한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이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집과 가족은 다양하게 존재해 왔으나, 그러한 경험들은 부정되거나 은폐되어 왔다(신유정 2021; 장인화 2021). 아동을 개별 주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경향 속에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시설 아동과 그 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전쟁고아를 수용하던 고아원’이라는 역사의 틀에 갇혀 관계를 외면당한 이들의 장소로, 학대 사건들로 가득한 고정된 장소로서 표상되어왔다.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이 일상 수행의 장소라기보다는 아동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변수로서만 그려져 왔다는 점, 시설 생활 자체가 어려움 또는 결핍과 동일시되어 왔으며, ‘일반가정’ 또는 정상 가족에서 성장한 아동과 성인에 대비한 타자에 대한 담론에 국한되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아동양육시설의 미디어 재현을 연구한 학자들은 지난 2~30년간 가정 외 돌봄을 받는 아동을 위해 보다 대응적인 정책과 관행을 개발하고 시설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1990년대의 이미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Bejenaru & Tucker 2014). 많은 사람에게 시설 아동을 포함한 가정 밖 아동 및 청소년과 그들에 대한 돌봄은 직접적 경험의 영역이 아니며, 시설 돌봄에 대한 인상과 의견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Clackson et al. 2007). 실제로 언론을 통해 아동양육시설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그동안 간과되어 온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이 드러날 수 있었다(Franklin & Lavery 1989). 그리고 퇴소인의 목소리를 통해 시설 퇴소 이후의 어려움이 지적되며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뤄진 사례들이 많다. 그러나 그동안 아동양육시설에 관해 생성된 이미지는 선정성을 띠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렇게 선례로 남은 이미지들은 누적되어 대중의 인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20년대의 현 시점에서 정상 가족이라는 언제나 가능하지만은 않은 가능성에 비해, 시설이라는 생활과 업무, 그리고 돌봄과 관계의 장소가 단지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변수로만 여겨지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 역시 가정만큼이나 문화적 가치들, 정부 정책들, 가족 체계들, 그리고 실천 이론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된 일상 수행들의 장소이기 때문이다(Buchbinder et al. 2006: 46). 한편으로 2020년대라는 시점은 시설과 가정이라는 장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이하 코로나19)라는 시간 축을 제공한다.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던 것과는 달리, 동거하는 시설 구성원들은 더 강한 거리두기를 요청 받고, 때에 따라 코호트 격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도 ‘일반가정’과의 차이를 크게 느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시설은 어떠한 장소인가?’에 대한 탐구이며, 다음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1. 아동양육시설에서의 ‘낙인적 장소감<sup>2)</sup>’을 구성하는 공간적 특징과 구체적인 활동 양상은 어떠한가?
2. 아동양육시설에서 이뤄지는 돌봄 수행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3. ‘일반가정’과 유사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은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가?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2) 장소감(Sense of place)이란 주체가 자신이 속한 장소를 외부와 분리된 내부로서 경험하는 종합적인 감각을 말하며, 장소에 느끼는 애착과 내부 성원으로서 느끼는 안정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렐프 2005).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장소의 구성원들도 시설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일상을 통해 외부와는 분리된 내부의 소속감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나 시설 밖의 시설에 대한 편견을 의식하며, 일상을 통해서 그러한 편견에 대한 대응 전략을 형성하면서도, 그러한 편견을 굽결시켜 장소를 지각한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자는 이들이 일상을 통해 장소에 대해 형성하는 장소감을 ‘낙인적 장소감’이라 명명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장소에 대해, 그 안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지가 본 연구가 시설이라는 장소와 시설에서의 ‘일상’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 1)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연구는 시설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집중해왔다. 그동안 시설보호 아동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정서지능이나 정신건강, 학교적응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김서현 외 2015: 177). 권지성 등(2006)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역시 직무 경험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보다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는 소진과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등(2009)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연구 흐름을 정리하며,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 문제가 중요한 연구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며,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 인지적 발달 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시설 종사자의 비전문성·인력 부족 및 빈번한 이직을, 아동의 정서나 행동 문제에 개입할 치료적·전문적 프로그램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연구들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최근에도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 및 미술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개입과 성과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특히 2010년대 이후 시설 퇴소인들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조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권지성 2007; 권지성·정선옥 2009; 김미영·최정숙 2022; 박신애 2016; 윤명숙·박신애 2014; 이용교·안희란 2021; 장혜림·이정애·강지연·정익중 2017; 최경옥·김수정 2018; 황수연 2018).

강현아와 이종은(2018)은 선행연구들이 일반 가정환경과 다른 양육환경 속에서 어떤 지지와 기대를 받고 자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바가 없다며, 시설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일반아동과는 다른 어떠한 특수적인 경험을 하는지 탐색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퇴소한지 2~3년 된 21~24세의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연구였다. 이미 퇴소한 성인의 회고적 면담 연구만으로 실제 그러한 이해가 만들어 지지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면담과 실제

시설 현장의 구체적 맥락에 대한 탐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참여관찰 방법을 사용한 소수의 연구 중 권지성, 김정득과 상혜진(2006)의 연구는 보육사(생활지도원)들의 2교대 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보육시설 상황과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시설 세곳의 관리자와 보육사,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고 참여관찰과 각종 기록물로 이를 보완해 다차원적 이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권지성 등(2006)의 연구가 ‘보육사들의 2교대’로 인한 시설의 변화를 탐구하는 연구인만큼 주된 참여자를 보육사로 선정하여 시설의 관리자와 아동들의 목소리는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시설의 일상적 돌봄을 구성해가는 주된 참여자로서 아동과 성인 구성원의 목소리를 최대한 동등하게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참여관찰의 필요성은 현재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에 관한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제한적인 면담 연구와 양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왔다는 문제 제기에서 기인한다. 비록 신체적 크기, 지식, 권력에서의 불일치들이 아동의 내부자 이해를 얻는 과정에 개입하고 완전히 극복될 수는 없지만, 아동들을 문화적 전문가로서 다룰 때 참여관찰은 성인 연구자와 아동 참여자들 사이의 위계 관계의 강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기대된다(Buchbinder et al. 2006: 53). 특히 연구자가 차이를 둘러싼 자신의 주체성, 구성, 경험들이 가져오는 ‘연구자 효과’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연구 맥락에서 그들 자신의 위치에 성찰적으로 참여하고, 그 위치가 제공하는 해석과 이해를 이용할 때, 추가적 이론적 성찰과 새로운 질문과 문제, 관심들이 산출될 수 있다(Buchbinder et al. 2006: 48).

경험은 참여자들 간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의미를 얻기 때문에, 각 행위자의 관점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은 일상적 장소로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한한다. 대신 더 전체적인 민족지적 접근이 돌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이러한 관계들이 아동의 사회적·감정적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 돌봄 실천을 강화할 수 있다(Buchbinder et al. 2006). 이에 본 연구는 이미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여 현재 성인이 된 이들이나,

시설의 구성원 중 성인 돌봄 제공자 (권지성 외 2006; 김서현 외 2015; 김기화 · 양성은 2017; 김진숙 외 2022)에 집중한 선행연구들을 보강하여, 아동양육시설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과 성인 돌봄 노동 종사자의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시설에 상주하는 구성원뿐 아니라 시설의 구성원들과 시설 안팎에서 긴밀하게 교류하는 일부 성원들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설이라는 장소와 시설을 매개로 맺는 관계를 가능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2) 장소와 낙인

이 절에서는 왜 단지 장소나 낙인이 아닌 장소와 낙인 또는 ‘장소 기반의 낙인’이라는 틀을 통해 아동양육시설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구를 통해, 장소, 낙인, 그리고 장소 기반의 낙인 연구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한다.

낯선 사람을 대하고 있는 동안, 그가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단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 대단히 나쁘게나, 위험하며, 또는 나약한 인물임을 의미하는 범주의 속성들일 수 있다. 특히 그런 속성의 불명예 효과가 매우 광범위할 경우 낙인(stigma)이라고 지칭하는데, 때로는 이를 결함이나 약점, 장애라고도 부른다(Goffman 1963)<sup>3)</sup>.

그동안 낙인 연구는 개인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Bresnahan & Zhuang 2016). 특히 왜 어떤 종류의 낙인의 경우 이미지 수정이 다른 것보다 어려운지에 주목해 볼 때, 나는 아동양육시설과 그

---

3) 낙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신체적인 혐오에서 오는 낙인으로 다양한 신체적 기형이나 불구에서 기인한다. 두 번째 낙인은 개인의 기질에 나타나는 오점으로써 의지박약, 횡포하거나 잔혹한 감정, 위험하며 완고한 신념, 부정직함 등으로 인식되는 것들이다. 이들 낙인은 알려진 기록, 예를 들어 정신질환, 투옥,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등을 통해 추론된다. 마지막으로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종족 낙인(tribal stigma)이 있는데, 이는 가계를 따라 전해지며 가족 구성원 모두를 낙인의 대상으로 만든다(Goffman 1963: 14).

생활인이 경험하는 일상적 편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낙인 연구의 개인화된 초점으로는 답할 수 없으며, 시설에 대한 ‘장소 기반의 낙인’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아동양육시설 생활인과 퇴소인이 경험하는 편견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장소에 부착된 낙인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장소 기반의 낙인 연구들은 낙인의 전염성과 상호침투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몸에 부착된 사회적 오염과 장소에 부착된 오염은 서로를 강화하며, 장소에 기반한 낙인은 개인적 특성에 배타적으로 기반한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소외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먼저 시설을 장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해할 때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하지만 어떤 것을 보는 데 제한적인지 살펴보자. 인간이 자신의 거주지를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화하는지에 따라 장소는 각기 다르게 경험되며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렐프 2005[1976]; 매시 2015). 허쉬(1995)는 삶의 영역 내부에서 일상적이고 실제적이며 평범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곳이 장소라면, 삶의 영역 외부에 존재하면서 이상화되고 상상된 형태로 존재하는 곳이 공간이라고 본다. 허쉬는 공간과 장소는 서로 간에 연결점이 없는 요소들이라기보다 하나의 관계 내에서 순간순간 변이되는 요소들로 이해하며, 이때의 변이, 즉 공간의 영역이 장소의 영역으로 변환되는 과정에는 해당 공간을 장소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의 경험과 문화적 규칙이 작동한다(정현목 2013: 114에서 재인용). 따라서 공간에 거주하는 구성원들 개개인의 의미와 가치 부여를 통해 거주지가 장소로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이 나타나며, 이는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장소감’(Sense of place)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 즉 “내부에 있다는 느낌”, 주체가 자신이 속한 장소를 외부와 분리된 내부로서 경험하는 종합적인(지각, 상상력, 인지 등으로 결합한) 감각을 말한다(렐프 2005: 150). 이 감각은 장소에 애착을 갖고 장소를 통해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안정적 생활세계로서 장소와 장소감에 대한 이러

한 이해는 안정성, 동일성, 정체성, 안전을 추구하는 감각으로 보수화되고 낭만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매시 2015; 류도향 2022). 이러한 장소에 대한 ‘닫힌’ 이해를 비판하며 매시(2015)는 모든 장소를 만남의 장소로, 즉 장소를 ‘관계’로서 이해할 것을 요청하며 장소감 개념을 확장했다.

장소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장소가 사회적 관계의 특정한 군집으로부터 구성되었다는 사실, 그러한 관계들을 함께 모아서 엮은 특정한 접합점이라는 사실이다. [...] 사실 모든 장소는 **만남의 장소**이다. 장소를 경계 지어진 지역으로 생각하는 대신 사회적 관계와 이해의 네트워크가 접합되는 지점으로 상상할 수 있다(매시 2015: 278; 강조는 인용자)

매시의 관계로서 장소 이해와 장소감 개념은 구성원의 위치에 따라 장소에 다양한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특히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장소에 대한 접근 방향에 시사점을 준다. 그동안 시설은 가족 및 가정과의 대비 속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부재한 장소로 규정되어 왔다 (Kendrick 2013). 그러나 관계의 접합점 또는 만남의 장소로서 시설을 이해할 때, 그렇게 관계가 부재한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 관계와 이해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접합되는지 질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매시의 연구는 장소를 ‘닫힌 경계’로 이해하는 것을 지양하더라도, 여전히 장소를 통한 연결에 강한 초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낙인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장소로부터 단절을 원하는 개별 구성원들의 시도, 즉 이들의 ‘낙인적 장소감’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장소 기반의 낙인 연구들은 기존 낙인 연구가 가진 개인화된 초점을 보완하며, 장소와 구성원 간 동일시에 집중해 온 장소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장소 기반의 낙인’ 개념은 특정 지역에 부착된 낙인을 지칭하기 위해 채택된 “영토적 낙인(Territorial stigma)”에 대한 상위어로서, 특정 장소에 낙인을 찍는 것을 지칭한다(Butler-Warke

2021). 나는 ‘장소 기반의 낙인’ 개념을 최근 영토적 낙인 연구 안에서 개별적 분석 단위로 대두된 “거주지(housing) 낙인”을 포함하는 용어로써 사용하고자 한다.

Waquant(2007: 67)은 Goffman(1963)이 신체적 혐오(abominations of the body), 개별적 성격(기질)의 결함(blemishes of individual character), 부족적 낙인(tribal stigma)이라고 부르는 낙인의 세 가지 유형에 더해 네 번째 낙인으로 “장소의 흠(blemish of place)”을 추가하고, 이러한 형태의 낙인이 계급 기반의 차별, 인종차별, 민족 우월주의와 겹쳐지고 교차할 수 있지만, 그것들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장소에 기반한 낙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논리와 역학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토적 낙인은 오명이 씌워진 지역과의 연관성을 통해 거주민들이 어떻게 오염되는지 보여준다. 특히 Waquant의 설명에서 장소에 대한 낙인화는 뚜렷하게 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낙인찍힌 장소들이 “사회적 거부자들만이 살 수 있는 범죄, 무법, 도덕적 퇴화로 가득한 ‘금지 구역’으로 널리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 낙인을 가능하게 하고 용인하게 하는 것은 지역을 둘러싼 소문(rumor)임을 강조한다(Waquant 2008: 29). 언어는 특정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판, 오명, 고정관념을 구성하고 부착하는 사회적 관행의 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오명을 부착하는 담론의 접착성은 과소평가 될 수 없다(Butler-Warke 2021). 낙인의 무게는 낙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며, 사회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공동으로 타격하여, 낙인화된 공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동안 이뤄진 영토적 낙인 연구들은 목소리에 대한 초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낙인찍힌 장소를 구성하는 주요 목소리를 가진 국가, 정책 및 미디어를 포함한 낙인의 강력한 생산자와 사용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작업들이라면, 두 번째 흐름은 낙인찍힌 장소에서의 거주 경험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Meade 2021). 다시 말해 첫 번째에서는 낙인을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초점이지만, 두 번째는 매일 삶에서 낙인을 경험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경화한다. 특히

두 번째 초점의 선행 연구들은 영토적 낙인과 개인적 낙인 사이 연관성에 주목해 낙인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연구해왔다. 몇몇 연구들은 한 장소에 대한 내외부의 인식을 고려하여, 그곳에 대한 지배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은 주로 외부인들에 의해 유지되는 반면, 내부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Slater & Anderson 2012). 이러한 연구들은 낙인의 지배적이고 강력한 생산자들을 인정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식된 긍정적인 특성이나 편하된 지역에서의 일상 생활에 대처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강조한다. Slater와 Anderson(2012)의 연구는 거주민들의 친구, 택시 운전사 및 기타 방문객들의 판단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며 낙인찍힌 장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사이의 집단적 자부심을 강조한다. 자부심을 느끼는 주민들은 또한 ‘평판이 나쁜 빈민가’에서 사는 것의 효과를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낙인찍힌 장소 내외부의 인식 차이에 집중하며, 낙인찍힌 장소에 대한 다른 이해와 낙인을 내면화하지 않은 채 대응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외부 인식차이에 대한 강조와 특히 내부 인식에서 긍정성을 강조하는 흐름은 내부에서의 부정적인 담론의 생성 가능성을 간과한다.

실로 장소 기반의 낙인 담론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들에 의해 순환되기도 한다. Butler 등(2018)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발신된 2,076개의 개별 트윗 중 특정 장소를 언급하면서 장소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인 “shithole”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거나 “#shithole”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한 샘플을 조사했다. 이때 트위터 사용자 자신의 위치를 식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외부인이나 주민에 의해 낙인찍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가 폄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알고자 했다. 특정 장소를 폄하하는 다수의 목소리는 징소 외부에서 작성되었다. 반면, 해당 장소의 주민들은 ‘떠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장소로부터 분리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고, 자아와 장소의 차이를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거주민들이 떠나고 싶은 욕구를 진술함으로써 자신은 폄하될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장소와 다르고, 그

곳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이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장소의 거주자가 자신과 장소 사이의 거리를 만들려고 할 때, 거주자는 자신과 연결되는 감정과 속성을 제거하고 대신에 그 장소를 퇴색시키는 담론과 속성을 주입함으로써 장소를 공간화(spatialise)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자아 감각으로부터 장소의 낙인을 쫓아낸다. 이러한 추방의 과정은 자아를 지키기 위해 자아와 공간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형태로 귀결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장소에 대한 낙인의 지속에 더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어떤 장소도 낙인화될 수 있다는 점, 이때 내부인들 역시 장소와 자신을 분리하고자 장소에 대한 낙인 담론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의의가 있지만, 개별 장소가 논의의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당 장소와 연관된 낙인으로부터 도출되는, ‘떠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 외에 장소와 긴밀하게 연관된 거주민들의 구체적인 거리두기의 전략을 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영토적 낙인화 연구들이 장소 낙인이 개인/집단 낙인으로는 환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염이 거주지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다는 점은 간과해온 경향이 있다. 영토적 낙인화 연구는 영토 내 차별화, 특히 개별 주거 단위 수준의 차이를 간과한다. Horgan(2020)은 거주지 또는 주택에 대한 낙인화는 영토적 낙인 수준으로 일반화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집단 수준 낙인의 특수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며, 그 자체로 실행 가능한 분석 단위로서 ‘거주지(housing) 낙인’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토적 낙인화가 아닌 거주지 낙인화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주택 정책 개혁과 같이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장소에 대한 논의가 공간이 장소가 되는 문화적 과정에 주목한 바에서 확장되어, 장소 기반의 낙인에 대한 논의는 공간과 장소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특히 장소와 장소감 연구가 장소와 개인과의 동일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최근의 장소 기반의 낙인 연구들은 특히 자아로부터 장소를 분리하고, 추방하고, 거리 두려는 ‘장소의 공간화’, 또한 그러한 낙인적인 공간에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의 장소화’ 과정에 더욱 주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개별 거주지에 관한 낙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장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내부자들이 자아와 장소를 거리 두고, 즉 장소를 공간화하여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고, 어떻게 자아와 장소를 다시 연결하여 공간을 다시 장소로 이해하게 되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소에 일체감을 느끼면서도 구성원들이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따라 장소로부터 거리 두는 구체적인 방식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일상적 대화, 호칭, 내부의례, 공간구조, 정책 등 이러한 장소화/공간화 과정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의 아동양육시설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적 맥락에 놓인 거주 단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소 기반 낙인의 현장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미디어 속 아동양육시설

선행연구들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낙인 담론을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강력한 목소리로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지적해왔다(강현아 · 이종은 2018; 이용교 · 안희란 2021). 특히 앞선 장에서 지적하다시피 장소에 대한 낙인화는 뚜렷하게 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장소를 둘러싼 소문이 낙인의 수용과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Waquant 2008). 이 장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장소에 어떻게 낙인이 부착되어왔는지, 특히 가정과 대비되어 어떻게 공간화되어왔는지 검토한다.

규범이자 제도로서 가족의 강력한 힘은 모든 사람이 제도의 관계자라는 점에서 나오며, 가족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의 방식이라는 전제 아래 작동된다. 그 어떤 관계도 가족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가족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다른 관계에도 장애를 가질 것이라는 관념으로 이어진다. 특히 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가족주의는 극단적으로 아무리 나쁜 가정이어도 시설보다는 낫다는 주장으로 나타나며

(Moore & Moore 1977), 완화된 주장으로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시설보다는 입양, 위탁가정 등 보다 ‘가정형’ 보호를 촉진하는 동시에 시설을 보다 가정환경과 유사하게 만들려는 ‘가정화’ 시도들이 이뤄져왔다 (Dorrer et al. 2010; Kendrick 2013).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시설을 더 ‘집 같게(homey)’ 만들려는 목적으로 대규모 기관에서 소규모 기관으로 일관되게 이동했지만(Kendrick 2013),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시설을 가정과는 구분되는, 보호소, 교정 시설, 또는 “이차적 집”으로 보는 인식에서 계속 파생된다고 지적했다(Calheiros et al. 2015).

아동복지와 양육에 대한 담론들은 아동 발달에 대한 어머니 역할을 계속 강조해왔으며, 특히 Bowlby(1953)의 애착이론 연구 이후 아동복지 관행은 가능한 생물학적 어머니와 아동 간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아동의 성장에 있어 안정적인 가족, 특히 어머니의 중요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유해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대리 보호를 통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Freymond 2003). 아동복지 담론 안에서 시설에 대한 견해는 종종 양가적이다. Freymond(2003)는 특히 영국의 사례에서 대리 보호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모성에 대한 일탈 담론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조사했다. 아동복지 담론에는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비정상적’ 어머니를 구성해내는 많은 선언이 공존한다. 특히 아동을 아동양육시설에 배치하도록 한 어머니는 미디어에서 주로 냉정한 성격으로 재현되며, ‘나쁜’ 엄마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일탈적이다(Freymond 2003: 45). 즉,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나 방임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동복지 개입의 초점인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자녀를 대리 보호 체계에 위탁한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에 대한 이상과 이념적으로 가장 거리가 멀다.

한편으로 선행연구들은 시설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영향력에 비해 그 구체적인 이미지가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아동양육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위탁가정 등 아동에 대한 대리 보호 체계 일반으로 확장했을 때도, 주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돌봄 제공자(시설 직원, 사

회복지사 및 위탁가정의 부모 등)가 대중의 인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구체적으로 대리 보호 체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적다(West 1999; Riggs 2009; Kuznetsova 2005). 즉, 돌봄 제공자 또는 시설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았어도, 일반 대중이 구체적으로 시설과 시설 구성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것이다.

아동양육시설과 시설생활인·퇴소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중, Kuznetsova(2005)는 2001년과 200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학교 교사, 의사, 경찰관, 공장근로자 등 다양한 집단 구성원 1,000명에게 “아동 양육시설은~” 다음에 이어질 문장을 완성하도록 했다. 13.3%는 “감옥”, 2.8%는 “우리 시대의 비극”, “아이들에게 악몽”, “꽁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으며, 1.3%는 “잘못된 사회 정책의 결과”, “당국의 수치”, “국가의 절망”과 같은 국가 이미지 및 국가 정책과 연관시켰다. 다른 한편, 6.9%는 “두 번째 집”, “진짜 집”, “유일한 집”이라고 정의했다 (Kuznetsova 2005: 25). 이 연구에서 응답자의 58.7%가 시설에 대한 의견이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고 밝혔다는 점 역시 미디어가 많은 사람에게 가정 외 보호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설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정의 자녀와는 대비된 존재로 그려져왔으며, 이는 단일한 아동기 개념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해왔다(West 1999; Riggs et al. 2009; Calheiros et al. 2015; 조아현 2023). 20세기 이후의 아동기는 성인기와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된다. 아이들은 성인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왔고, 현대 권리와 복지 사고의 주요 이념은 어린 시절을 근심 걱정 없고, 안전하고, 행복한 단계로 만드는 데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Boyden 2015: 188).

이러한 지점에서 특히 시설은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아동과 연관될 때 가장 부정적인 공간으로 이해된다. Calheiros 등(2015)의 연구에서는 아동 양육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수집하는 동시에, 시설 생활인의 연령에 따

라, 즉 시설에서 보호되는 이가 어린이인지 청소년인지에 따라 시설이 다른 이미지로 재현되는지 주목했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시설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용어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청소년과 연관될 때 보다 아동과 관련될 때 시설은 더욱 부정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구체적은 시설은 아동과 연관될 때 더 비인격적이고 덜 아늑한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시설의 이미지는 특히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복지를 촉진할 수 있는 보호 대안으로 적합한 구조, 기능 및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아동과 관련하여 인공적인 환경, 애정결핍, 냉정하고 경직된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대부분의 현대적 아동 보호 전략은 ‘공해 이론(theories of pollution)’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성인 사회는 아동기 순수함(또는 동심)을 약화시키므로, 아이들은 어른 세계의 냉혹한 현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Aries 1962; Boyden 2015).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아동기에 보기를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보이는데, 예컨대 학대의 경험은 편안한 놀이의 시간이자 가족의 품 안에서 무성적이고 평화로운 존재로 남아야 했을 어린 시절의 ‘참된 경험’과 대조된다(Kitzinger 2015). West(1999)의 연구에서 영국의 위탁가정 아동은 ‘그냥 어린아이’는 될 수 없는 아동, 그야말로 “자리에서 벗어난 아동(children out of place)”으로 재현되었다. 이때의 ‘자리’(place)란 아이들이 원래 있었어야 할 순수한 ‘아동’으로서의 자리다. 대리 보호에 배치된 이유로서 학대 피해 경험을 아이들의 정체성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묘사 하며, 그들이 “본질적으로 손상된(intrinsically damaged)” 아동이기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자동으로 부정적일 것이라 추론된다(Kitzinger 2015). 나아가 이들은 항상 갈등 속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위탁 아동은 친부모(및 기타 권위자)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과도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 가정된다(Riggs et al. 2009).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학대의 결과로 그들 또한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는 일반 대중이 입양이나 위탁 양육을 고려하지 않도록 영향을 준다.

국내에서 아동양육시설과 그 구성원 자체에 대한 담론 분석은 제한적 인 대신 ‘고아’에 대한 담론 연구가 주로 시도되어왔다(박선주 외 2014; 박혜리 2019; 소현숙 2007). 한국 사회에서 ‘고아’와 ‘부랑아’, ‘소년소녀 가장’ 등으로 호명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타자에 대한 담론은 ‘불쌍함’과 ‘불량함’의 미묘한 경계 속에서 구성된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불량함으로 흐르지 않을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이나 가족의 역할을 대리할 누군가를 요청해왔다. 일제 시기 동아일보에 드러난 고아를 둘러싼 사회상 분석을 바탕으로 전쟁고아 담론에 주목한 소현숙(2007)은 특히 ‘고아’와 ‘부랑아’가 다른 함의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아’라는 용어가 동정적인 시선으로 구호의 대상임을 강조할 때 자주 쓰였던 데 비해, ‘부랑아’는 부정적 의미로 규제 혹은 통제의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배치와 통제가 불가능한 ‘부랑성’은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현상으로서 자주 ‘불량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부랑아는 잠재적 ‘불량아’로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불쌍한 고아들을 데려다 잘 양육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불쌍한 고아 이지만 구걸과 절도를 일삼는 불량아동으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혹은 이미 그러한 존재라는 인식이 고아 “고유의 독특한 성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낳기도 했다. 일제 시기에는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고아 양육기관으로서 고아원과 불량소년 감화 기관으로서 감화원이 설립되었고, 고아들은 그 ‘불량성’ 정도에 따라 분산되어 양 기관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불쌍한 고아’는 ‘불량아동’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기준은 모호했고, 이들은 일반아동과는 다른 특수아동으로 취급되었다.

이처럼 미디어 속 아동양육시설과 종종 ‘고아’로 불리는 시설 아동은 가족 및 아동기의 이상과 대비되어 불행한 아동기와 (특히 정서적) 자원의 결핍 상태로 묘사된 것 외에는 논의가 더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타자와 타자들의 공간으로서의 재현을 넘어서 일상적인 장소로서 시설을 바라보는 접근이 요청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2020년대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적 맥락에 놓인 일상의 장소로서 시설을 바라보며,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의 범위와 방법론적, 또한 시기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의 몇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방법론적으로 시설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해 현장성을 드러냄으로써 타자와 타자들의 공간으로 재현되어온 시설 및 시설 아동의 전형적 이미지에 질문을 제기하고, 면담 위주로만 진행되었던 선행연구를 보완한다.

연구 대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면담 연구들은 성인 구성원을 거의 독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이미 시설을 퇴소한 이들이나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과 직원을 포함한 시설의 주요 구성원들에 주목하되, 특히 상대적으로 양적 연구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대변되어온 아동을 주요 연구 참여자로 삼으며 이들의 구체적 일상 경험에 주목한다. 또한 시설에서의 일상을 함께 구성해가며 여전히 시설의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 시설 퇴소인, 후원·봉사자와 사회복지 실습생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부의 일상적 대화와 호칭, 내부 의례와 공간 구조에 주목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이라는 낙인적으로 이해되어온 공간에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는 측면과 단절감과 거리를 두는 측면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나이와 젠더를 비롯한 개인적 배경이 주는 위치성이 시설의 어떤 것을 보도록, 그리고 보지 못하도록 하는지, 특히 20대 여성이라는 속성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시설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지에 대해 성찰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이뤄지는 2022년 중반에서 2023년 초반이라는 시점은, 지난 2019년 12월 이래로 집단생활에 대한 강한 제약 속에서 지속

해서 조정되어온 일상적 실천들이 코로나19 이전의 방식을 참고하면서도 또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끊임없이 조정되어가는지에 대한 탐구를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2020년대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이 코로나19를 겪어 오며, 또한 그 이전부터 가정이라는 아동 양육의 상징적·규범적 장소와 비교되어오며 어떻게 일상을 수행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 제 3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 아동양육시설 도담원<sup>4)</sup>과 구성원들

연구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연구를 수행할 아동양육시설 현장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외부인인 연구자가 시설을 출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일상이라는 폭넓은 영역에 관한 연구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 줄어든 4월경 경기도<sup>5)</sup> A시에 위치한 도담원 사무국장과 원장의 연구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도담원은 1950년대에 설립된 시설로, 종사자와 아동을 포함해 약 100명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도담원은 1999년부터 3년 단위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몇 차례 우수시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변 시설들로부터 평판도 좋은 편이다<sup>6)</sup>. 경기도의 다른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해 보

- 
- 4) 공개된 아동복지시설 지표를 통해 해당 시설을 특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의 이름과 시설이 위치한 지역, 구체적인 종사자(직원)의 수와 아동의 수는 밝히지 않는다.
  - 5)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에는 총 236곳의 아동양육시설이 있으며 그중 경기도에는 25개 시설이 있으며, 704명의 직원들과 959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 6)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 근거하여, 3년 단위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한다. 시설평가 기준은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아동의 권리, E. 지역사회관계, F. 시설운영전반의 6가지 항목으로, 3인의 현장 평가위원이 시설에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아동 및 직원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결과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평가결과 미흡(D, F등급)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 시설에는 역량

았을 때, 도담원은 종사자 수와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수 모두 평균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경기도 아동양육시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 아동양육시설들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25곳 중 15곳이 5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40년대에 2곳, 60년대에 3곳으로 20곳이 60년대 이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가 있다<sup>7)</sup>. 시설 종사자 수는 평균 28명, 생활할 수 있는 아동들의 정원은 평균 약 50명,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평균 약 39명이다.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곳,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12곳에서 약 40~6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도담원에도 미취학에서 고등학생까지 약 50명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연령상 유치원을 다니는 미취학과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합해서 약 20명, 초등학생 아이들이 약 30명으로 연령상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더 자세히 보면, 3학년 이하의 저학년이 약 10명, 4학년 이상의 고학년이 20여명이다. 전체 성별은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나 여자 아이들이 조금 더 많았다.

아동양육시설의 직원 배치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시행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따른다. 201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시설별 배치되는 종사자 수는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동이 30명 이상인지, 아동이 30명 미만 10명 이상인지, 아동이 10명 미만인지에 따라 다르다. 도담원같이 아동이 30명 이상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원장

---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시설장(원장)들은 시설 평가 준비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6개의 기준에 모두 높은 등급, 즉 “올 에이”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도담원의 경우 ‘올 에이’가 아닌 경우도 있었으나, 이때에 다른 시설에서 도담원이 A등급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하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도담원의 평판 및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자가 만난 도담원 구성원들, 특히 도담원의 다른 시설의 상황도 목격 및 경험해온 구성원들은 도담원을 잘 운영되는 시설로 보고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양육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화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으로 다른 아동양육시설 연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담원 사례연구는 그 자체로 시설과 가정의 차이만큼이나 시설 간의 차이도 볼 수 있음을 보이는 한 사례일 수 있으며, 특히 그동안 “잘 운영되는(well-run)” 시설의 사례연구가 드물었다는 점(Huynh 2014)에서 시설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여한다.

7) 그 외에 1980년대에 1곳, 1990년대에 1곳, 2000년대에 2곳, 2010년대에 1곳이 설립되었다.

(시설 장), 사무국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이상이 근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8)</sup>. 이 중 ‘보육사’로 명시된 생활지도원이 주로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아동의 나이에 따라 배치되는 생활지도원의 수가 다르다.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생활지도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7세 이상 아동은 아동 7명당 1명, 3~6세까지의 아동은 아동 5명당 1명, 0~2세까지의 아동은 아동 2명당 1명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도담원에는 20여 명의 생활지도원과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자립지원전담요원, 임상심리사, 사무원, 영양사, 안전관리요원, 위생원, 간호조무사, 4명의 조리원, 그리고 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이다.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구성원들이 일상을 통해 구성해가는 장소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만큼, 연구의 주요 대상은 현재 일상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과 현재 아동양육시설에 근무 중인 직원 집단이다. 한편으로 시설 안팎에서 진행되는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로 방학 중 단기간이지만 시설 생활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복지학과 실습생, 그리고 퇴소 후에도 여전히 시설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있는 퇴소인과의 상호작용이 시설 생활에 영향을 주고, 이들 또한 다양한 정도로 시설이라는 장소를 함께 만들어내는 행위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에 포함된다. 특히 면담 연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소개는 이들이 어떻게 도담원에 오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표 1] 면담 참여자 일람 표

구분 (도담원 내 위치)	이름 <sup>9)</sup>	나이 (±1)	성 별	도담원 진입 시점	참여 기간	비고
---------------------	------------------	------------	--------	--------------	-------	----

8) 또한 직업훈련교사와 상담지도원은 필요시에, 생활복지사와 조리원은 아동 30명 초과 시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 100명 초과 시 1명을 충원해야 한다.

직원	차은주	48	여	2006년 1월	17년 근무	원장
	김성민	41	남	2009년 8월	13년 근무	
	김현우	24	남	2021년 9월	1년 반 근무	사회복무요원
	최성진	40대	남	2009년	13년 근무	2023년 2월 퇴사
아동 및 퇴소인	박유진	17	여	2015년 1월	8년 생활	
	성서연	22	여	2004년	16년 생활	
	최수빈	21	여	2006년	15년 생활	A시 거주
	정민준	20	남	2017년 2월	5년 생활	
	조지훈	41	남	1987년	12년 생활	A시 거주, 이정훈의 소개로 면담 참여
	이정훈	42	남	1988년	12년 생활	1년 반 근무, 김준호의 소개로 면담 참여
실습생	유지혜	30대	여	2022년 8월	1달 실습	
후원 · 봉사자	김준호	44	남	2003년	20년	교회 기반 단체 소속

9)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전자가족관계 시스템 ‘상위 출생신고 이름 현황’ 데이터 및 ‘한국인의 이름 통계’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시대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온 이름을 사용해 익명화했다. 면담 연구 참여자 외에도,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도담원 구성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해 표기했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지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2022년 4월 대면으로 도담원 원장으로부터 연구 허가를 받은 후, 5~8월 사이 주로 구성원들이 도담원 밖으로 나가는 외출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참여관찰을 시작해 왔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매주 1회 이상 도담원에 방문하며 현지 조사를 수행해왔다<sup>10)</sup>.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면담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전체 도담원 구성원의 소수에 불과하지만, 특히 주요 연구 대상인 현재 퇴소 이전의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대화, 그리고 도담원에 대한 태도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 관찰은 아동들이 주로 학교에 가있는 평일보다는 주말과 방학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시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구성원들 사이의 일상적 대화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도담원의 주요 행사인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하계 수련회, 후원자 초청행사, 명절 행사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행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날 행사, 몇 차례의 방별 외출 활동과 지역사회 학교 교사 초청행사에 참여했다. 2022년 10월부터는 매주 일요일에 학습 지도 교사로 참여해 10월부터 12월에는 유진을 포함해 고등학생 여자아이 두 명, 12월부터는 유진과 초등학생인 민서를, 그리고 2023년 3월부터는 민서를 지도해왔다.

또한 도담원에는 20년 넘게 아이들과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금전적으로 후원하기도 하는 지역사회 산악회 기반의 단체와 교회 기반의 단체가 있는데, 연구자는 그중 산악회 기반의 단체에 가입하여 2022년 7월부터 매달 둘째 주에 아이들과 등산 활동을 진행해왔다. 산악

---

10)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음을 밝힌다(승인번호: IRB No. 2206/002-020). 연구자 소개와 연구 참여자 섭외는 모두 연구윤리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다양한 아이들 2~30여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 간, 그리고 그들과 봉사자 사이의 관계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산악회 봉사·후원자들은 산행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포함해 매달 생일을 맞이한 아이들을 위한 식사, 매년 퇴소하는 아이들을 위한 연초에 2박 3일간의 제주도 여행 및 고등학생 아이들의 부산 여행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여행 일정에도 참여해 봉사·후원자와 아이들의 관계와 시설 밖에서 시설 관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방식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많은 도담원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대화, 도담원에 대한 태도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약 10명에 해당하는 도담원의 미취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체 아이들이 모이는 행사 외에 직접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도담원의 아동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것이며, 연구에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동의 경험이 재현되고 있다.

민족지적 연구에서 참여관찰은 종종 면담과 병행된다. 본 연구에서도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동할 때 나눈 대화 등 아동들과의 비공식 면담이 현장을 이해하고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나아가 아동 및 직원과 심층 면담 일정을 조율할 때는 가능한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친숙해진 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도록 했다. 따라서 심층 면담은 주로 연구의 후반부인 2022년 12월~2023년 4월 사이에 이뤄졌다. 면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참여관찰이 현장의 생생함과 풍부함을 살릴 수 있는 연구 방법임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시설의 구성원들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사실을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혹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전제들이라 언급되지 않았으나 구성원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면담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이용숙 외 2012: 56). 참여관찰을 병행하기 어려운 퇴소한 성인들의 경우 심층 면담만을 진행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퇴소인들은 퇴소 이후에도 시설에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구 참여자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12명의 면담 참여자 중 2명의 퇴소인은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구 설명을 하고 면담을 진행했으나, 다른 이들은 모두 연구자가 도담원에서 직접 다른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특수한 생활, 근무, 후원·봉사와 퇴소나 퇴사 경험이 도담원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도록 이끄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면담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개념과 도담원이란 장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변화’에 대한 질문은 연구 참여자들이 시설과 관계를 맺어온 기간에 따라 코로나19뿐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해온 도담원의 물리적, 정책적, 관계적 변화에 대한 진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시설에서 일상을 수행해온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어떻게 틀 짓고 있는지가 주요한 관심 요인이었기 때문에, 참여관찰과 면담이 병행됨으로써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의 말과 참여관찰 시 나타나는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불일치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주목할 수 있었다. 면담 시간은 직원의 경우 아동들이 주로 학교에 가 있는 평일 오후 중에, 아동과 퇴소인의 경우 주말 중에 이뤄졌다. 면담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40분이었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다음 인터뷰 내용을 녹음했다.

### 3) 연구자의 위치성

참여관찰을 하는 연구자가 자신의 주체성, 구성, 경험들이 가져오는 ‘연구자 효과’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연구 맥락에서 자신의 위치에 성찰적으로 참여하고, 그 위치가 제공하는 해석과 이해를 이용할 때, 추가적 이론적 성찰과 새로운 질문과 문제, 관심들이 산출될 수 있다 (Buchbinder et al. 2006: 48). 특히 아동들과 함께 하는 연구에서 참여관찰은 성인 연구자와 아동 참여자들 사이의 위계 관계의 강도를 완화할

방법으로 기대되는 한편(Buchbinder et al. 2006: 53), 연구자 본인의 특성에 따라 아동 참여자와 다른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다<sup>11)</sup>. 20대 여성인 연구자는 여아들과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에 의해 여아와 짹을 이뤄 활동하거나, 외부활동 중 여아를 보조하도록 이끌어지는 경우가 잦았다는 점이 기인했다. 연구자가 학습을 지도하도록 요청받은 3명의 아이들 모두 여자 아이들이었으며, 전 아동과 근무 중인 직원 구성원이 동반한 수련회 행사 당시에도 여성 직원 및 실습생과 같은 방을 사용했다.

또한 청년기에 속한 연구자는 직원들과 후원자들에게 그들과 있는 것보다 아이들과 있는 게 더 편할 아이들 또래로 인식되었기에 아이들과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했다. 또한 도담원 아이들의 상황을 설명할 때 부모에게 심리 정서적, 경제적으로 의존한다고 가정되는 연구자와 아이들의 환경을 자주 비교했다.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것처럼, 연구자는 행사를 돋는 스태프, 자원봉사자, 학습 지도교사 등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며 도담원 구성원들이 일상 속 연구자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불편함을 최대한 덜 느끼도록 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본 연구가 시설의 전반적인 일상을 연구 범위로 하는 만큼 시설의 구성원들이 연구 과정에서 외부인인 연구자에게 사생활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시설의 구성원이자 주요 연구 대상인 아동들에게는 이 연구 자체가 시설 아동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윤리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맥락에서 아동 연구 참여자는 본인이 생활하는 시설 속에서 성인 여성인 연구자를 만나게 됨에 따라 연구자를 시설 직원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이세원 2020). 이는 아동 참여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으며,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연구 현장

11) 예컨대 Thorne(1993)은 여성 연구자로서, 그녀 자신의 아동기를 연상시킨 여아들과 자신을 더 동일시했지만, 여아들과 달리 남아들은 자신의 과거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며, 남아들과 더 분리되고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계 맺었음을 기술했다. Mayeza(2017)는 남아와 여아들이 성인 남성인 자신을 다르게 구성하는 데 주목하고, 남아와 비교해서 여아와 친해지고 여아의 사회적 세계에 자신을 몰입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음을 기술했다.

속에서 직원이나 봉사자들이 연구자를 연구자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다른 돌봄 제공자들-실습생,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등-과 오인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났다. 실제로 연구자를 부르는 호칭은 이모와 언니/누나를 오갔고, 학습지도 교사로 참여하며 선생님(쌤)이나 연구자 쌤(선생님)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직원(생활지도원)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늘 있었다. 나아가 참여관찰과 면담이라는 연구 방법이 연구 현장 시설의 일상적 행위인 심리상담이나 시·도 공무원의 양육 점검과 오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또 다른 오인의 상황은 인류학적 연구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다른 연구자와 공통되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도, 연구자-돌봄 제공자, 면담/참여관찰-상담/양육 점검(모니터링)이라는 구체적인 오인의 내용과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연구지의 주요 특성을 드러내도록 했다.

####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고는 서론, 연구 현장과 연구 참여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도입 한 개 장(2장)과 본론 세 개 장(3~5장),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의 도입에 해당하는 2장에서는 도담원의 일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도담원에 처음 들어오고 적응하던 당시의 기억을 면담 참여자들의 목소리로 재구성한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먼저 도담원의 전반적인 일상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면담에 참여한 아동과 20대 퇴소인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어떻게 도담원에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 다룬다면, 3절에서는 실습생, 사회복무요원, 직원과 후원자들이 도담원에 어떻게 입사하거나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다룬다.

본격적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3~5장에서는 시설 일상을 통해 시설과 가정의 차이 및 위계가 어떻게 도전받으면서도 재생산되는지에 관해 탐구

한다. 구체적으로 3장에서는 ‘집’, 4장에서는 ‘가정’, 5장에서는 ‘가족’이 구성원들에게 도담원이라는 장소와 구성원 관계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방식에 주목했다. 집, 가정, 가족이라는 용어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도담원의 다양한 행사들에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이 인식하는 도담원 공간과 관계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주요하게 사용하는 용어였다. 광의의 집-가정-가족은 거의 분리되지 않은 채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지만, 다른 강조 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집’은 도담원의 물리적 공간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다. ‘가정’은 도담원이 수행하는 기능인 아동 양육과 돌봄 수행에 초점을 둘 때 자주 언급되었다. 즉, 가정은 구성원에 대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였다. ‘가족’은 다른 용어보다 가족을 구성하는 성원 자체와 그들이 가족이라는 관계 단위로 연결되는 방식에 강조점이 있었다. 이러한 강조점을 고려하여 각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시설을 보다 가정-집(family-home)의 모습을 떠도록 만들려는 직원들의 노력과 구성원들이 도담원 밖에서 여전히 낙인찍힌 장소인 도담원을 숨기려는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시설이 어떠한 장소로 이해되는지에 대해 다룬다. 1절에서는 도담원의 현재 공간이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점에서 가정-집과 다르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지 살펴보며, 2절에서는 도담원이라는 시설 안에서 ‘시설스러움’ 없애기가 목표로 제시된 배경과 그 결과가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3절에서는 퇴소인들과 아동들에게 ‘보육원 아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과 그 사실을 숨기지 않기 위한 도담원의 인식 개선 시도,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제한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아이들의 집이자, 직원들에게 직장이며,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된 아동양육시설인 도담원의 돌봄 노동이 가진 특성과 돌봄 노동이 수행되고 평가되는 방식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아동 돌봄의 장소로서 도담원이 끊임없이 ‘일반 가정’ 및 ‘일반 직장’과 비교

되어 말해짐에 따라 도담원이 가진 어떤 측면이 강조되는지 조명한다. 1절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도담원이 ‘집단시설’이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구성원들이 ‘일반 가정’과 느끼는 차이가 부각된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도담원의 돌봄에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본다. 2절과 3절에서는 아동의 규범적 돌봄자로서 ‘엄마’에 대한 이상에 따라 시설의 돌봄노동이 끊임 없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또한 이를 의식하며 직원들이 이곳이 ‘일반 직장’과는 다른 종류의 관계적 노동을 수행하는 장소임을 주장하고 ‘일반 가정’과 다른 요소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시설 아이들의 취약성을 내세움에 따라, 일상의 돌봄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아이들의 돌봄 수행이 가려지는 방식에 대해 다룬다.

5장에서는 도담원 구성원들에게 아이들이 도담원에게 오게 된 원인으로써 가족(원가정)이 양면적으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계는 가족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방식들에 주목한다. 1절과 2절에서는 구성원들에게 혈연 부모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이해됨에 따라 시설이 가족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나타나며, 이것이 도담원 안에서 ‘고아’라는 부모 부재의 기호를 아이들과 직원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도록 영향을 주는 방식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가족과 달리 도담원 관계는 퇴소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아이들에게 공유됨에 따라 퇴소 후에도 실재하는 이어짐들이 가려지고, 만 18세 이후에도 시설에 더 있을 수 있는 연장보호제도<sup>12)</sup>가 아예 선택지로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하여 도담원이 어떤 장소인지를 정리하며, 구성원들이 어떻게 ‘낙인적 장소감’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또한 도담원 사례를 통해 시설 환경을 포함해 다양한 양육 환경 안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보장될 방안 및 아동양육시설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12) 2021년 12월 「아동복지법」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설 및 가정 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제 2 장 도담원에 오기까지

2장에서는 도담원의 일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도담원에 처음 들어오고 적응하던 당시의 기억을 면담 참여자들의 목소리로 재구성한다. 1절에서는 먼저 도담원의 전반적인 일상을 살펴본다. 2절과 3절에서는 인터뷰를 근거로 구성원들이 도담원과 어떻게 입소나 입사, 봉사 등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다룬다.

### 제 1 절 도담원의 전반적 일상

[사례] 도담원 방문 첫 날의 참여관찰 일지/2022.04.09.

4월 평일의 13시 55분. 도담원 건물은 주변 주택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원 주변에는 주민들도 이용하는 놀이터 겸 공원이 있다. 약간 푸른빛이 섞인 퇴지 않는 회색 건물. 꽤 넓은 주차장에는 농구 골대 하나가 세워져 있다. 건물 정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평범한 빌라 같았다. 빌라 출입문처럼 호실별 호출 벨도 있다.

도담원은 1950년대에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종사자와 아동을 포함해 약 100명이 일상을 보내는 장소이다. 미취학에서 고등학생까지 약 50명의 아이들 중에는 연령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으며, 성별은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아동 대부분이 10년 이상 생활하며, 만 18세 이전의 조기 퇴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여 더는 법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게 된 아이들이 2월 중 퇴소하고, 그렇게 생긴 빈자리에 인근 지역의 영유아 전담 시설의 아이들이나 학대 피해 쉼터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형태로 인원 구성의 변화가 이뤄진다.

[표 2] 도담원의 시기별 정기 프로그램

시기	내용	비고
1월~3월	입소	주로 미취학 아동
8월	전 가족 수련회 (전체 구성원 대상 하계 수련회)	8월 초 2박 3일 아동자치회 임원의 사전 답사 후 숙소 결정
명절 (설, 추석)	홈-커밍 데이 (Home-coming Day)	퇴소인 방문 행사 방별 외출 또는 연고자·후원자와 외박
12월	후원의 날 (후원자 초청행사)	12월 초 평일 오후 후원자 초청 행사 연간 활동보고 및 문학상 시상 등
	자치회 선거	고등학생 회장, 부회장, 서기가 한 팀으로 출마. 12월 한 달간 공약 홍보 후 찬반 투표하며, 임기는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1월	자치회 임원 워크숍	1월 중순 2박 3일 일정. 신규 자치회 임원 대상
2월 말	퇴소식 및 방 재배치	2월 중 (만기)퇴소 및 이사 퇴소 및 입소 예정에 따른 방 재배치

개별 가정에서 도담원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아동이 바로 입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먼저 시청의 아동복지과에서 상담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입소하도록 안내한다. 입소하는 아이들은 모두 아동복지법 제 6조(입소 의뢰)<sup>13)</sup>에 따라 입소신청서와 함

께 ‘아동 카드’를 갖고 들어온다. 총 2부의 아동 카드는 시설에 1부, 그리고 담당 지자체에 1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의 보호 의뢰 사유와 발생 당시 사진, 신원확인 여부,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와 가족관계, 보호 조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호 의뢰 사유’는 유기, 미혼부모 혼외자, 미아, 가출, 비행부랑, 아동 학대, 보호자빈곤 실직, 보호자 사망, 보호자 질병, 보호자 수감, 부모 이혼, 기타 총 12개 중에 중복체크가 가능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호대상아동통계」나 도담원 자체 ‘주요 입소 이유’ 통계에는 보통 한 가지 이유가 선택된다. 2022년 기준으로 ‘가정 내 학대’는 아이들이 도담원으로 오는 가장 주된 이유다. ‘주요 입소 이유’를 살펴보면, 학대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미혼부모 13명, 부모 행방불명 11명, 빈곤 7명, 부모 사망 2명 등이다. 즉, 학대와 미혼부모, 빈곤 등 이유로 입소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통적 의미의 ‘고아원’을 구성하던 ‘고아’, 즉 부모 사망으로 입소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아이들의 입소 의뢰 사유와 가족관계에 따라, 도담원에서 ‘가정’은 다른 의미로 쓰인다. 아동에게 ‘원가정’이라고 불리는 부모나 친인척이 있는 경우, 그들과 정기적으로 면회, 외출 등을 이어가도록 해서 가정상황이 개선되면 원가정 복귀 형태로 조기 퇴소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 때, 아동이 학대로 인해 입소하였으면 부모는 원칙적으로 아동보호전담 기관의 상담 및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야 아동을 만날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13) 제6조(입소 의뢰) ① 영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 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1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규칙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향 등을 조사

교육을 다 이수하지 않아도 시설을 찾아와 아동을 보고 가는 경우도 있다.

[표 3] 아동의 연고자 유무에 따른 ‘가정’ 프로그램

무연고 아동 대상	결연가정지원	무연고아동 1인 1가정 맺어 주기
	가정 체험	명절 또는 비정기적인 후원자 또는 봉사자의 가정 방문(외박)
연고 아동 대상	원가정 연계	명절, 방학 등 원가정 만남, 외출 및 외박(가정 방문)
	부모교육	연고아동 가족 대상 아동양육기술 교육
	상담 치료	전문상담원 연계해 연고자-아동 관계 형성, 강화 및 원가정 복귀 위한 상담지원

무연고 아동의 경우 후원자와 1:1로 결연을 맺어 명절이나 아동의 생일 등에 후원자의 집에 방문해 자고 가는 ‘가정 체험’을 하고, 퇴소 후에도 연락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한다.

한편 추석과 설날 명절은 연고자나 후원자와 함께 외박하는 아이들로 평소보다 한산하지만, 도담원을 퇴소한 이들이 공식적으로 다시 찾아오는 ‘홈커밍 데이’이기도 하다. 연말에는 후원자들을 초청해서 일 년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같이 식사하는 후원 행사가 있으며, 연고자가 방문해 아동과 식사를 하고 가기도 한다. 또한 12월에는 회장-부회장-서기로 구성된 자치회 선거가 있는데, 임기는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약을 내걸고 출마해 아이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선발된다. 자치회 임원들

---

해야 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본조신설 2021. 6. 30.]

은 매해 8월 초 2박 3일간 진행되는 전체 수련회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숙박할 장소를 정해 담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도담원의 많은 활동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생활지도원과 아이들 단위로 이뤄지는데, 명절 때는 방별로 영화를 관람하러 외출하기도 하며, 분기별로 방 단위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주말은 생활지도원보단 외부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도담원 밖에서 진행된다. 현재 도담원에는 약 7개의 외부 봉사자 모임들이 존재하며, 매달 1회 주말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 한 곳을 제외하면, 각기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중 특히 오래된 단체 중에는 지역사회 산악회 기반의 단체와 교회 기반의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봉사자 인원 구성은 조금씩 바뀔지라도 20년 이상 도담원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각각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정기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회 기반 단체의 경우 볼링장, 스케이트, 소풍 등을 진행하며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고, 산악회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 도담원 안으로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은 공부를 지도해 주거나 머리를 잘라주며 영상 제작이나 컴퓨터 활용을 지도하는 예도 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만 15세(중3) 이상의 아동에 대해 매년 자립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실질적인 자립의 준비는 주로 방의 생활지도원이 일상 속에서 수행한다. 대신 자립지원전담요원은 퇴소한지 5년 동안 퇴소인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으며, 특히 1~2월 경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주요 업무는 아이들이 살 집을 함께 알아보러 다니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보호를 연장할지 자립지원전담요원, 임상심리사, 원장 등 다양한 직원들과 상담하고, 퇴소를 결정하였으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함께 거주지를 알아보고 이사를 돋는다. 2020년대 도담원의 퇴소인들에게는 퇴소 후 LH 공사의 지원을 받아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다. 이사할 때는 사무실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이삿짐 옮기는 것을 돋기도 한다.

## 제 2 절 도담원 아이들의 입소 배경

2022년 2월에 3명의 아이들이 퇴소했고, 5명의 아이들이 입소했다. 5명의 아이들 중 4명은 영유아 양육시설에서 왔고, 1명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오게 되었다. 이러한 입소 배경에 대해 직원들은 90% 이상의 아이들에게 부모 외에도 고모나 할아버지 같은 연고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모든 아이가 연고자와 연락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미취학 연령대에 도담원에 들어와 10년 이상 생활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만 18세가 넘어 만기 퇴소하는 것에 비해 “가정 귀가” 방식으로 중도 퇴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도담원에 들어오고 적응하던 당시의 기억을 면담에 참여한 아동 및 퇴소인들의 목소리로 재구성한다.

성서연은 “태어났을 때부터” 도담원과 같은 “공동 양육시설에” 있었다. 즉, 1살부터 3살까지는 인근의 영아 시설에 있었고, 4살이 되던 2004년에 아동양육시설인 도담원으로 오게 됐다. 최수빈은 5살이던 2006년에 도담원으로 왔다. 최수빈과 같은 시기에 한 명이 더 같이 왔었으나, 이후에 지적 장애를 진단받아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넘어가던 때 장애 시설로 갔다.

### [사례] 성서연 퇴소인 여 22세/심충면담/2022.11.11.

근데 이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안 했어요. (웃음) 그 초등학교 때든 어쨌든, 오히려 학교 사람들이랑 좀 더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리고 보통 어렸을 때는 가족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런, 그 자체로 있는 사람들인 거고.

최수빈과 성서연처럼,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도담원에 있던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 정도가 되면 이미 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있는 사람들”이 된다. 도담원은 더는 적응이 필요한 장소가 아니었으며, “이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도담원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2015년 1월, 당시 10살이던 박유진이 3살 위의 언니와 함께 도담원에 들어왔다. 도담원의 생활공간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박유진의 언니는 최수빈을 포함해 더 큰 아이들이 머물던 방으로, 박유진은 더 어린 아이들이 머물던 다른 방으로 가게되었다. 최수빈은 박유진의 언니가 들어오던 날짜와 그 당시의 상황을 놀라울 만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충면담/2023.02.15.

**최수빈:** 유나[박유진의 언니]는 2015년 1월 6일인가에 들어왔어요.

**연구자:** 늦게 들어온 편인가요?

**최수빈:** 네, 혼하지 않죠.

**연구자:** 날짜도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최수빈:** 그때 화요일인가 그랬을걸요? (놀란 표정의 연구자를 쳐다보고 웃으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오요.

**연구자:**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최수빈:** 그때 저희 방 애들끼리 다 같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러블리즈의 <캔디 젤리 러브>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나가 왔어요. 기억나요. 그냥 뭔가 되게 달갑지 않은 반가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데 중간에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가족이랑 생활하고 온 애들**, 초등학교 후반이나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부터 들어온 애들은 별로 그렇게, 애들이 반기지 않아요.

**연구자:** 왜 안 반기는 걸까요?

**최수빈:** 일단 **가정에서 살다 왔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모르겠어요. 낯선 이기도 하지만 뭔가 가정에서 살다 왔다? 거의 대부분 이런 애들은 가정에서 살다 오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해져야 하고**, 또 누가 한 명이 옴으로써 그 방 생활 자체에 변동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익숙한 게 좋은 걸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누구 한 명이 들어오면 누구 한 명은 나와야 하거든요. 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들어오면서 한 명은, 친했던 한 명은 다른 방으로 가야 하니까.

최수빈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자신을 기준으로 “만약에 10명이라고 치면 8명은 원래부터 알던 애들”이었다. 박유진이나 유진의 언니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중간 입소’라고 본다면 그 비율은 약 20% 정도이다. 2015년에 최수빈은 이미 도담원 생활 10년 차였고, 동갑이던 아이들도 최수빈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들어와 대부분 도담원에서 생활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동갑인 박유진의 언니가 들어온 흔치 않은 일이 최수빈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것이다.

한편, 박유진과 그녀의 언니가 들어온 당시를 설명하며 최수빈은 여러 번 “가정에서 살다 온”이란 표현을 반복했는데, 기억조차 잘 안 나는 어릴 때부터 도담원에 있었던 자신과 달리 “가정에서 살다 온” 아이들을 맞이할 때 느끼는 달갑지 않음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가정생활 경험은 왜 새로 들어오는 아이를 특히 “더 반갑지 않”게 만드는 것일까?

최수빈보다 한 살 아래인 정민준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7년도 2월에

도담원에 왔다. 정민준은 보통 같은 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월 말에 같이 퇴소하는 동갑내기 중 제일 늦게 들어왔을뿐더러,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도담원에 들어오는 중간 입소자 중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였다.

[사례] 정민준 퇴소인 남 20세/심충면담/2023.02.20.

정민준: 17년도 2월일 거예요. 저 같은 케이스가 드물대요… [...]

제가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할머니랑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 방치랑 학대가 있어서 그거를 중학교 들어가서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담임 쌤이 약간 상담해 주시더니 담임 쌤이 시설로 보낸 것 같은데 신고자는 약간 익명으로 돼있다고 하셔서 대충은 담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요?

정민준: 단체 생활이잖아요. 단체 생활을 처음 해봐서 힘들었어요. 약간 안 맞는 것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았고, 근데 이게 단체 생활이니까 업고 가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민준이나 박유진이 자신이 들어오게 된 이유와 들어오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히 기억한다면, 최수빈은 박유진의 언니가 들어오던 날에 대해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에 반해 자신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는 아는 게 없었다. 고등학생 때쯤 원장에게 물어본 이후에야 자신이 들어온 날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충면담/2023.02.15.

최수빈: 저는 2006년에 4월 21일에 입소했어요. 기록을 봤어요.

연구자: 기록은 언제 보신 거예요?

최수빈: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중간에 한 고등학교 때쯤?

그냥 엄마한테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 원장님한테요. 궁금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사례] 박유진 아동 여 17세/심충면담/2023.02.12.

저희 방에도 한 두세 명밖에 없을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 진짜 아무도 없는 애 몇 명 들어오긴 했고, 그리고 연고자가 계속 찾아오는 애들도 있긴 해요. 아빠나 엄마나 아니면 삼촌 이런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찾아오긴 해요. 근데 진짜 없는 애들은 진짜 없긴 해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어릴 때 와서 진짜 어릴 때. 엄청 어릴 때 와서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 저는 애초에 여기에 오기 전에 직접 제 눈으로 다 겪어서 알아요.

최수빈처럼 어렸을 때, 그리고 특히 성서연처럼 인근의 영아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도담원으로 오게 되는 “진짜 어릴 때” 온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그보다 나이가 많고, “가정에서 살다” 온 아이들은 자신의 입소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늘날 주요 입소 이유인 가정 내의 학대는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비교적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 “직접 제 눈으로 다 겪어서” 아는 상태로 도담원으로 오도록 한다.

원장이 최수빈에게 그녀가 들어온 당시 상황과 부모에 대해 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담원에 들어올 때 모든 아이들의 ‘아동 카드’ 역시 도담원에 같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아동 카드에 기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최수빈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sup>15)</sup>를 떼면, 부모님의 생년월일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수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등록기준지가 도담원이 위치한 A 시가 아닌 다른 시였다는 것, 부모의 생년월일, 그리고 그들의 생존 여

---

15)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 서류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그리고 본인과 부모의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과 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하였으면 사망 여부가 성명 옆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충면담/2023.02.15.

연구자: 연락하고 있는 친척들이 있나요?

최수빈: 아니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생존해있다. 아무래도 그냥 가족관계증명서 때면 부모님들 개인 정보 이런 건 나오니까. 그냥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77년생 아직 죽진 않았었더라고요. (웃음) 원래 이거 떼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주지? 아마도 내가 태어났던 곳. 그런 거까지는 알아요.

최수빈이 5살이던 2005년에 들어와 성인이 된 2022년 2월에 도담원을 나가기까지, 도담원에 있는 15년 동안 연고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다. 정민준은 현재 누나, 고모, 그리고 가끔은 어머니와도 연락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갈 곳이 없으니까” 도담원에 오게 되었고 2021년 2월에 퇴소했다. 이처럼 아동 카드에 연고자가 있다고 작성되었다고 해도, 또한 도담원에 오기 전에 “가정에서 살다” 오거나 “가족과 생활하다” 왔다고 하더라도, 도담원 아이들 중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이전에 가정 귀가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며, 도담원에 있는 동안 연고자가 계속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도 많다.

이렇듯 아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도담원에 들어온다. 유기와 이혼, 그리고 학대 등 입소 이유의 차이는 입소 연령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연령적으로는 비슷하게 입소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도담원으로 오게 된 각자의 사연은 셀 수 없이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다양성은 아이들과 이들을 돌보는 직원들에게 가정과 가족, 부모에 대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 제 3 절 직장, 실습처, 봉사기관으로서 도담원

2003년 군대를 제대한 24살의 김준호는 서울의 한 교회 봉사팀(‘구제 사역’팀) 구성원들과 함께 봉사처를 알아보다가 도담원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울 안에 있는 보육원에 먼저 전화를 해봤으나, “그런 전화를 하는 사람도 많고 원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가다가 한 다리 건너서” 경기도의 도담원으로 오게 되었다.

#### [사례] 김준호 후원봉사자 남 48세/심충면담/2022.12.12.

처음에 5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만에 [봉사자가] 30명 정도? 아이들도 많았고. 그때 저희가 담당하는 아이들이 20명 정도 됐어요. 4살 이상부터 중3까지였었거든요.

그 이후 김준호는 20년간 아이들의 ‘삼촌’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놀러장, 방학 때는 1박 2일로 캠퍼이나 스키장을 가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김준호와 함께하는 많은 봉사자는 아이들과 1:1 결연을 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매주 2시간씩 회의를 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김준호는 자신의 “인간관계가 교회밖에” 없다고 말한다. 봉사자들은 교회 예배를 이용해 매달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상의한다.

#### [사례] 김준호 후원봉사자 남 48세/심충면담/2022.12.12.

교회니까 교회에 예배가 세인데 12시에 와서 같이 밥 먹고 3시 전까지 회의하는 거죠. 그러면 매주 할 수 있어요. [...] 넷째 주니까 첫째 주에 피드백하고 [...]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걸 복습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저번 주에 이런 게 좋았다 이렇게 나눔도 하고. 둘째 주에 뭐 할까 정하고, 셋째 주에 준비하고, 넷째 주에 가는 거죠. [...] 아무것도 못 해. 인간관계가 교회밖에 없어요. 회사랑 교회.

이렇게 오랜 준비를 거치는 만큼 많은 봉사자가 “결혼하면 거의 다시 못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준호는 결혼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이 많은 산악회 봉사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사례] 김준호 후원봉사자 남 48세/심충면담/2022.12.12.**

코로나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바로 하실 수 있느냐. 아마 저희 말고도 기존에 있었던 팀들한테 다 오페가 갔을 것 같아요. 산악회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하면 거의 다시 못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였지만 그분들은 가족이 있는데, 그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산악회’는 93년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활동하는 약 10명의 봉사자 중에 가장 오래된 이영철은 약 20년 동안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 역시 “다 자비로 하는” 데다가 매달 토요일 한 주를 비워야 하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가족들이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줄곧 퇴소한 아이들을 위해 제주도 여행 비용을 지원해왔고, 올해에는 고1 아이들을 위한 수학여행을 기획했으며, “퇴소하는 아이들한테 따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사례] 이영철 후원봉사자 남 50대/비공식면담/2022.07.09.**

**연구자:** 매달 한번씩 이렇게 아이들이랑 산행하시고, 다른 때에는 산악회 분들끼리 산행하시는 건가요?

**이영철:** 아니요, 이것만 해요. 이 나이대 성인 남자들이 한가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빼기도 쉽지 않아요. 다 자비로 하는 거기도 하고.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연구자는 김준호를 통해 이정훈을 소개받았다. 이정훈은 도담원을 퇴

소한 퇴소인이자, 도담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직원이기도 했으며, 1년 반 근무 후 퇴사한 이후에 김준호와 같은 단체에 속한 봉사자이기도 했다. 그는 2000년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퇴소했고, 당시 “청약저축 같은 적금 한 500만 원”을 갖고 나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 철근 팀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고, 방학 때는 퇴소인끼리 모여 지내는 방에서 생활비를 각출해 함께 지내기도 했다. 졸업 후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쉬고 있던 24살 즈음 생활지도원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그 당시 “자격증은 있으면 좋은 정도”로 인식되었다. 제의를 받았을 때는 있을 때 잘 생활했었나보다, 본이 될 만한가 보다고 스스로 자부심도 느꼈다. 생활지도원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었고,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명절 휴커밍 데이 때 방문하거나 봉사자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그가 도담원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도 있다.

원장인 차은주는 2006년 1월 1일에 입사했다. 차은주가 입사해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함께 일했던 직원들도 있으나 그들은 “중간에 퇴사했다 다시 재입사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그녀가 현재 도담원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다. 아이들이 보통 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생활지도원을 ‘엄마’라고 칭한다는 점에서 차은주는 특히 중학교 이상의 도담원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존재다.

####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심충면담/2023.04.06.

제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여기서. [...] 아이들 돌보는 생활지도부터 시작해서 팀장 하다가 과장 하다가 원장으로 이렇게 된 케이스라서 그게 거의 올해 17년. 원장은 7년 차예요. [...]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미 퇴소도 하고 지금 고3이 되어있고 고등학생이 되어 있긴 한데 생활지도원 한 7년 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전공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차은주가 생활지도원이 되고 도담원에 오게 된 것은 여러 “우연한 기회”들 덕분이었다.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심층면담/2023.04.06.**

저는 여기는 서른한 살에 온 거라 그래서 그전에 사실 저는 처음에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었어요. [...] 저는 사실 사회복지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몰랐는데, 석사는 하기 싫고 근데 집에서는 공부해라 그러고,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보육원에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러 오래서 갔는데, 갔다가 또 우연히 거기 원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고 원장님이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 저 자격증도 없었고 전공도 아니었고,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엄청 혼나고 반대를 무릅쓰고… 부모님의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사실 높거나 이런 개념이 없으셨던 때고 저도 몰랐고. 근데 보육원에 가서 일하겠다 하니까 정말 친척들까지 반대했어요… 언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내가 지금 당장 닥친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보육원이라는 곳에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일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한 4년 정도 하고, 사실 해보니까 만만한 일은 아니고 그래서 소진이 좀 오기도 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진도 많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부모님께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말도 듣기 싫고 그래서 연고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 2년 정도? 그냥 학생들 과외수업하면서 2년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사회복지 일을 다시 하게 된 곳이 이곳이에요. [...] 저한테 도담은 이제는 제 삶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사도 왔어요.

이정훈이 생활지도원으로 일을 때처럼, 차은주가 도담원 이전에 보육원에서 처음 생활지도원으로 일을 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었다. “아무래도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갔던” 대학 전공과 비교해, 우연한 기회였지만 “어쨌든 사회복지라는 거는 제 기준으로 제가 판단해서 제 선택으로 처음 한 일이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러나 생활시설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고, 4년 정도 일하다 차은주는 소진을 경험했다. 소진(Burn-out)은 일종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탈진 상태를 말하는데, 개인적인 무력감, 절망감 등의 심리적 문제와 더불어 각종 신체적 질환, 그리고 업무에 대한 목표 의식과 열정의 상실, 업무 효율의 저하, 이직 발생 등을 초래하는 문제 현상으로 평가된다(김정은·이상록 2018: 149). 소진 문제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특히 많은 사회복지인력이 초기 3년 이내에 심각한 소진을 경험하며, 한국 사회에서는 유사한 직업들에 비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됐다(류주연·손유경 2017; 김정은·이상록, 2018). 특히 최근 연구들은 사회복지사의 소진 문제가 개인 특성이나 혹은 기관의 직무 여건과 조직 환경뿐 아니라 사회복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가치 평가 등에 의해 주요하게 규정되는 문제임을 보여왔다. 차은주가 “보육원에 가서 일하겠다” 했을 때도 당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17년 간 근무를 지속해오며, 이제 50명이 넘는 도담원 아이들은 차은주의 아이들이 되고, 도담은 그녀의 “삶”이 되었다.

2009년, 김성민이 도담원에서 실습하던 당시에도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기도보다는 과도기에 있었으나, 당시에도 도담원의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김성민은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해서 약 1년 반 이후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보직 이동 겸 승진을 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만 7~8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7년부터는 생활복지사 겸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실습생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도 맡고 있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심충면담/2022.12.30.**

2007~8년 그때 이미 우리 보육원은 저 빼고는 다 사회복지사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조직화하기 전. 보육원이 짧은 시간에 많이 조직화하고 시스템화됐어요. 저 입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취업할 수 있었다든지. 그래서 그 당시 보건복지부 평가 지표를 보면 사회복지사 비율, 그러니까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 비율로 점수를 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올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실습을 여기서 했어요. 그때 저는 교사 자격증으로 들어왔어요. 중등교원. 선생님에 대한 꿈을 꾸다가 좀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선생님의 상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교생 때 받았어요. 너무 사제 간의 정보다는, 교육이라는 게 가르치고 기르는. 가르칠 教에 기를 육(育)이거든요. 티칭과 그로잉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티칭 쪽에 치우쳐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그랬었고 임용고시도 사실 안 됐고. 그러면서 인근 사립학교에 지원서도 냈었는데, 거기도 3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아무튼 떨어지고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에,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학점은행제로 이렇게 사회복지를 들었다가 실습을 이리로 나온 거지. 학원 강사 같은 거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랬더니 와봤더니 좀 적성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교사를 준비하다가 도담원으로 온 김성민은 자주 도담원 공간을 학교 공간에 빗대어 표현했다. 또한 학교라는 그의 “시발점”은 마치 “사립학교 선생님”처럼 한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염두에 두게 했고, 이직률이 높은 도담원이란 직장에서 근무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심충면담/2022.12.30.**

**연구자:** 그러면 [도담에서] 계속 근무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성민:** 이제 제가 시발점이 학교였잖아요? 학교 다 공립 나오셨어요? 초중고? 사립학교 선생님들 지금 찾아가도 계시

죠? 그런 느낌으로요. 그런 거를 배워요. 학교가 한 곳에서 계속 일할 수도 있는 거고,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빵이 돌아겠지만, 그러니까 해당초 그런 것을 감안하고 살아요, 사범대생들은. 내가 공립을 갈지 사립을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크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이 있지 않아 저한테는. 그래서 크게 뭐 내가, 어디 크게 어디 가지 않는 이상 있지 않을까?

김현우는 대학을 1년 다닌 후 휴학하고, 2021년 9월부터 도담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처를 알아볼 때, “시청이나 관공서”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쪽은 일이 고되다고 해서 인기가 좀 없는” 곳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주로 후원 물품 관리지만, 또한 도담원의 많은 행사와 업무를 보조한다. 생리대 등 후원으로 들어온 소모품이 왔을 때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고, 달이 바뀌는 일요일마다 지급하는 일, 쓰레기 분리수거 외에 생활지도원들이 회의나 외근을 나가면 방에 지원을 가기도 하고, 어항 청소, 택배 물품전달,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에 더해 격리된 방에 식사를 가져다주는 일을 맡기도 했다.

유지혜는 2022년 7월 중순부터 4주간 도담원에서 사회복지 기관실습을 진행했다. 유지혜는 “직장생활 경험은 없지만, 아이들을 양육한 경험”을 토대로 “멋진 엄마”이자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했다. 그녀는 2022년 8월 기준 11살, 그리고 두 돌이 채 안 된 두 딸 아이의 엄마다. 유지혜를 포함해 실습을 진행한 4명의 실습생 중 유지혜만 아동을 양육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다른 실습생에 비해 생활지도원에 대한 아이들의 호칭으로서 ‘엄마’에 이질감을 덜 느끼게 했다.

#### [사례] 유지혜 실습생 여 30대/심충면담/2022.08.25.

처음에는, “엄-마!” 그럴 때는 저도 애들이 있으니까. 엄마 그러니까, “어!”(한 톤 높은 목소리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응되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어 그래,

괜찮은데. 다른 실습생들은 좀 뭔가 어색하긴 했나 봐요. 엄마라고 하니까.

유지혜의 실습 기간 동안 아이들은 조모들이 돌봤다. “작은 애는 실습 할 동안 외할머니댁에 계속 맡겼”으며, 특히 실습 기간 중 주요 행사였던 2박 3일간의 수련회 기간에는 큰딸도 친할머니와 함께 있었다. 유지혜에게 도담원은 좋은 실습처였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린 상황에서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걱정이었다.

#### [사례] 유지혜 실습생 여 30대/심충면담/2022.08.25.

제가 또 결혼한 상태에서 여기[도담원]를 만약에 [근무]하면, 여기 시설 아동을 챙기고 케어하느라 내 자식에 관한 공부나 그런 신경을 못 쓸 것 같다, 그 생각도 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면 하겠는데 결혼한 상태고 아직 아이도 어리기도 하니까. 어린 애는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공부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되더라고.

이처럼 2000년대 초반에서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의 자격 요건과 근무 형태 등이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 변화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공식 명칭인 아동양육시설보다는 보육원, 그리고 그보다도 ‘고아원’이 더 익숙한 표현이다. 여전히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은 고아원이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 [사례] 유지혜 실습생 여 30대/심충면담/2022.08.25.

보육원에 대해서, 실습하기 전에 매체 같은 걸 보면 아이들이 퇴소하면 어떻게 하냐, 어려움 쪽으로만 계속 강조를 듣고 또 사람들의 편견에서 약간 아이들이 좀 너무 어둡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들어와서 걱정했어요. 실습 딱 가서 생활하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던 거랑 틀리게 아이들이 너무 밝고 다른 아이들처

럼 똑같고 [...] 고아원 이름이 지금 보육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제가 “보육원에서 실습했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럼 보육원은 뭐 하는 거야 애들을 뭐 어린이집처럼 돌봐주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보육원이란 그거를 좀 모르고 고아원 같은 경우에도 엄마 아빠 부모가 없는 경우만 오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야 부모가 없기도 하지만, 부모가 있는데 양육, 그 키워줄 수 없을 상황일 때 맡긴다”, 그렇게 한 번씩 설명을 해줘야 해요.

[사례] 김현우 사회복무요원 남 24세/심층면담/2022.09.02.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기 전까지 좀 보육원이라는 말이 익숙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아원? 그 말이 더 익숙해서 보육원이 같은 느낌인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좀 힘들게 살거나, 애들이 입양도 가고, 막, 진짜 말 그대로 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웃 같은 것도 좀 옛날 거 있잖아요. 좀 현 웃 같은 느낌이 나는 거, 그런 건 다 바로 폐기해버리거든요. 애들이 입지도 않아서. 물론 선생님도 가져가지도 않으시고, 거의 새 웃 아니면 안 가져가고. 학원도 다니고.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심층면담/2022.12.30.

연구자: 사실 아직까지만 해도 보육원 하면 고아원으로 바로 그냥 연상하시는 분이 많죠.

김성민: 그래서 아까 신입직원 교육할 때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보육원의 정체성. 그래서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회복지사들도 모르고 들어오니까. 그 일반인 분들은 오죽하겠나. 근데 해나가야지 뭐.

이에 따라 도담원에 새로 들어오는 실습생, 직원, 후원자나 봉사자 등 어른들은 “말 그대로 티가 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들어오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기존 직원들은 신규 직원들에게 시설의 변화와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고, 도담원 구성원들은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봉사하며 ‘고아’와 ‘고아원’으로 대표되는 시설과 시설 아이들에 대한 주변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렇듯 아이들과 어른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시점에 도담원에 들어온다. 이러한 다양성은 도담원 구성원들이 가정과 가족, 집에 대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을 시설에 배치하는 보호배치원칙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CRC)에 명시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가정이 아동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시설을 포함한 가정 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와 이 권리의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한다.

#### UNCRC 제 20조(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의 보호)

1.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 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위탁 양육, 이슬람법의 카팔라<sup>16)</sup>, 입양,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다.

이때 시설은 아동권리협약 제 20조 3항에 마지막으로 제시된 선택지이다, “필요한 경우”,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명시한 유일한 선택지이다.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국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메뉴얼에도 보호조치 상 아동양육시설은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되며, “보호조치의 원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찾는 데 둔다는 것과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

16) 카팔라(Kafalah)란, 아랍어로 “다른 아동을 돌보는 것”을 뜻하며 ‘수양자 제도’를 의미한다.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생활시설 순으로 둔다는 데에 대해 이론적, 정책적, 행정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있다(류정희 외 2021: 159).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친가족(원가정)은 물론이고 가정환경이 선택 사항이 아니거나 시설에 사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 사항일 수 있다. 원가정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들은 일차적으로 공식적인 아동보호 체계보다 주로 확대 가족 내에서의 대리 양육 즉 친족 보호를 경험하게 되고, 이 확대 가족 내에서의 양육도 어려워지게 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정정호·정의중 2012). 정정호와 정의중(2012: 195)은 원가정에서 살지 못하면서 경험하는 “원가족과 확대 가족, 확대 가족과 시설, 가출 및 거리에서의 삶, 시설과 원가족, 시설과 시설 사이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경험”을 “표류” 경험이라고 정의했다. 2개 이상의 보호유형을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설과 시설 사이의 표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장기 시설이나 그룹홈에 가기 전 아동상담 센터에서의 배치(의뢰)를 위해 의도적으로 잠시 들르면서 혹은 처음 정착한 곳이 단기시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학대 이슈를 다를 수 있도록 훈련된 위탁가정이 많지 않고, 7인 이하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도 정원이 차서 더 받을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류정희 외 2021: 160). 이처럼 아동을 보호할 만한 위탁가정과 공동생활가정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 이미 많은 학대피해아동이 배치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실적 이유에 의해서 ‘가정형 배치’ 원칙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상황에 따라 시설배치가 아동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이 돌봄의 장소를 자동으로 최후의 수단이라 언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필요한 경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시설을 선택지 중 마지막 위치로 배정하는 것은, 일련의 돌봄 대안 중에서 특정 대안을 아동의 삶의 특정한 상황, 필요 및 소망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신, 시설보호를 열등한 선택지로 미리 결정한 계층 구조를 의미한다(Huynh

2014). 무엇보다 이러한 위계적 계층 구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배치된 이후에도, 시설 안에서 시설환경은 끊임없이 가정환경에 비교되며 아동은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이상이 재생산된다. 3장부터 5장은 시설 일상을 통해 시설과 가정의 차이 및 위계가 어떻게 도전받으면서도 재생산되는지에 관해 탐구한다. 그중 3장에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설스러움’이 부정적으로 이해됨에 따라, 시설을 보다 ‘가정’의 모습을 띠도록 만드는 노력과 시설을 숨기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시설이 어떠한 장소로 이해되는지에 대해 다룬다.

## 제 3 장 시설이 아닌 ‘집’ 만들기

안정적 가정환경이 아이들의 인권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됨에 따라, 가정 외 보호조치에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따른 위계가 존재한다. 이 위계에서 아동양육시설은 가장 끝,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아동양육시설 도담원 역시 이 위계를 수용하며, 그 안에서 ‘시설스러움’을 없애고 보다 ‘가정의 모습’을 띤 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장에서는 도담원이 ‘시설스러움’ 없애기를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해온 방식과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인식에 대해 다룬다. 또한 그러한 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징적·물리적 공간으로서 ‘시설’에 대한 도담원 바깥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담원 구성원들에게 계속 상기된다. 이를 염두에 둔 채, 도담원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도담원이라는 장소와 도담원에서 맺은 관계에 대해 어떻게 발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제 1 절 ‘가정집’이 되기 위한 노력

도담원 정문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골목에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안쪽에 있는데, 골목 초입에 작은 표시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곳이 아동양육시설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가 없다. 정문에도 ‘간판’이 없으며 회색빛의 건물은 주변의 빌라들 사이에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다.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비공식 면담/2023.05.25.

저희가,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간판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요구고요. 그래서 그냥 주택가에 있는 그냥 빌라 정도로 알고 지역

사회에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들이 ‘여기가 보육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제 간판이 없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은 어려워하세요. 근데 아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이들이 간판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간판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어떤 색 건물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취지를 설명해드리면 다들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셔서.

도담원 공간은 [그림 1]과 같이, 주차장을 사이에 둔 2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주차장을 기준으로 지대의 위쪽에는 미취학부터 일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생활하는 건물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건물이 있다. 위쪽 건물은 지상 2층, 아래쪽 건물은 지하와 지상 2층을 포함해 총 3층으로 이뤄져 있다.

### [그림 1] 도담원의 건물 배치

특히 위쪽 건물이 아이들의 방<sup>17)</sup>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아래쪽 건물

에는 방 외에도 강당, 식당과 사무실 등의 공간이 있다. 특히 여럿이 모이는 프로그램들은 지하의 강당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위쪽 건물 아이들 역시 아래쪽 건물로 자주 내려와 활동하며, 식사 시간마다 아래쪽 건물로 내려와 식사를 하고 올라간다. 아래쪽 건물 1층엔 중앙에 사무실과 양옆에 여자아이들이 생활하는 방 2곳과 세탁실이 있고, 2층에는 남자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이 3곳 있다. 1, 2층 각 방의 문 앞에는 ‘101호’, ‘202호’와 같이 호수가 적혀있다.

[그림 2-1] 101호의 외부

[그림 2-2] 101호의 대략적인 내부구조

약 40평대인 각각의 ‘호’ 안에는 공용공간으로 거실과 베란다, 주방과 세면실이 있고, 생활지도원이 머무는 방 1개와 각각 아동 2~3명이 생활하는 3개의 작은 방이 있다. 생활지도원이 머무는 방 안에는 책상 겸 화장대와 작은 옷장, 침대가 있다. 아이들의 각 방에는 2층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는데, 방별로 크기와 배치가 조금씩 다르다. 3명의 아이들이 같이 쓰는 조금 큰 방의 경우 2층 침대 하나와 또 다른 2층 침대를 반으로 분리한 침대 하나가 놓여있다. [그림 2-1, 2-2]의 101호 방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여자 아이들 8명이 한 방에 2~3명씩 나눠

---

17) 방의 이름으로 도담원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방의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한다.

져 생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위쪽 건물에서 어린 아이들이 머무는 방은 ‘방’으로 불리는 반면, 아래쪽 건물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머무는 분리된 방들이 ‘호’로 불린다는 점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도담원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현재 도담원의 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쪽 건물은 2010년대 들어 새로 지어진 것이다. 과거의 도담원에는 “각 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지금을 보면 “상상도 못 할”, “그냥 방”들로만 구성된 공간이었다.

#### [사례] 성서연 퇴소인 여 22세/심충면담/2022.11.11.

옛날 집에서 살 때는 방이 각방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다 한 방에서 다 같이 살았었어요. 옛날 집 가본 적 없으시죠? 옛날 집 구조가 그냥 한 방에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그냥 방이었어, 호가 아니라. 101호도 그때는 진짜 방이었어. 지금 그 건물이 없어서 상상도 못 하겠지만, 그리고 화장실도 집단화장실이었고. 집단 세탁소에 이렇게, 집단. 그러니까 딱 방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고, 방이 이렇게 있고 텔레비전 있고 컴퓨터 한 대 있고 장롱 있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머리 이렇게 대고 자는 거야. 거기서 놀고, 생활하고, 숙제하고. 밥은 식당 가서 먹고.

2000년대 말~2010년대 초까지 100명에 가깝던 아이들이 생활하던 것에 비해, 현재는 그 절반 정도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도담원은 현 원장 대에 들어 이미 열 명 남짓 시설 정원을 줄였으며, 추가로 줄이기를 계획하고 있다. 오늘날 시설에서는 “개별화”와 아이들 “개별적인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요즘에는 사실은 아이들의 개별적인 공간이 중요한데 지금 양육 시설들이 아이들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아이들의 개별 공간 확보거든요. 저희도 지금 건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계속 아이들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제가 원장 되고 별써 이를 열세 명을 줄였더라고요.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줄일 계획이 있어서 [...] 아이들은 계속 개인 공간이 필요하고 **개별화**, 개별화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옛날처럼 한 방에 다섯 여섯 명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2010년대 들어 도담원에서는 아동 정원을 줄이고 생활공간을 증축하였으며 아이들의 개별 공간 확보를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변화가 같이 일어났다. 방의 분리라는 변화를 반영해, 이제 과거에 방이었던 단위들은 101호, 203호와 같이 “호”로 불린다. 여전히 담당 생활지도원과 아이들 약 7명의 거주 단위를 가리킬 때 호와 방은 혼용된다. 특히 연구자를 처음 마주하거나 몇 번 마주친 도담원 구성원들은 연구자를 종종 생활지도원으로 착각했는데, 이때 연구자에 대해 “몇 호 쌤이에요?” 또는 “어디 방 쌤이에요?”와 같이 질문했다. 하지만 각 방(호) 안에서 아이들이 2~3명씩 머무는 (작은) 방들도 “방”이라 불린다.

[표 4] 도담원의 시기별 공간 단위 호칭어

시기		2010년대 이전	2010년대 이후
공간 및 인원 단위	도담원 전체	집	집
	생활지도원과 아이들	방 (약 6평)	호 또는 (큰) 방 (약 40평형) (작은) 방 (아이들 방 3개 + 생활지도원 방 1개)

호로 분리된 것은 구성원들에게 도담원 전체가 하나의 집으로 이해되던 것에서 각각의 호(또는 큰 방)가 별도의 집으로 인식되는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공간 분리 이전의 도담원에서 한 호는 결코 하나의 집이 아니었다. 정향진(2014: 182)에 따르면 담임 학급 내에서 가족 비유는 곧 하나의 “집”으로서 담임 학급을 학교의 기본적 사회 단위로 인식하게 하며, 그 단위 내에서 의사 가족적인 실천적 지향을 끌어낸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하나의 호는 도담원의 기본적 사회 단위이다. 담당 생활지도원과 아이들 간 관계는 다른 호의 생활지도원이나 사무실 직원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와는 구분된다. 아이들의 직원에 대한 ‘엄마’라는 호칭은 주로 같은 호에 거주하는 생활지도원에게 한정된다. 생활지도원 역시 자신이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과는 구분되는 우리 아이라는 “테두리”를 형성한다. 같은 호라는 테두리는 연령별, 방별 단위로 진행되는 내·외부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에서 강화된다.

직원들에게 과거와 비교해 시설이 발전되어온 방향, 그리고 시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의미로 쓰일 때 가정화와 개별화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기존의 도담원을 보다 ‘가정’에 가깝게 바꾸려는 변화는 “시설스러움”을 없애는 것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시설스러움’은 한 방에 대여섯 명이 같이 자고, 아이들의 사생활과 개별화가 고려되지 않던 이전 도담원의 양상을 지칭하며, 특히 환경적인 열악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다.

**[사례] 최성진 직원 남 40대/심충면담/2023.04.07.**

그리고 처음에 와서는 정말 열악한 환경. 사무 환경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생활환경조차도 너무 열악한 거를 보면서 조금 충격도 먹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지금은 하나의 가정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전에는 약간 그 **병동이나 기숙사 같은 느낌** 그래서 복도가 있고 양옆으로 이제 문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은 서로 만나게 되는.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이제 지켜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간에서 세 평 남짓 되는 방에 대여섯 명이 같이 자고. 너무 열악했었죠, 사실은. 그리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는 공동화장실, 샤워도 거기서 하고. 같은 층에 남자애들이 같이 살고 여자애들과. 물론 통로를 막으면서 구분을 했지만,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시설스럽고 열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2009년, 이용시설<sup>18)</sup>에서만 근무하다 처음으로 아동 생활시설에 근무하게 된 최성진에게 도담원의 “시설스럽고 열악”한 생활공간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전의 공간은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은 서로 만나게 되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은 그에게 “병동이나 기숙사 같은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개별화는 전혀 안 돼 있었던” 이전 도담원은 “문만 열면 옆방이고 그냥 다 같이 사는 느낌”을 주었다. 지금은 여자아이들이 머무는 101호와 102호 사이가 큰 보폭으로 10걸음 이상 떨어져있지만, 당시에는 문만 열면 “우리 원에 사는 모든 여자애들이 다 그 복도에서 만날 수 있”었다.

---

18)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이용형태에 따라 생활시설(주거시설)과 이용시설(통원시설)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통원하여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이 이용시설이라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는 생활시설에는 노인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다.

직원과 후원자들에게 공간 증축 및 분리 이전 도담원의 모습은 “군대 기숙사”나 “학교와 같은 복도식 구조”처럼, 그들이 경험한 다른 집단시설의 모습에 비유되어 설명되었다. 이전 도담원에 있을 때, 김준호를 포함해 아이들과 결연을 맺은 후원자들은 주말 동안 1~3명의 아이들을 집에서 재우는 ‘가정 체험’을 제안받았다.

#### [사례] 김준호 후원봉사자 남 48세/심충면담/2022.12.12.

처음에는 [전] 원장님의 오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한 2박 3일 정도 가정 체험을 권장해 주셨던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 집이 아니라 그 위에 군대 기숙사 같은 데 살 때. 아이들이 단둘이서만 자는 침대에서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차려주는 밥 먹고 급식 배식 안 받고. 그런 거를 경험을 그래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원장님은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한 번 씩 했었어요. 애들을 한 2~3명씩 데리고 있다가 이제 주말에 데리고 가서, 월요일에 쉬는 날이 있으면 한 2~3일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거나.

김준호는 가정 체험의 필요성이 “지금 집”이 아니라, “그 위에 군대 기숙사 같은 데 살 때” 제기되었다고 말하며, 현재 도담원의 공간을 보다 가정-집에 가까운 것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연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 체험 프로그램은 후원자의 중요한 역할로 남아있다. 특히 가정에서 살다 왔거나 연고자가 있는 아이들은 도담원-집 외에 다른 집에서 살아본 기억이라도 있지만, 어릴 때 입소한데다가 가정 복귀를 할 연고자가 없는 아이들은 도담원 외의 집에서 살아본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어른들에게는 걱정으로 여겨진다.

####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모든 게 뭐 그런 면이 있지만, 양날의 검인 게, 가서 ‘아 이런 게 가정이구나…’.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동그란 식판에다가 밥 푸고

반찬 푸고 이렇게 밥을 먹었다면. 이제는 식판이지만, 그전에는 아예 정말 애들 밥 공기 국그릇 반찬 그릇 이렇게 다 따로 준 적도 있었어요. 집에서 누가 이렇게 동그란 판에 밥해 먹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너무 한계가 오는 거야,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타협안이 이제 그런 식판으로 바뀐 건데. 지금도 방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식판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가서 가정의 모습을 아이들이 볼 기회가 없잖아요.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체험이라면(웃음) 가정 체험인데 경험치가 쌓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김성민은 가정 체험이라는 용어에 대해 “무슨 뭐 키자니아<sup>19)</sup>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 체험도 아니고”라며 “용어를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느낀다. 또한 가정 체험 후 아이가 경험할 혹시 모를 상실감을 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체험을 통해 도담원이라는 집에서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가정의 모습”을 경험할 필요가 더 크다고 인식한다. 가정 체험은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볼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때 다른 집들을 통해 “아 이런 게 가정이구나”를 느껴야 한다고 간주된다는 점에서 도담원이라는 집은 다른 집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도담원에서의 생활로는 알 수 없는,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할 ‘가정’이란 무엇인가? 김준호의 말에서 드러나는 가정의 모습은 “단둘이서만 자는 침대에서,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차려주는 밥 먹고 급식 배식 안 받”는 것으로, 공간 배치와 식사 관행이 주요하게 등장한다. 김성민에게서도 가정의 중요한 측면은 특히 식사 관행에서 드러난다. 즉, 시설의 성인 구성원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져 아이들이 경험해야 한다고 느끼는 가정의 구성요소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침실을 2명 이하의

---

19) 어린이들이 직업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테마파크이다. 병원, 학교, 공장, 방송사, 빌딩 등과 같은 건물들이 현실과 유사하게 재현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소방관, 경찰관, 미용사 등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인원이 사용하는 것과 배식이 아닌 형태의 식사였다. 도담원의 지하 식당은 조리원들이 국만 미리 퍼 놓을 뿐, 밥과 나머지 반찬, 과일 등은 각자 원하는 양만큼 퍼가는 이른바 뷔페식 구조로 운영된다. 구성원들은 동그란 접시에 밥과 반찬을 덜어 먹지만 그 이전에는 사각 식판에 밥을 먹었었다. 그러다 “집에서 누가 이렇게 동그란 판에 밥해 먹냐”는 문제 제기를 통해 “다른 집들”이 밥 먹는 방식에 따라 직원과 아이들의 “밥공기 국그릇 반찬 그릇 이렇게 다 따로” 해서 먹는 방식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어린아이들 여럿의 식사를 보조해야 하는 직원의 부담을 가중했고, 설거지 부담도 커기 때문에 결국 “타협안”으로 현재는 동그란 뷔페식 접시로 돌아왔다. 다만 호 안에서 주방 시설을 이용해 간단히 조리할 때는 개인 식기를 사용하고 있다.

공간 배치에 관해서는 2010년대 초반 5~6명이 한 방에 머물던 데 비해,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며 2~3명의 아이들이 한방을 쓰는 현재 상태가 구성원들에게 보다 “가정의 모습”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침실이 공유되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이제 지켜질 수 없는” 공간이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핵가족 단위의 가정 공간 구획을 전제로 할 때 이해될 수 있다. 근대가족은 주거공간의 구조변화와 불가분 결합하여 나타나며(조은주 2018: 21), 빌라나 아파트 공간에서 하나의 호는 그 안에 부부의 방과 자녀의 각방들로 분리되어 서로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공간 구획을 상정한다. 가족계획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가족의 모델은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얻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새로운 종류의 정서가 가족을 훅싸게 되었다. 이를 반영한 현대 가옥구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부부의 침실이다. 안방과 사랑방이 따로 떨어져 있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어 이원화시키는 구조가 부부 행위의 성적인 유희성을 경계하려는 의도를 가진 “비(非)부부적”인 것이었다면, 부부의 침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면서, 개별 침실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 되었고, 집은 공동체나 세간과 단절된 부모와 아이들의 공간이 되었다(조은주, 2018).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우리나라가 지금 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아이들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발생하면 일단은 친인척 보호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일반 가정위탁을 하거나, 안 되면 그룹홈 가거나 안 되면 마지막에 오는 곳이 이런 양육시설이에요… 제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가정에서 부모님 사랑받고 자라는 게 거기서 혼도 나고 그래도. 그래도 거기서 자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기본 생각은 있어서.

다른 보호배치가 “안 되면 마지막에” 아동양육시설로 오는 구조 속에서, 원장인 은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가정에서 부모님 사랑받고 자라는 게 거기서 혼도 나고 그래도 거기서 자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사무국장인 성진도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일반가정처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도담원이라는 시설의 “시설스러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전제를 수용한 바탕에서 이뤄진다.

## 2절 “시설스러움”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우리가 이만큼 정말 역사가 길고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이거에 대한 인정은 안 해주지? 계속 왜 우리한테는 너희들 시설은 앞으로 없앨 거다, 맨날 이런 말만 하고.

**[사례] 최성진 직원 남 40대/심충면담/2023.04.07.**

이런 양육시설들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60년~ 70년씩 있으면

서 지역사회 관계도 있고. 그동안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도 있고. 직원 간에 이렇게 교육 체계나 훈련 체계[에서] 서로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못 내려놓는 거야.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아동양육시설은 그 “역사가 사회복지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길지만, “일반 가정” 환경에 가까운 다른 보호 형태가 불가능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 시설로 오게 된다고 명시한 정책 기조를 통해 지속해서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가정 등 ‘다른 곳보다 못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앞으로의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항상 시설이 빠져있고, 시설을 없앨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럼에도 일시보호소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소규모시설의 정원이 차 있을 때나, 그룹홈과 위탁가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이나 경계성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경험에 부재할 때 등 현재의 대안들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때 오랜 대응과 적응의 역사를 가진 시설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활용해 왔다.

이는 매우 역설적으로 보이는 사실인바, 시설로서 도담원의 목표인 가정화와 “시설스러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향해 온폐지 요구에 적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원들이 시설스러움을 없애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로서 현재의 도담원 공간은 구성원들이 시설과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앞서 직원들은 방의 인원과 방의 담당 생활지도원과 아이들의 각 방 사이의 명확한 분리를 근거로 현재의 도담원 공간이 가정과 더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분리는 전체가 하나의 집이던 도담원에서 이른바 집 안의 집, 가족 안의 가족을 만들어내고, 원래 한 가족이던 다른 호의 구성원들 간 교류를 더 어렵게 만들어 아이들과 퇴소인들은 “가족 같은 느낌”이 없어졌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사례] 성서연 퇴소인 여 22세/심층면담/2022.11.11.

어렸을 때는 뭔가 조금 더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 심리적인 거리라든지 아니면 진짜 찐 거리라든지. 약간 되게 가족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쪽으로 오면서 건물이 완전 새로 지어졌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때가 정말 좋긴 했는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발전으로 말해지는 방의 분리는 성서연에게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감의 증가로 다가왔다. 최수빈 역시 변화된 현재의 도담원 공간에 대해 “고시원”과 같은 표현으로 이전에 비해 멀어진 심리적, 공간적 거리감을 표현했다.

####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충면담/2023.02.15.

**최수빈:** 옛날에는 그래도 진짜 한 가족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연구자:** 어떻게 바뀐 거 같아요, 가족에서?

**최수빈:** 애들끼리 얘기했던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고시원 같았어요. [...] 고시원은 각자 방이 있고 공동 주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은 그냥 공동 주방일 뿐이에요. 밥 먹을 때만 나오고, 자기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틀어졌을 때만 나오고. 그리고 모든 걸 각자 방에서 해결하니까. 고시원이랑 솔직히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침대 생기고 나서부터는 진짜 그냥 고시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침대 없을 때는 계속 바닥에서 다 같이 이불 깔고 잤는데 근데 침대 들어오고 나서부터 각자 이제 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만 조금만 들어와도 애들이 다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고시원? 그래서 저는 항상 고시원 같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방 자체가 공동공간이던 과거와 달리, 각자 방에 공동공간으로 거실이 더해진 형태는 거실 외 자기 공간에 대한 경계를 심화시켰다. 공간 분리와 인원 축소 전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살던 ‘집’은 7개의 열기 쉬운 문으로 구분된 ‘방’안에 별도의 분리된 작은 방 없이 최대로 십여 명<sup>20)</sup>, 점차 인원이 줄어 5~6명이 같이 사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 지금의 건물은 문을 닫으면 분리되는 ‘호’안에 2~3명이 ‘(각) 방’을 쓰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각 호들을 “따로 사는” 개별 집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여전히 담당 생활지도원과 일곱 여명의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 단위를 지칭할 때 ‘방’이 호만큼 자주 쓰이지만, 이제 “옆방”이었던 다른 호에 방문하는 것은 이제 마치 “남의 집”에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후원·봉사자 김준호는 이전의 도담원 집을 “군대 내무반”으로 표현하면서도 아이들의 방에 생긴 “문”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진 것을 아쉬워했다.

####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충면담/2023.02.15.

옛날 집에서 살았을 때 그때는 그 작은 방에 애들이 12명 이렇게 애들이 살았는데도, 그래도 그때가 더 행복했었어요. 오히려 집이 새로 지어지고 나서, 집이 약간 빌라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다른 방<sup>21)</sup>끼리의 접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진짜 이제 거의 따로 산다고 해도 될 정도?

#### [사례] 김준호 후원봉사자 남 48세/심충면담/2022.12.12.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딱 아이들 프로그램하고 으레 거기는 이제 군대 내무반처럼 돼 있다 보니까 각자 방으로 애들 들어가면, 프로그램 끝나고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놀고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언니이모, 나 오늘 웃 저번 주에 이거 샀어”, 그런 것도 보여주고, 방 안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집에 그런 문이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활지도원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도 7세 이상 아동 10명당 1명에서 2012년 7명당 1명으로 변화했다.

21) 이때의 방은 현재의 호 단위를 지칭한다.

딱 생기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보육원 앞에 딱 내려주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되긴 했어요. 얘들도 아마 다른 방에 가려면 그 위에 있었을 때 옆방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남의 집 가는 느낌이 드나 봐.

#### [사례] 성서연 퇴소인 여 22세/심충면담/2022.11.11.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 어렸을 때는 인원이 정말 많았거든요. [...] 1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전 원장님께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아침 조회를 하셨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조회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약간 일과였는데 그때마다 매번 원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근데 점점 이제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다 바뀌었죠.

이전 집과 방에는 지금보다 인원이 2배 가까이 많았지만, 방 사이의 교류는 더 쉬웠다. 지금은 없어진 월요일 조회 등 다 함께 모이는 일이 찾았기에 다른 방 생활지도원과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큰 노력 없이 뒤따라왔다. 여전히 매달 생일잔치를 포함해 강당에 다 같이 모이는 “점점”은 많지만, 각자 방이 생긴 공간적 변화에 더해 프로그램의 개별화 역시 한 집, 한 가족의 느낌을 줄였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됨에 따라 방별로 식사하고 생활하는 관행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그리고 코로나19가 완화되어 외출 프로그램이 재개된 이후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방별로 진행되고 있다.

도담원의 많은 관행이 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지도라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방에서 “나랑 같이 사는” 생활지도원과의 관계이다. 생활지도 업무는 다른 방과 구분되는 우리 방과 우리 애들이라는 소속감과 테두리를 만들어낸다.

####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내가 맍은, 그 테두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애들

한테 뭘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 선생님이 우리 애를 혼내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혼내도 내가 혼내야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 테두리가 좀 심하지 않았나 경계? 남에 대한 경계? 모르겠어요. 이 안에서도 그런 경계를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 [사례] 정민준 퇴소인 남 20세/심충면담/2023.02.20.

근데 애들이, 약간 어렸을 때부터 듣 생각이 원장님한테 말해도 나랑 같이 사는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니까, 인도에 왔으면 인도 법을 따라라 이런 마인드로 사는 게 시설 생활이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랑 살아도 맞춰야 할 건 맞춰가는 게 맞지 않아요? 어쩔 수 있을까요. 제가 별로라고 그 선생님 자르고 다른 선생님 뽑을 수 없잖아요.

“문만 열면 옆방이고 그냥 다 같이 사는 느낌”을 주는 증축 이전의 도담원 공간은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는” 공간의 표본이지만, 한편으로 다른 방의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서로를 걱정하고, 때로 감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 방의 테두리는 방 안의 문제를 외부와 공유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이러한 경향은 “현관문 딱 닫고 들어가면 그 방이 딱 분리”되는 현재의 호 형태에서 더 강화될 수 있다. 직원들 역시 이러한 분리된 공간에 내제한 폐쇄성을 역시 인지하고 있다. 최성진은 폐쇄성 측면에서 “대형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가정집”을 대비했다.

#### [사례] 최성진 직원 남 40대/심충면담/2023.04.07.

이 대형 시설은 와서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에서도 계속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누구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학대] 문제가 생기기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설 스스로가 폐쇄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근데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이잖아

요. 가정집에 아무나 들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원봉사자를, [아이들] 일곱 명 있는데 막 끌어들여서, 집에서 뭘 프로그램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되는 거죠.

외부에서 “누구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볼 수 있는 곳”은 “아무나 들어가기” 어려운 곳보다 “구조”상 상대적으로 학대나 폭력 등의 문제가 생기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측면은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조치에 비해, 그리고 시설이 목표로 해온 가정-집에 비해서도 아동양육시설이 가진 이른바 ‘긍정적 시설스러움’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누구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볼 수 있는 곳”에서 주체가 시설 밖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성진에게 시설 안에서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은 서로 만나게 되”어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이제 지켜질 수 없는” 구조는 바꿔야 하는 ‘시설스러움’의 요소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이는 가정과 다르게 도담원이 가진 지역사회에 대한 상대적 개방성과, 가정과 유사하게 소수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별화가 모두 요구되었지만, 특히 후자가 강하게 요청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시설인 도담원을 ‘가정’과 유사하게 만들려는 시도 속에서 ‘시설스러움’을 없애려는 시도가 개별성을 강조하며 이뤄져온 바, 도담원이 가진 외부에 대한 상대적 개방성으로서 ‘긍정적 시설스러움’ 역시 잊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의 도담원은 “지금의 거실 정도가 방 하나의 크기”였으며, 여러 방이 공용으로 써야 했던 화장실과 욕실은 이용하는 것도 치열했기 때문에, 몇몇 구성원들은 “돌아가라면 안 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미 인원이 줄어든 지금 과거의 공간을 다시 재현해 거주한다고 해도 이전의 장소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공간을 묘사하는 서로 다른 비유들은 ‘가정형’ 공간의 조성이라는 목표가 구성원들에게 다르게 체감되며, 시설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반영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나아가 ‘시설스러움’을 없애려는 시도로 방을 분리해

내는 것이 방 구성원들의 소속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안의 상황이 공유되기 어렵게 만드는 테두리를 강화하기도 한다.

### 3절 숨겨야 하는 ‘집’

아동양육시설은 외부로부터 폐쇄된 공간이 아니며,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도담원 집에서의 적응은 언제나 집 밖 사회에 대한 적응을 염두에 두면서 이뤄진다. 아동 생활시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외딴 목가적 장소에 위치해 외부와 물리적·상징적으로 격리된 공간이나 시설 외부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형태의 시설, 따라서 정체성 형성의 원천이 제한된 곳을 배경으로 해왔다(Stockholm 2009; Wästerfors 2012).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나 학원 등 다양한 시설 밖 공간들을 오간다. 직원들은 아이들의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의 자율성을 근거로, 시설이 더 이상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며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총체적 기관’<sup>22)</sup>(Goffman 1961)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아이들로 인해 지역 사회에 대한 개방이 제한적인 것 역시 사실이다. 도담원 홈페이지에는 후원자들과 아이들의 사진이 게시되는데, 후원자의 얼굴은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 아이들의 얼굴은 모자이크되어 게시된다.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겪어야 하는 낙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숨겨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숨겨야 하는 상황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숨기지 않기 위한 인식

22) 총체적 기관이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수의 개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바깥 사회와 단절된 채, 공적으로 규정된 생활 방식으로 거주하고 일을 하는 장소”라고 정의될 수 있다(Goffman 1961: xiii). 총체적 기관의 주요 특징 4가지는 (a)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권위 하에서의 일상 전개, (b) 집단 거주 및 익명 집단의 일부로 취급, (c) 엄격한 시간표 및 활동 일정, 그리고 (d) 재사회화라는 제도적 목표이다(Scott 2010: 215).

개선이 시도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숨기기의 부담과 숨기지 않기 위한 인식 개선의 시도,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제한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도담원 밖으로의 외출 시 마주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여럿과 어른 몇 명의 동행을 보고는 어떤 관계인지 질문했다. 이때 방별 프로그램이나 봉사자·후원자가 동반한 외출 시에 그들이 시설에서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 [사례] 도담원 비정기행사-방별 외출/참여관찰 일지/2022.08.19

201호 아이들이 짚라인을 타러 가는 방별 프로그램에 보조로 함께 가기로 했다. 12시에 도담원 앞에서 만나, 201호 남자아이들 7명에 다른 방(하늘방)인 1학년인 남자아이 한 명, 아이들이 이모라고 부르는 생활지도원 한 분과 나 이렇게 총 10명이 차로 이동했다.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도착했다. 매표소 직원에게는 ‘도담보육원’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말하고 들어가지만, 아이들에게 보호장비 입히는 걸 돋고 짚라인을 타는 동안 동행하는 안전 직원 2명에게는 보육원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지만, 생활지도원에게 출곧 이모라고 불렀다. 8월이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것에 대비해 모든 아이들이 바람막이를 가져왔다. 덥다고 입지 않은 2명의 아이들은 푸른빛의 라온초등학교 단체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직원 1: 어디서 오셨어요?

생활지도원: 학교에서 왔어요.

직원 1: 뭐, 동아리 같은 거예요?

생활지도원: 네.

직원 2: 방과후학교 이런 거예요?

생활지도원: 비슷한 거예요.

#### [사례] 산악회 행사- 고2 부산여행/참여관찰 일지/2023.01.07.

고2로 올라가는 4명의 아이들-박유진, 백지원, 권현준, 전서현-을 위해 산악회 봉사자들이 부산 여행을 기획했다. 일정 중에 바다를 보는 리프트를 타려 갔는데, 봉사자 삼촌 2명과 지원, 서현이 한 팀으로, 오민수와 연구자, 그리고 유진과 현준이 다른 팀으로 나뉘어서 리프트를 탔다. 지원에게는 유진과 현준, 그리고 20대 중반의 연구자 역시 50대 초반 오민수의 세 자녀들로 추정되었다.

직원:                                다 자제분들이세요?

오민수:                                (고개 빠른 속도로 끄덕거리며) 네, 네.

직원:                                    대가족이시네요.

직원이나 후원자들은 때로 엄마-아빠나 이모-삼촌 등의 가족을, 때로 학교 교사나 “센터”를 자칭했다. 가족과 학교를 칭하는 것이나 그렇게 추측되는 것은 동반하는 인원에 따라 이뤄졌다. 보통 소수 단위로 움직일 때 가족이라 추측되고 말해진다. 때로는 직접 말했지만, 지레짐작할 때에도 정정하기보다는 오민수처럼 적당히 끄덕거림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현재 시설에서 사는 아이들과 살았던 퇴소인들은 모두 시설에서 산다는 것은 굳이 드러내서 좋은 것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1절에서 살펴본 ‘시설스러움’을 없애는 것은 아이들이 “누가 봐도 재네는” 시설에 사는 아이라는 것을 티 내지 않고 숨기는 것을 가능하도록 도왔다. 아이들은 다른 시설 아동과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시설도 후원하는 후원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한 직원의 말을 통해 다른 시설의 상황을 듣고 다른 시설 아동과 비교를 통해 도담원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때 시설이라는 티가 상대적으로 안 나서 숨기기 좋은지 여부가 중요한 비교기준이 되었다.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층면담/2023.02.15.

거의 누가 봐도 재네 나래[다른 보육원 이름]라고 알 수 있을 정

도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언니들한테 들은 건데 언니들이 항상 그렇게 말했었어요. 누가 봐도 재네는 나래다. 그런 점에서 비해서는 저희 원이 조금 더, 약간 원인 것도 티 안 나고 그리고 약간 자율적으로 거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많은 걸 제한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숨기기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학교에 가게 되면서, 가정의 자녀가 아닌 시설 아동으로서 학령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숨기기 전략들이 필요했다. 도담원이 1950년대에 설립되어 점차 “가정의 모습”을 띠기까지, 도담원 주변도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현재 도담원 인근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학교급이 있지만 2000년대 후반까지 인근은 허허벌판에 가까웠다. 주위에 초등학교가 한 곳밖에 없었고, 다른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그곳에 다녔다. 그러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더 생기면서, 성서연까지는 모든 도담원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지만, 그 한 살 아래인 최수빈부터는 다른 학교에 가게 되었다. 이처럼 한 학교당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진학하게 됨에 따라, 시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할지를 아동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다.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니 철저히 숨기는 것을 택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시설 주변에 주택가가 늘어남에 따라 숨기는 것은 더 어려워지기도 했다. 숨기기를 선택한 수빈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등교하며 늦게 하교하고, 시설에 산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말하고 다니는 애”와는 학교에서 만나도 모르는 체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나서 학년이 다른 경우, 아는 척은 변명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기에 희피되었다. 중학교 이후부터는 학교를 직접 선택해서 갈 수 있음에 따라 동갑내기 아이들은 각자 다른 학교에 가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같은 학교에 가게 되면, 숨기기를 선택한 아이는 더욱더 조심해야 했다.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층면담/2023.02.15.

**최수빈:**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혼자서 선택을 못 했잖아요. 중학교는 학교가 빽빽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신경 안 썼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정할 때는 얘[임현우]를 피해서 가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 은정이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왔고, 지혜라는 얘기 있거든요? 얘 중간에 나간 애. 얘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왔고 저랑 현우 이렇게 4명이었는데. 그때 여자애들끼리는 다 학교를 안 겹치게 잤어요. 안 겹치게 골랐어요. 그리고 현우도 다른 데를 간다고 해서 제가 oo고를 썼었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중학교 내신 성적이 안 될까 봐 oo 안 적었는데 나중에 된다고 해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oo으로! 이거는 암묵적인 룰인데! 깼다고요! 그래서 진짜 절망적이었거든요. 일단 더 내가 더 숨겨야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보육원에서 사는 걸 애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얘는 안 숨겼어요. 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얘기 거기 사는 거. 제 진짜 친한 친구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하나? 같은 반이 한 번도 된 적은 없거든요. 딱히 막 그렇게 의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랑 엄청 친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얘네들도 아직 몰라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뒤에서 들리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숨겼어요.

**연구자:** 알리는 거 보면 어땠어요?

**최수빈:** 약간 부럽기도 했죠. 자유롭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육원에 산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sup>23)</sup>, 그런

23) 아동과 퇴소인 중 본인이 시설에 산다는 것을 주변에 말하는 아이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남자 아이들이 많았으나, 숨기거나 알리기 선택에는 젠더에 따른 차이보다는 상

때에도 보육원에 산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곧 “내 약점을 알리는 일”이었고, 점차 말하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되었다.

[사례] 정민준 퇴소인 남 20세/심충면담/2023.02.20.

연구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설에 있는 거를 알리는 편이었어요, 숨기는 편이었어요?

정민준: 그때는, 뭐 어때, 약간 마이웨이? 이런 마인드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했는데 점점 굳이 이걸 말해서 내 약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가더라고요.

연구자: 이게 약점이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정민준: 일반 사람들이 오진 않잖아요. 어렵거나 아니면 혼자거나,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아픈 게 장점은 아니고 약점이잖아요.

정민준은 평범하게 사는 것을 바랬지만, 시설은 “일반 사람들이 오진 않”는다는 점에서 평범과는 거리가 있었다. 시설에는 “어렵거나 아니면 혼자”인 사람들이 온다고 인식되어 “내가 보육원 아이”라는 것은 장점보다는 약점으로 이해되었다. 아이들과 퇴소인들 모두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도담원에 산다는 것을 숨겨야 했던 학교 경험을 이야기할 때 “거기”나 “그거”, “보육원 사는 거”와 같이 도담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반영하는 표현들을 다른 때보다 빈번하게 사용했다.

[사례] 박유진 아동 여 17세/심충면담/2023.02.12.

시선이 안 좋아요. 초등학교 때 [도담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숨겨야지 하다가 일단 초등학교 때 그거 무조건 숨겨야지 했고 중고딩 때도 확실히 그냥 보통 이미

---

황적 차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서연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감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 거주 사실이 알려지는 경험을 하며, 이후에도 숨기려는 노력은 특별히 더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지가 좋진 않아요. [...] 딱히 막 알리진 않아요. 엄마가 없어서 저러지 이런 말을 들어보긴 했어요.

[사례] 성서연 퇴소인 여 22세/심충면담/2022.11.11.

제가 공부를 잘했었으니까, 다들 알면 ‘응?’ 놀라면서. ‘아~ 거기 에 살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거나, 아니면 고3 선생님도 제가 말했을 때 말씀하셨던 게, ‘아, 나는 거기에서 그런 환경에서 너처럼 성적이 좋은 애를 못 봤다’라고 하신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항상 되게 동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면은 이 사람은 내가 보육원에 사는걸 알았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한테 동정심에 잘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서연은 다니던 중학교와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 기숙사로 진학하게 되면서, 자신이 도담원에 산다는 걸 아는 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성적이 좋았던 성서연이 고등학교 입시 상담에서 도담원에 사는 것을 말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동양육시설이라는 “거기에서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그녀를 대견해하는 동시에 동정했다. 성서연을 비롯해, 도담원에서 살면서 아이들은 자신을 향한 “동정심”을 민감하게 의식했다.

Goffman(1963: 152)은 낙인의 요소가 되는 타자성(differentness)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낙인자 또는 타자(the different)가 아니라 정상인(the ordinary)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하게, 도담원 아이들과 퇴소인들에게 왜 시설에 산다는 것이 “약점”으로 이해되고 이를 숨겨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설에 살지 않는 이들에게 왜 이것이 약점인지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시설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과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개별 시설과 직원들의 역량에 맡겨질 때 그 안에서 일상을 더 살 만한 것으로 만들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숨겨야 하는 부담은 구성원들에게 전가된다.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층면담/2023.03.09.

정말 저는 그 **측은지심**이라는 게...너무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쌍한 아이로 보여지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근데 그러는 건 이 노력은 아이들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종사자들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알고는 있거든요. 아이들이 나가서 내가 보육원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런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이가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면 다른 분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후원을 받는 봉사자나 기부자 단체나 후원자들한테는 **측은지심**을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운영을 해야 하면 원장의 역할이 어쨌든 아이들을 풍족하게 잘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애네 어려운 애들’, 그렇게 해서 도움받기는 정말 쉬워요. [...] 조금씩은 변화하려고 저도 노력은 하는데 모든 애들한테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게 편해요, 받기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해요 가끔은. 이런 거를 후원금 장학금 받을 때도 제가 뭐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고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게 쉽다고 우리가 안 하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이게 딜레마가 아닌 딜레마. 이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느 기관이나 갈등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은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인가, 아이들을 향한 “측은지심”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인가 사이에서 양가감정을 느꼈다. 학원에 다닐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 퇴소 후에 살

집을 알아보는 일까지도 상당 부분 원장과 직원들의 재량과 기준에 시설이 가진 네트워크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성서연이 퇴소 후에 살고 있는 교회 학사는 원장 차은주가 알아본 것으로, 공과금과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서 생활비를 크게 아낄 수 있었다. 도담원 외에도 다른 청소년 쉼터 봉사 경험이 있는 김준호는 두 시설 모두 운영진의 역량에 따라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 등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시설장의 역량을 “축구 선수 메시”에 비유하기도 했다.

#### [사례] 성서연 퇴소인 여 22세/심충면담/2022.11.11.

그전부터 계속 LH는 퇴소하면 당연히 LH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당연했어요. [...] 여기는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이제 어느 곳을 갔다가 또 연결돼서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럼 저는 좋다 해서 간 거였어요.

#### [사례] 김준호 후원봉사자 남 48세/심충면담/2022.12.12.

원장님의 역량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축구 선수 메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축구 선수 하나로. 농구는 팀워크가 중요 하지만, 축구는 스타 플레이어 하나로 그냥 시가지 팀이 국가대표팀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개별 시설의 역량에 따라 시설 운영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측은지심을 내세우는 것이 “싫다고 우리가 안 하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딜레마 아닌 딜레마” 속에서, 직원들은 제한적으로나마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림 3] 교사 초청 행사 모습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건 우리 개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우리 **아이들의 주요 환경**이 어디냐, 학교, 학원, 보육원이잖아. 그러면은 사실상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메인이라면 말이에요. **보육원은 집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한테 초대장 보내서 그런 인식 개선을 했었어요. 사회적으로 최소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우리 지역, 우리 고장만이라도 개선을 해보자 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한 명 한 명 해나가다 보면 그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 가서 또 보육원 안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해주는, 그런 거 기대하는 거지. 근데 누군가는 시작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아이의 문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보육원이 이런 곳인 줄 몰랐다고**.

직원들은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게 개별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최소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우리 지역, 우리

고장만이라도 개선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지역 사회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들에게 공문이나 초대장을 보내며 교사를 초청하고 시설 인식 개선을 실시해왔다.

5월 25일, 2년마다 개최되던 도담원의 교사 초청 행사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재개되었다. 교사 초청 행사날 도담원 직원들은 모두 평소에 마주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화장하고 구두를 신고 원피스나 정장 바지를 챙겨입었으며, 점심시간에 짬을 내 머리도 다듬고 온 직원도 있었다. 발표를 맡은 새로 온 사무국장 박상훈은 이미 몇 차례 원고를 수정하며 리허설을 거쳤으나 긴장한 모습이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교급 교사 총 3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교사들 모두 도담원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행사는 30분간 도담원에 대한 소개와 시설장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담당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식사한 뒤, 아이들이 자신의 방을 포함해 도담원 건물을 안내해주는 차례로 진행되었다. 집 소개를 마친 아이들이 교사를 정문까지 데려다주고, 직원들은 준비한 떡을 전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교사를 배웅했다.

#### [사례] 도담원 정기행사-교사초청 중 초등교사의 질의/참여관찰 일지/2023.05.25

**별빛초 교사:**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2학년인데, 저희 1, 2학년은 가족에 대한 수업이 있거든요. 저희 반 아이가 이제 엄마라고 부르는 복지사 선생님이 저희 하이 클래스<sup>24)</sup>에 가입된 분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연락을 드릴 때도 좀 이분저분 누구에게 연락을 드려야 되나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 반 아이는 저한테 그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들으니까 이제 7명이 같이 생활을 한다 그

---

24) 알림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초등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래서 그 구성원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조금 알고 있으면 그런 가족 수업 같은 걸 할 때 조금 다른 아이들이나 학생한테도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꼭 물어봐야겠다.

교사의 질의 이후 원장님의 생활지도원 세 명이 번갈아 근무하는 3교대 근무제도와 아동 연령에 따라 7세 이상의 경우 아동 7명당 직원 1명이 배치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또한 세 분 선생님의 개인 번호가 아닌 방 직통 번호와, 주말을 포함해 누군가는 꼭 받을 수 있는 사무실 번호를 아동 편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연락드려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이뤄졌다.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가족에 관한 예문이 매우 자주 등장하며, 직접적으로 가족 사진 가져오기와 같은 준비물이 요구되기도 한다. 학교 교사가 다양한 유형의 가족과 시설의 생활 형태에 대해 지식이 있을 때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다. 위에 제시된 교사의 질문처럼 보호자 연락처에 기재된 3명의 엄마들 중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7명의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이 모두 가족인지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야 물어봐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아이들의 주요 환경인 학교가 얼마나 아동양육시설의 아이들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반증한다.

여전히 학교가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간으로 경험되고, 퇴소 후에도 시설을 숨겨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퇴소하고 나가서 관계를 숨기고 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도 근무했던 김성민은 퇴소하는 남학생에게 “보육원을 나왔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기도 한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연구자: 퇴소한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지 않나요?

김성민: 고3 생일이 지나기 전에 만 5년을 여기서 살았으면 면제 예요. 안정적으로 중1 때 입소하면 면제고 중2 때 입소 하면은 군대 가고. 그런 느낌. [...] 근데 군대를 갔다 오면, 무조건 도움이 돼… [안 가면] 얘는 왜 면제냐는 질문을 평생 소명해야 돼. 그래서 저는 퇴소할 때 남자애들은 군대에 가라 해요, 면제 신청을 안 하면 되니까. 집이나 전세 주택 같은 거는 입대 일자를 조절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야, 조율해서라도 한 번 갔다면 오면 네가 보육원을 나왔다는 그거를 평생 떼고 살 수 있잖아 남자애들은. 얘들이 솔직히 말해서 연고자가 없는 아이들이야 부모님 돌아가셨다 하면 되는 거고, 부모님 계신 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완벽하잖아, 부모님 계시고. 누가 그거를 보육원 나왔다고 생각하겠어.

“소명”은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한다는 뜻이며, “해명”은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서 밝힌다는 뜻이다. 도담원 아이들은 그들의 ‘집’에 대해 일상적으로, 그리고 “평생” 소명하고 해명해야 한다. 또한 소명은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이지만, 여기서 소명이란 “보육원을 나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떼고 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김성민의 말은 “보육원을 나왔다”라는 것이 연고자가 없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이상으로 “평생 떼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어딜 가나 평생 소명이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언제나 도담원이라는 집 바깥과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이 바깥사람들의 놀림과 동정, 무시와 같은 반응에 대응하고 상처를 덜 받으려면, 사회가 시설과 시설 아동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도담원과 아이들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야 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시설 아이들에 대한 사회화

와 시설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개선을 시도해왔다. 1절에서 살펴본 ‘시설스러움’ 없애기는 그 자체로 시설 아동이라는 사실을 더 쉽게 숨기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이뤄지지만, 애초에 숨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은 아동이나 퇴소인, 개별 시설의 역량 밖의 일로 느껴졌으며, 후원금을 위해 “측은지심”을 활용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놓였다. 결국 직원들이 아이들을 위해 도담원과 바깥 사회를 매개하는 작업은, 거의 항상 사회의 인식 개선보다는 아이의 사회에 대한 적응과 해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즉 아동 및 퇴소인과 시설 사이 관계를 숨기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이처럼 생활하면서, 그리고 퇴소하고 나서도 언제나 도담원이 숨겨야 하는 장소라는 ‘사실’은 당연시되고, 언제나 숨기기, 그리고 해명과 소명의 부담을 주는 ‘집’과 ‘집’에서 맺은 관계들에 심리적 거리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시설과 관계를 숨기는 아이들과 퇴소인들의 대응은 낙인의 내면화만이 아니라,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강요된 적응의 역사로 읽혀야 할 것이다.

3장에서 나타난 시설의 ‘시설스러움’을 없애고 시설 관계를 철저히 숨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설 직원들의 수행은 열핏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끊임없이 밖에서 부정당하는 장소에서의 적응이자,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돌봄의 수행이기도 했다. 4장에서는 도담원 내부의 다양한 돌봄의 수행과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룬다.

## 제 4 장 문제시되는 ‘가정’ 이상의 돌봄

도담원은 시설이자 집, 직장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시설스러움’을 없애기 위한 개선 조치는 또한 이곳이 아이들의 집인가 돌봄 노동자들의 직장인가 사이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다. 4장에서는 도담원에서 돌봄 노동이 수행되고 평가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 제 1 절 코로나라는 재난 속 돌봄 수행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은 도담원에서 어떻게 경험되었는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도담원이 ‘시설스러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도담원이 결국 “집단 시설”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 코로나19 초기, 50인이 넘는 아이들의 집인 도담원은 감염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의 대상이었다. 경기도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는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 내의 아동생활시설을 포함한 많은 생활시설에 대해 감염 장소나 시설을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를 실시했다.

#### [사례] 김현우 사회복무요원 남 24세/심충면담/2022.09.02.

옛날에 심했을 때는 단체로 누가 한 명 걸리면은 단체로 검사 받으러 가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11시까지 기다린 적이 있어요, 직원분들 다 퇴근 못 하고. 왜냐하면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시설에서 이렇게 떠버리면 아예- 14일간 격리를.

####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몇 번째 환자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번호 넘버링이 되던 시대에 걸리면 코호트였어요. 코호트는 애들도 그 방에서 못 나와. 101호면은 101호 안에서 못

나와, 그리고 사무실은 퇴근을 못 해, 주방에서도 주방 퇴근을 못 해. [...] 그냥 건물이 통으로 격리해요.

김성민은 코로나19 초기를 “모든 게 결핍되고” “어떻게 보면 돌봄밖에 없었던 시기”로 기억한다. 20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 이 시행됨에 따라, 시설에서도 외출이나 원가정 만남, 외부인 방문 등의 제한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아이들은 철저히 도담원 안에 있으며 주차장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았다. 이는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거가족”은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아이들이 느끼는 다른 집 아이들과의 차이, 직원들이 느끼는 “우리 보육원 애들”과 “일반가정”의 아이들과 사이의 차이도 벌어졌다.

#### [사례] 박유진 아동 여 17세/심층면담/2023.02.12.

코로나 초기 때는 진짜 집 밖을 못 나갔어요. 집 밖을 아예 못 나가서 한, 학교 가기 전 5개월 동안은 집에서만 있었어요. 아무 데도 못 나가고 그게 너무 심각했고. [...] 주차장도 거의 못 나갔어요. 그냥 방에서만 있었어요. 거의. 확실히 그리고 코로나 이후 작년 후반? 전까지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나 만나는 것도 거의 안 된다고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맨날 애들이 놀러 가자고 했는데 못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원래 애들하고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로 가기로 했었는데 저는 못 나가서 못 가고 애들만 갔다 왔어요.

####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층면담/2022.12.30.

언젠가 기사를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전후에 일반가정에서 체험 학습하러 다니는 비용, 부모들이 쓰는 비용. 카드 긁는 그런 걸 보면 아니까 통계를 내봤는데 코로나 후랑 전이랑 줄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늘었다. 그러면 일반가정 아이들은 다 다

닌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더 잘 다녔을 수도 있지, 외부로 돌아다니는 인구압력이 낮아지면서. 근데 우리 보육원 애들은 코로나 기간 내내 건물 안에 있었어.

연구들은 정부의 아동양육시설 방역지침과 격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대응 지침 조항(외출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시설 밖 아동들과 차별된 심각한 활동 제한과 학력 격차를 경험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직원의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 충분한 수준의 인력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안수란 2020). 그러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동안에도 “간혀서” 지내는 생활에서 “나오는 각종 부작용은 아이들이 다”,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다. 또한 “최소 퇴근이라도” 하는 직원들 역시 자신이 감염원이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인근에 마트도 될 수 있으면 사람 없는 데로 가서 장을 보고, 외식도 거의 안 하는” 생활을 해왔다.

####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코로나가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돌봄밖에 없었던 시기죠. 모든 게 결핍되고 그거 외에 남은 게 없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정상적이진 않았다. 사람이라는 게 간혀서 지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거기서 나오는 각종 부작용은 아이들이 다 겪은 거죠. 온몸으로 맞은 거지 애들이. 직원들이야 뭐 최소 퇴근이라도 하고, 집에서 혼자서 뭐라도 하고. 가족들이라도 만나고 틈틈이 몰래몰래 어디도 다니고 막 이러겠지만. 우리 애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니까. 한마디로 돌봄도 사실상 그러면 크게 제대로 이루 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여행을 못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걸려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근에 마트도 될 수 있으면 사람 없는 데로 가서 장을 보고,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약간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연구자가 도담원을 처음으로 직접 방문한 2022년 4월은 서서히 도담원 밖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재개되던 시점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1판)」을 배포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재정비했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사회복지시설의 출입, 외출·외박, 프로그램 운영 등 제한이 해제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 도담원의 주말은 자원봉사자들이 도담원 밖으로 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나, 2019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철저히 중단되었다. 주말에 종종 이뤄지던 가정 체험이나 원가정 외출·외박도 제한되고, 전화 연락 위주로 이뤄졌다.

「2021년 코로나 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직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주된 어려움 중 하나는 외부인력 출입 제한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교육기관 폐쇄 및 외출 제한으로 아동을 24시간 돌보면서 발생한 업무 과다였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기관에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1~3순위로 질문한 결과, '사회적 교류와 바깥 활동에 대한 제약과 통제'(30.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에서의 아동 돌봄과 양육 부담'(25.7%)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최윤경 외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된 외출과 외부활동으로 증가한 스트레스, 문제 행동 표출, 생활지도원과의 갈등, 무기력함, 상담받고 있던 아동들의 문제 행동 증가, 부적절한 행동의 또래 간 학습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외출이 철저히 통제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전반적인 다운(down)”을 목격하며, 직원들은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왔다. 도담원 아이들에게 주차장은 유일하게 외출이 가능한 바깥 공간이었고, 아이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은 주차장을 시작으로 가능한 더 멀리 나갈 방법들을 고안하면서 이뤄져 왔다.

#### [사례] 정민준 퇴소인 남 20세/심충면담/2023.02.20.

저희가 1년에 한 번 전 가족 수련회를 갖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집 앞에다가 수영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애들이랑 재밌게 놀았던 게.

8월 초 2박 3일간 진행되는 전 가족 수련회(하계수련회)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가 가능한 펜션에서 진행된다.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도담원은 2021년은 물론 2020년에도 수련회를 실시했다. 다만 2020년에는 주차장에 대형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했고, 2021년도에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인원을 반으로 나누면서도 펜션 일정을 감행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김성민: 아이들 건물에서 그래도 이 주차장까진 괜찮지 않냐, 그런 느낌으로, 하루라도 우리가 해주자, 그런 개념으로. 전 가족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는 다른 보육원들은 다 안 갔어. 그거를 우리는 어쨌든 코로나 때 다 갔어요, 수련회를.

연구자: 20년도, 21년도에도요?

김성민: 네, 그 방역수칙을 다 지켜가면서. A시에서 출발 당일까지 가지 말라고 전화가 왔는데 우린 가겠다 하고 끊고 갔거든요. 그게 다 아이들이 이 건물 안에서 막 너무 스

스트레스가 과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련회 가서는 취침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마라, 밤새워 놀아도 놔둬라,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는 이제 막 풀어주고. 그래서 뭐 대규모 몇 명 이상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제약이 있을 때 전 가족 수련회를 애들 반으로 나눠서 갔어요. 근데 같은 추억을 공유해야 하니까 같은 곳으로, 그렇게라도 간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끼리, 우리 애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휴게소를 안 거치고 한 번에 우리가 독채로 빌린 펜션에 가서 아무도 안 나가고, 먹을 거 다 사들고 가서. 진짜 아무도 안 나가고 거기서 놀고 그 버스 타고 그대로 오는데, 이게 왜 못 가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휴게소 안 거치겠다. 애들 화장실? 컵 가지고 간다. 이러고 진짜 무정차로 거기까지 갔어요. 화장실 출발 전에 다 보게 하고, 무정차로 갔다가 거기서 놀고 무정차로 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물러설 수 없었던 거지. 그만큼 절실했어! 애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지.

#### [사례] 도담원 정기행사-하계수련회/참여관찰 일지/2022.08.09.

전날 서울에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기록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오늘은 캠프 첫날이자 장마 이튿날이다. 오전에 가려고 했던 짚라인, 레일 바이크도 취소되었고, 수상 레저 활동은 가서 현지 기상 상황 보고 결정한다고 한다. 10시 53분에 1호차 버스에 탑승했다. 원래 1호차는 짚라인 타려 8시 10분에 먼저 출발하는 인원이었다. [...] 직원 숙소 S09에 원장님, 사무실 행정팀과 기획팀, 임상심리사 셈과 팀장급 생활지도원쌤들, 주방팀, 실습쌤들과 나까지 15명. 아슬아슬하게 이불이 14개였다. 수영복으로 옷 갈아입고, 다행히 비가 견딜 만큼 와서 바다로. 아이들 1~2명당 선생님 손잡고 대기하며 보트를 탔다. 16시 50분까지 바다 수영하고,

숙소로 이동해서는 숙소 내 풀장에서 물놀이했다. 날이 흐려서 체온이 내려갈까 봐 주방팀에서는 계속 어묵탕이나 떡볶이를 끓였고, 팀장님을 도와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후원품이라 먹는 사진도 중간중간 찍었다.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조금씩 왔다. 잠깐 대기하고 18시 30분경 레일바이크를 탔다. 해구를 약 30~50분 도는 코스였고 나는 초등학생 서윤과 같이 탔다. 돌아왔더니 이미 바비큐가 한창이었고, 돌아가며 고기를 굽고 계셨다. 고등학생 지원이 고기를 굽던 원장님이랑 국장님께 쌈을 싸드렸다. 지원은 두분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결국 비가 와도 계획한 일정은 짚라인 빼고는 다한 셈이다. 20시 50분부터는 펜션에 있는 노래방을 이용해도 되고 물놀이도 밤새 가능하지만, 방 담당 생활지도원 선생님 두 분 중 한 분은 무조건 같이 있어야한다고. 물놀이하던 아이들은 더 일찍 들어가고, 노래방에는 국장님이 새벽 3시 무렵까지 계셨다.

일반적으로 도담원의 통금 및 소동 시간이 밤 10시지만, 수련회 동안에는 취침 시간의 제한이 없다. 아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풀장에서 놀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2022년의 수련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로 일정에 변경이 필요했지만, 직원들은 아동 자치회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우비를 조달했고, 체온이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게임을 할 때는 시간을 1분 단위로 쪼개 지체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 날까지 비가 와서 타지 못한 짚라인은 수련회 다음 주부터 방별로 외출하여 탈 수 있도록 일정을 끊임없이 재조율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시기 동안 도담원이 집단시설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일반가정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시기 도담원은 아동의 돌봄 제공자로서 도담원의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could)’과 ‘해야 하는 것(should)’의 범위를 조정하는 실험실이 되기도 했다(Black 2018; Mattingly 2014). 사람들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서 발생한 순전한 고통이나 도덕적 문제 등 종종 원하지 않던 필요로 인해 그들 자신을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Mattingly 2014). 각 상황에서 아동의 돌봄자들이 취하는 돌봄 행위들은 불확실하고 종종 최선을 발견하기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어떠한 종류의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아동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안정적 가정환경’으로 당연하게 이해될 때, 도담원이란 “집단시설”은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최선’이 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아동의 양육자로서 해 줄 수 있는 것의 경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확장되었다. 한편 돌봄의 경계 넓히기 시도는 도담원이 학교와 가정의 “공백”을 메우는데 그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가정”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뤄졌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돌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는다, 뭐다 함께 돌봄 같은 그런 어떤 기관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우리는. 아이들의 어떤 공백, 학교와 가정 사이의 공백을 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좀 더 더 포괄적인 돌봄이죠. 사회적 통념상 말하는 돌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줘야 하는 거고.

실로 다양한 기관들은 그동안 가정의 아동 돌봄을 지원해왔지만, 코로나19는 많은 부분에서 공공화되었던 아동 돌봄을 개별 가족의 역할로 되돌려놓음으로써 돌봄의 공공성 중대의 노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나타났다고 지적된다(최아라 2020). 김성민이 코로나19 시기 도담원 직원들이 수행한 아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돌봄 노력을 ‘가정’에 빗대는 것은 기관과 가정, 또는 일과 돌봄 사이의 인식적 경계를 반영한다. 다음 절에서는 도담원이 제공하는 포괄적인 아동 돌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 제 2 절 ‘일반직장’도 ‘일반가정’도 아닌 도담원

[사례] 박유진 아동 여 17세/심충면담/2023.02.12.

박유진: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엄마라고 불렸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엄마라 불렸어서 진짜 엄마만 10명이 넘었었어요. 근  
데 그 와중에 아빠는 없더라고요.

연구자: 아빠는 없었어요?

박유진: 저는 남자 쌤들한테 키워져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남자  
애들이라고 해도 좀 오래된 쌤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런 애는 이제 거의 없긴 할걸요.

도담원에 근무하는 20여명의 생활지도원 중 남성은 단 3명에 불과하  
며, 이들은 모두 중고등학생 남자 아이들이 생활하는 203호에서 근무한  
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같은 방에서 생활한 생활지도원이나  
오래 근무해서 어렸을 때부터 봐 온 직원을 엄마나 아빠로 부른다. 이에  
따라 유진을 비롯해 도담원의 여자 아이들이 생활지도원을 아빠라고 부  
르는 경우는 듣기 어려웠으며, 남자 아이들도 중고등학생이 되어 203호  
에서 생활할 때 생활지도원에 대해 아빠보다는 쌤이라고 부른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김성민: 이력서 자체가 보육원에 남자 잘 안 들어와요. [...] 실제  
로 이력서 10개 들어온다고 그러면 9개가 여성. 하나 남  
성은 잘못 넣었을 수도 있고(웃음). 그 정도라. [저 이후  
로] 역대 남자들 뽑았던 게 한 세 번?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늘 방[미취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남  
자 아동방]에 처음 갔을 때, 애들이 아빠라고. 계속 도담

보육원 역사 아래 하늘 방에 남 선생님 처음 들어가가지고.

연구자: 정말요?

김성민: 네, 아빠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호칭을 처음 불러봤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후로도 저밖에 없었어요.

연구자: 지금은 다 중고등학교 방에 계시죠?

김성민: 맨 마지막 203호에만 남자 선생님이 있어요. 개네들은 여선생님이 불편해요. 성별이 다르니까 편하지도 않고, 옷도 샤워하고 옷 입고 나와야 되고 이런.

2009년 김성민이 도담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것은 도담원이 1950년대 설립된 이래 미취학 남자 아이들 방에 남자 생활지도원이 배치된 첫 사례였다. 지금도 매우 소수에 불과한 남성 생활지도원은 아이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모두 중고등학생 남자 아이들 방에 고정적으로 배치된다. 이처럼 소수에 불과한 남성 생활지도원들이지만, 연구자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산악회 등산 활동에 참여할 때는 항상 그들 중 한 명이 인솔교사로 참석했다. 그에 따라 등산이 아니라 여름에 계곡으로 가 물놀이는 하는 산악회 활동에서는 봉사자로 참여하는 연구자가 여자 아이들의 탈의 등을 도울 것을 부탁받기도 했다. 아동양육시설 남성 생활지도원의 근무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조사한 김서현 등(2015)의 연구에서도 이들은 물품 운반이나 운전 등 성역할 분리에 근거한 육체노동을 제공해야 할 때에 특히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나타났다.

남성 생활지도원의 수적 열세는 도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을 엄마가 많고 아빠가 매우 적은 집으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특수한 엄마-아빠의 관계는 시설보호 아동과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생활지도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에 더해, 아동양육시설의 생활지도원이 여성에게 어울리는 직무라는 성 편견적 시선이 작용한 결과이다(김서현 외 2015: 181).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 돌봄은 ‘여성에게 어울리는 직무’로 인식되며,

주로 여성인 돌봄노동자들이 아동에게 적합한 ‘엄마’인지 평가된다. 선행 연구에서 남성 생활지도원의 수적 확대와 역할비중 증가를 주장하는 근거로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성에 더해 아동들이 “최대한 일반가정과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 양성평등적으로 인지적, 인성적 발달”을 하기 위한 필요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김서현 외 2015: 183). 그러나 무엇보다 아동의 안정적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말해지는 ‘일반가정’의 환경을 지탱하는 것은 물리적인 가정-집 공간 그 자체에 더해, 그 안에 상주하는 ‘엄마’라는 존재이며, 시설과 가정 사이의 대비는 아동의 주요 돌봄자로서 ‘엄마’에 대한 이상을 반영한다.

정민준은 도담원 직원들이 일종의 엄마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혈연이나 입양을 통해 이어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까진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게 ‘엄마’는 피와 양육, 즉 출산과 입양 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테두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엄마’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며, 이는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와는 구분된다.

#### [사례] 정민준 퇴소인 남 20세/심충면담/2023.02.20.

정민준: 원장님한테 맨날 장난으로 “엄마 하이” 이러면서 장난쳤죠. 엄마 근데 아닌 거 같아요… 진짜 피도 아니고, 양육되는 것도 아닌데 뭔 엄마예요?

연구자: 피와 양육이 엄마를 만드네요? 양육은 뭐예요?

정민준: 입양, 입양해서 키우는 거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엄마라고 부를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아이들은 같은 호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에 대해 엄마라고 부르지만 선생님(쌤)이라 부르는 경우도 많다. “학교 선생님”은 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입양해서 키우지도 않고 해가 지나 학년이 올라가거나 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바뀐다. 도담원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 담당 생활지도원들 역시 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입양해서 키우지도 않고, 해가 지나 머무는

큰 방 자체가 바뀜에 따라 바뀌거나 직원의 이직이나 퇴사 때문에 바뀌기도 한다. 무엇보다 학교 교사도 생활지도원도 하나보다는 여럿이다.

아동의 발달에 있어 부모와 자녀의 규범적인 관계는 아동기에 보편적으로 유효한 처방인 것처럼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가장 명확한 예가 아이들을 돌보는 성인의 수에 관한 것이다(Woodhead 2015: 69). Bowlby(1953)는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영유아가 만족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머니(또는 계속 그에게 ‘어머니 노릇을 할 (mothers)’, 영구적인(permanent) 어머니 대체자 한 사람)와 따뜻하고, 친밀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Bowlby 1953: 13)<sup>25)</sup>이라며, 아이들이 한 명의 주요 인물에 대해 애착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착이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말한다. 애착에는 부모 자녀 애착, 또래 애착, 연인 간의 애착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특히 초기 아동기에 양육자와 맺는 애착 관계가 가장 근원적인 형태로 일컬어지며, 엄마의 사랑과 존재에 대한 어린 아이의 허기는 ‘음식에 대한 배고픔만큼 크고’ 결과적으로 엄마의 부재는 반드시 ‘강한 상실감과 분노’를 낳게 된다고 보았다(Bowlby 1982; 정소희 2021: 2에서 재인용). Bowlby 이후 애착 연구자들은 아동기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영향은 아동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까지 이어져 부모 역할, 또래 관계 및 연인들 간의 낭만적인 관계와 같은 성인기에 맺는 모든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sup>26)</sup>

25)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at is believed to be essential for mental health is that an infant and young child should experience a warm, intimate, and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his mother (or permanent mother substitute—one person who steadily ‘mothers’ him) in which both find satisfaction and enjoyment (Bowlby 1953: 13).

26) 한편 최근 연구들은 애착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애착의 정의, 발달 및 결과는 문화적 환경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Keller 2020). Keller(2020: 34)는 애착에 대한 가정이 특정 자아 개념과 특정 보육 철학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며 애착 이론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화 전략, 정서적 경험, 표현력을 특징짓는 방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자아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아동기 초기의 경험이 이후의 발달단계에까지 누적적 영향을 준다는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 개인이 성숙함에 따라 애착이 변화될 가능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정소희 2021). 이는 아동들은 일정한 조건과 안정된 생활환경이 제공되면 손상을 복구하려는 회복탄력성도 가지고 있으며, 양육환경과 양육자의

바뀌지 않는 1인의 어머니(또는 어머니 대체자)의 존재가 정신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전제할 때, 관계가 “따뜻하고, 친밀하며, 지속적”일 지라도, 바뀌는 엄마‘들’과의 안정적인 애착 가능성은 부정된다. 바뀌는 여럿의 엄마들은 외부에서 시설을 바라볼 때 뿌리 깊은 걱정거리였으며,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교대와 이직은 아이들의 안정을 해친다고 우려된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층면담/2022.12.30.

어른이 바뀌어요, 아이 입장에서. 계속 바뀌어. 아침에, 저녁에. 아침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선생님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이 가지고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 아기들은 특히 선생님들이 교대하는 사이클을 이해할 수 없거든. 나를 데려온 엄마가 갑자기 또 저녁에 퇴근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게 뭐야?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그래서 이 52시간 하고서 이렇게 근무체계가 바뀔 때 우리가 좀 거부를 많이 했어요. 끝에 끝에 가서 실행했던 이유가, 주 양육자의 교체주기가 너무 빈도가 높아지면 아이들이 혼란스럽다. 그거였지. 모든 보육원이 그랬어. 아이들 친화적으로 제도가 온 게 아니잖아, 어른들의 근무 여건 때문에 온 거지…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애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지만, 초기에는 힘들었지. 선생님이 일단 2명에서 3명 늘었으니까 그것도 애들 입장에서는 적응의 영역이지.

[사례] 도담원 정기행사-교사초청 중 원장의 답변 /참여관찰 일지/2023.05.25.

2조 2교대에서 선생님 두 분이서 교대를 48시간 이틀, 이틀 이렇게 이틀 근무하시고 아이들이랑 그냥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

돌봄이 바뀌면 애착유형도 변화하며 아동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들의 축적을 기반으로 한다(Keller 2020; Waddoups et al. 2019). 즉, 애착을 인생의 매우 초기에 형성되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지 않는 성격특성이나 유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관계의 성격에 따라 변하는 상황 의존적이며 관계 의존적인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틀을 근무하시고 이틀을 휴무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서 계속 맞교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재작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주 52시간 근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특례로 빠져있다가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52시간으로 조건을 맞춰야 돼서 3조 2교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일상적으로 바뀌는 교대 근무를 둘러싸고 “어른들의 근무 여건”은 “아이들 친화적”인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말해진다. 교대 근무의 시행, 특히 도담원이 도입한 2교대에서 3교대로의 변화는 어른들의 근무 여건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업종에서 “빠져있다가 들어가는 바람에”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2018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담원에 3교대(3조 2교대)가 도입되었다. 특례업종이란 법정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받는 업무 형태로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여, 여기서 제외된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은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했다. 이로써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던 사회복지 조직의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개선과 휴게시간 보장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야근과 휴일근로, 생활시설의 교대제 근무 등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전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조상미·정희수·한예선 2020: 86). 보건복지부(2019)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표준근로형태 가이드」를 발간하였으며, 기존에 주로 2교대제로 운영하던 생활시설에 3조 및 4조 교대제 근로 형태와 근무표를 제시 및 제안했다. 이때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시설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되었다. 도담원 역시 직원 규모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방별로 직원이 한 명씩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도 늘었고, 채용된 직원들이 다 도담원에 적

응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아졌다. 성진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추기 위해 준비하던 시기 전후를 “매일 공고 올리고 매일 면접” 보던 때로 기억했다.

**[사례] 최성진 직원 남 40대/심층면담/2023.04.07.**

제가 왔을 때[2009년]는 이제 2조 2교대인 형태였고 그 과정에서 2018년인가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7월부터 이제 열 명이 갑자기 확 늘어나야 하는 시기. 그 시기에 10명 가까이 한번에 뽑아야 하니까 그 뽑은 사람이 사실은 적응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안 맞아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만두는 방은 아이들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정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은 새로 들어온 선생님이 들어와도 힘든 거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그 시기가 엄청 많이 바뀌었었고, 정말 매일 공고 올리고 매일 면접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담당 생활지도원이 바뀌고 그만둘 때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정”도 커진다고 인식되며, 이는 직원의 소진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 일을 그만두는 악순환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17년간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중 원장으로서 7년간 근무하면서 차은주가 지켜본 결과 직원들에게 소진을 가져오고 직장을 그만두도록 하는 주된 원인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었다.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층면담/2023.03.09.**

**연구자:** 이 소진이라는 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직을 고려하면서 면담을 하신 선생님들한테 보통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 같으세요?

**차은주:** 아이들의 문제 행동,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문제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도 선생님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가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는 아이들과 일반 후원자나 봉사자들이 보는 시각의 아이들은 달라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답게 근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이들도 뭐 문제 행동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진 않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 문제 행동이 사실 뭐 한두 달 해서 개입을 해서 좋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개입해도 퇴소해서 알게 되는 아이도 있고,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뭐 소거되기까지는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몇 달 만에 괜찮아지는 아이도 있지만 케이스별로 다 달라서 퇴소해서도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고, 또 고등학생이 돼서야 좀 괜찮아지는 아이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 **기다려주거나**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니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란 분노 조절의 어려움과 주로 직원에 대한 욕설이나 깨물기, 머리채 잡기 등의 폭력 사용, 그리고 자해 시도 등 다양한 행위를 일컫는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직원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아이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특히 원장 차은주가 직원들을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것은 같은 말이어도 ‘안 돼’와 같이 부정적인 표현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도담원이라는 직장에 대해 차은주는 이곳이 “일반 직장”과 다르며 “다른 마인드로 일해야 한다”고 이해했다. 같은 의미에서 김성민은 “일을 일로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거리를 둘 것을 요청한다. “아이들의 삶의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과 책임에 비해, “일로서” 도담원의 일을 바라보면 “잡스럽고 허드렛일”처럼 느껴지기 때문

이다.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저는 사실은 이곳은 일반 직장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다 직장을 다녀야, 어쨌든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 거는 뭐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저는 특히 이런 양육시설이나 이런 생활시설, 특히 아동 양육시설의 선생님은 좀 다른 마인드로 일해야 한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일을 일로서 받아들이고 이 일을 하면은 이렇게 잡스럽고 허드렛일이 없어. 아이들을 한다는 게. 근데 한편으로 또 이 일에 몰입해서 하다 보면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역량 강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몰입해라? 몰입하고 좀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는 선생님이 더 즐기고. 근데 즐길 때도 전문성 있게 즐겨야 돼. 놓치면 안 돼. 분위기만 띄우고 아이들이 이제 역동을 일으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나는 다른 이제 다음 걸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정신없이 거기서 놀고 있으면 안 돼.

특히 “잡스럽고 허드렛일” 같은 일이란 표현은 아동양육시설에서의 근무에 대한 복합적 인식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의 노동이나 더 넓혀서 아동 돌봄 노동뿐 아니라 전체적인 돌봄 노동자체가 “잡스럽고 허드렛일”로 간주되어온 사회적 맥락이 배경으로 존재한다. 오랫동안 돌봄은 노동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노동 외 범주에 있었고, 돌보는 이는 노동자라 불리지 않았다(채효정 2020). 돌봄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기술도 있어야 할 것이고 통찰력,

공감 능력도 발휘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상적이고 되풀이되는 일과들이다(번팅 2022: 17). 영유아를 돌보고 보살피는 업무는 신성시되지만, 또한 전문성과 상충한 요소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로 보육 전문성이 과소평가된다(임민정 · 우민지 · 백지혜 2019). “아이들을 한다는 게”라는 김성민의 말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때로 “노는 것”이나 “놀아주는 것”과 모호한 경계에 있다고 인식된다.

#### [사례] 김준호 후원봉사자 남 48세/심충면담/2022.12.12.

그냥 우리는 좀 거창한 이름이지만 ‘활동 케어’라고 불렀어요. 같이 놀면서, 그냥 노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케어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싶었나 봐요. 거창하게… 이걸 뭐로 명명해야 하느냐 이 걸 놀려 가는 거냐, 아니면 봉사하는 거냐,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냐. 하면 이런 거를 그때 그 안에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30명이니까 그랬었는데 그러면 활동 케어가 좋지 않겠느냐.

돌봄 노동을 “잡스럽고 허드렛일”로 규정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이거나, 특별한 전문성이나 숙련도 요구되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도담원의 생활지도원이 수행하는 돌봄 노동 또한 “그냥 생활하는거”, “그냥 노는 거”로 말해지기도 한다. “일반 후원자나 봉사자들”과 달리,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직원들은 돌봄 일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다<sup>27)</sup>. 여기에는 특히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간주되어온 배경이 존재한다.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생활시설보다 출퇴근이 일정하고 일을 하는 ‘티’가 더 많이 나는 이용시설에, 그리고 교대 근무하는 생활지도업무보다 사무실 업무에 더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사회복지

27) 매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2022년에 처음으로 직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가 평가 기준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자격증 소지가 시설을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시된 현실을 반영한다.

사가 근무한다는 인식이 있다<sup>28)</sup>.

### [사례] 최성진 직원 남 40대/심충면담/2023.04.07.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생활시설 그러면 좀 뭐랄까 낮은 수준의 복지를 펼치고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피하는 시설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다음에 고된 일이 많고 그다음에 약간 티가 많이 안 나는 거죠. 일을 해도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피하는 게 좀 많고 선호하는 곳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거기에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정장을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종일 페이퍼 워크를 하고 조사 연구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출근하자마자 생활인들과의 어떤 삶에 동참을 해야 하고 그 삶을 프로그램처럼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책임을 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무게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티가 많이 안 나는” 일이라는 점은 아동양육시설의 돌봄을 “잡스럽고 허드렛일”로 저평가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때로는 오래 근무하며 도담원이 “삶” 자체가 되기도 하며,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프로그램처럼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책임을 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을 아는 도담원의 직원들은

---

28) 같은 생활시설이더라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격 기준상으로도 생활지도업무는 3급 이상, 사무실의 생활복지사는 2급 이상의 자격이 필수로 요구된다. 3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던 자격증이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져 2019년 폐지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제2항).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되지만, 대체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로서 실무경험을 한 후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자격 상으로도 3급과 2급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교대 근무를 하고 아이들과 직접 한 방에서 머무는 생활지도원 보다는 늘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사무실 직원이 더 전문가라는 인식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티가 안 나는” 돌봄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고안해왔다.

생활시설 직원의 업무는 끊임없이 목록화될 수 있다. 여기에는 매년 아동학대방지교육과 인권교육, 안전교육을 이수하기, 프로그램 티 안내면서 프로그램 수행하기, 상담 티 안내면서 상담하기, 아동의 연고자 상담하기, 연고자나 봉사자·후원자와 외출 및 외박하고 돌아온 아동의 상태 확인하기, 학교 교사와 통화하기, 후원 들어온 물품 확인용 사진 찍고 사용하는 사진찍기, 생일잔치와 퇴소식 때 틀을 사진영상 만들기, 아동들 인솔해 때로 1박 2일의 방별 외출하기, 2박 3일의 전체 수련회 가기와 짐챙기기, 매일 양육일지 쓰기, 때로 아동의 후원자에 대한 감사 편지 대필하기 등 끊임없이 목록화될 수 있는 종류의 돌봄을 포함한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설 아동이라는 것을 숨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숨기기 방법을 알려주는 것 역시 이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경계 짓기 어렵고 잘 티 나지 않는 돌봄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에게 도담원 아이들은 “우리 애들”이 되어간다.

#### [사례] 도담원 정기행사-하게 수련회/참여관찰 일지/2022.08.10.

주방의 조리사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이전에 도담원 행사를 경험해 본 다른 조리원분들이 그때 찍어놨던 음식 사진들을 보여주며 알려주고 계셨다. 둘째 날 아침, 7시에 기상해 차례로 씻고, 아침 식사 시간. 선택지는 한식과 양식인데, 아이들이 밥이 아니라 시리얼, 우유, 식빵을 선택해서 직원들 방은 선택지 없이 밥과 된장국, 김과 김치를 먹기로 했다. 한창 먹다가 201호 아이들 방에서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시리얼이 더 있는지 물으러 오셨다. 조리사 선생님이 원에서 아침용으로 시리얼을 아이들 방 당 1~2 개씩 챙겨왔다는 얘기를 듣자, 팀장님이 그거 보고 “이게 다예요?”라고 물었다.

조리사: 우리 애들 생각하고 조금 가져왔나 봐. 나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팀장: 우리 애들이 많이 먹어요.

원장: 준서가 많이 먹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생활지도원:** 오늘 아침에 어제 시킨 치킨, 식빵, 콘푸로스  
트 [다 먹었어요.] 식빵 조금이랑 우유랑 사  
과 조금 남고.

집이자 직장이자 아동양육시설로서 도담원은 항상 다양한 후원자와 봉사자들, 공무원들이 시설을 찾아오고, 여러 활동을 하며 예산과 후원 물품을 쓰고, 그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담원에서는 항상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후원품이 들어올 때도 수량을 확인하는 사진을 남기고, 후원으로 들어온 음식을 먹는 사진도 남긴다. 자원봉사활동 중 찍은 사진들 역시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한 채 도담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충면담/2023.02.15.

저는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고 싶은데 계속 활동도 해야 하고 계속 수시로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사진 진짜 미쳐요. 사람이 돌아가요. 이거 계속 찍히면.

수시로 찍어야 하는 사진만큼, 도담원에서는 상담도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도담원에 상주하는 임상심리사가 입소 시, 담당 생활지도원의 요청 시, 그리고 퇴소를 앞두고 상담을 하지만, 도담원의 모든 직원은 잠재적 상담사이다. 아이들의 방 안과 도담원의 벽 곳곳에 어떤 직원에게 언제라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sup>29)</sup>이 부착되어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사진 찍히는 것만큼이나 도담원 안팎의 다양한 어른들로부터의 상담에도 지쳐있고, 나서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9) 안내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자 고민고민하지만 말고 상담실을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밀은 절대 보장하며 비공개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도록 상담하는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상담 신청 방법 : 1.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을 정합니다. 2. 아무 때나 선생님이 혼자 계실 때 찾아가 신청합니다. (전화,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3. 즉시 상담을 시작하거나 약속 시간을 다시 정한 후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례] 박유진 아동 여 17세/심층면담/2023.02.12.

연구자: 시에서 공무원 분들이 와서 학대 경험이 있었냐, 이런 거 여쭤보는 거 혹시 해보셨었나요?

박유진: 아 그거요, 그거 너무 많이 해서 싫어요. 1년에 네 번인가 할걸요. 되게 많이 하던데. 분기별로 하나? 근데 그거 솔직히 도움 안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도움 안 되고, 그거 할 때 오히려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것 때문에 일정 잡아야 되는데 학원도, 학원에서도 뭐라 하는데 자꾸 학원 빠지라하고 그리고 솔직히 거기다 말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 사실 항상 가기 싫어서 늦었다하고 빨리 가거나 아니면 자다 깨서 가거나 하고 그 닥....

연구자: 한 번 하면 얼마나 [오래] 했었는데요?

박유진: 솔직히 저는 5분 만에 끝내고 갔었어요. [...] 그냥 빨리 가고 싶다 하고. 상담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직원들은 아이들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 상담하기보다는 최대한 상담의 외양을 띠지 않은 채,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다가 은근슬쩍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등의 티 나지 않는 상담을 수행한다. 퇴소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가능한 프로그램이란 용어를 쓰지 않은 채, 프로그램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이뤄진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층면담/2022.12.30.

퇴소할 때쯤, 계속 우리는 프로그램만 하다가 퇴소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좀 최소화해 보고자, 아이들의 삶 속에서 교육하고 있어요. 자립프로그램 같은 거 영역별로 예전에는 무조건 모여서 “야 이 건 이거 프로그램이야”하면서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같은 것을 가르쳐도 아이들한테 이거는 생활 속에서 그게 발견됐을 때 가르친다든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선생님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프로그램처럼 안 느껴지게. 최대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근데 프로그램의 성격을 떨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간다는 것들도 뭐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안 쓰고.

이처럼 일상을 지속하기 위한, 일상을 더 살 만하게 가꾸기 위한 (Mattingly 2014) 티가 나지 않는 돌봄은 돌봄노동 자체의 특성이자 아동을 돌보는 일이 가진 특성이기도 하지만, 아동양육시설로서 도담원의 직원들에게 특히 더 중요하게 요청된다.

또한 도담원 직원들의 아동돌봄 노동은 ‘일반 직장’과 ‘일반 가정’에 끊임없이 비교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도담원 직원들의 소진과 높은 이직률은 ‘일반 가정’의 영구적 엄마와 대비되어 아동의 안정을 해치는 조건으로 폄하되지만, 이직을 줄이기 위한 근무 조건 개선은 “아동 친화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양면적으로 이해된다. 이는 또한 양질의 돌봄이 충분한 보상과 좋은 노동조건, 적절한 자금 지원, 효과적인 조직 관리, 문화적인 인정과 같은 더 큰 맥락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잘 주목받지 않는다는 맥락과 연관된다(Bentig 2022; Buch 2018). 한편 이용시설과 달리 생활시설의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서 교대 근무는 그 자체가 ‘일반 직장’의 요소라기보다는, 24시간 동안 운영되어야 하는 생활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다. 도담원에서도 모든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방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원들이 교대로 근무한다. 도담원 원장 차은주와 과장 김성민은 도담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승진 및 보직 변경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사무실에 공석이 생기지 않는 이상 도담원 내에서 보직 변경은 드문 편이다. 이에 따라 생활지도원을 포함해 직원들은 생활지도 아닌 사무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생활시설이나,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이용시설로 이직하기도 한다.

분명 오랫동안 함께 한 엄마의 떠남, 즉 생활지도원의 이직 또는 퇴사

는 아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아이들은 지금 같이 사는 엄마보다도, 어렸을 때 ‘키워준’ 생활지도원을 엄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엄마의 떠남으로 인해 촉발된 이곳이 엄마의 직장이라는 자각은 그동안 자신이 왜 직원을 엄마라고 불렀는가 돌아보게 되며, 그 이후 더는 누구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게 되기도 한다.

#### [사례] 성서연 퇴소인 여 22세/심충면답/2022.11.11.

전 원장님한테도 계속 원장님이라고 불렸었고, 나머지 챔들한테도 다 선생님이라고 불렸었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안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는 뭐 가장 근처에 있고 하니까 다 엄마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왜 엄마로 부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챔들한테 그냥 다 챔이라고 불렸던 반면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엄마라고 계속 부르더라고요. [...]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회정 챔이 의지가 됐다기보다는 같이 있을 때 제일 편안하고. 근데 그분이 그만두신 이후는 특별히 막 의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약간 그분이 가져왔던 그 충격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린 마음에. 어차피 이렇게 정을 줘도 다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직장이니까.

직원에 대한 아이들의 엄마라는 호칭은 “그런 호칭도 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로 인식되지만,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엄마라고 부르는 것보다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많은 직원이 이직을 하는 배경으로서 이곳이 일하기 힘든 직장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성서연은 “오랜 시간 일하면 건강에 좋은 직업은 아니니까요”라며 오랫동안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일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을 알고 우려했다. 또한 아이들이 도담원으로 오기 전, 그리고 오고 난 후에 매우 다양한 모습의 가정을 경험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족 호칭의 사용 자체가 반드시 생활지도원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유대

와 소속감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이곳이 직원들의 직장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원장 차은주를 포함해 자신을 어릴 적부터 키워준 2명의 생활지도원을 엄마라고 부르는 최수빈은 특히 차은주를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자 가족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면서도 차은주가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때로 ‘시간 외 근무’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층면담/2023.02.15.

**최수빈:** 그냥 가족만 딱 두고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유전자가 가 장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엄마 정도면 가족 같아요(웃음).

**연구자:** 어떤 점에서요?

**최수빈:** 키워준 사람. [...] 이 세상에서 저는 엄마가 제일 편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성적이 오르면 엄마가 보상을 해줬었어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오르면 엄마가 야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한화 이글스 팬이에요. 그래서 야구장 경기를 같이 막 보러 가면서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밥을 사준다거나. 이거는 원에 있던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엄마가 애들, 우리한테 좀 더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엄마가 퇴근하고 나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특히 앞서 살펴본 2018년부터 서서히 도입된 3교대 근무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직원들이 바뀌고 떠나는 빈도도 늘었고, 이는 아이들이 퇴소하고 나서 도담원을 찾아오는 데도 영향을 준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것에 더해, 직원들이 바꾸는 일은 퇴소인들이 도담원을 찾아오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 [사례] 박유진 아동 여 17세/심층면담/2023.02.12.

요즘 진짜 많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보통 1년 일하면 진짜 짧게 일한 거라서 보통 적어도 2~3년은 다 일하고 가셨는데 지금은 1년 일하고 가시고 막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3팀 체제로 가서 선생님들이 계속 들어오셔서.

[사례] 정민준 퇴소인 남 20세/심충면담/2023.02.20.

연구자: 나중에도 계속 갈 것 같아요?

정민준: 선생님들이 이제 다 바뀌면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원장님이라는 자리가 쉽게 바뀔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대로시지 않을까…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보육원 느낌이 달라요. 거기 살았을 때는 그냥 저희집처럼 있었는데 퇴소하고 코로나다 뭐다 하니까 그런 것도 눈치 보이고 원래는 형들도 자고 갔는데 이제 자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럴 거면 굳이 갈 이유가 있나? 선생님들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몇몇 아이들은 직원들에게 “퇴소할 때까지 있어” 달라고 청하며, 직원들은 아이들의 부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채 도담원에서의 직장 생활을 이어간다.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저도 사람이니까, 높낮이가 있잖아요. 소진이 올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약간 힘을 얻었던 건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가 퇴소할 때까지 있어주세요… 그전에 퇴소했던 애들한테도 제가 들었던 게, 자기가 퇴소한 집인데도 오면 어색하고 눈치 보이고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나이 많은 애가 그 말을 했는데 옆에 동생들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해가 갈수록 “저 퇴소할 때까지 있어주세요”. 이 말이 저한테는 제가 이직을 하지 않고 여기

에서 버틸 수 있었던 계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담원 직원 중에 가장 오래 근무한 차은주는 퇴소할 때까지 있어달라는 아이들의 말이 17년 넘게 근무를 지속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이니까” 소진은 찾아올 수 있고 아이들은 직원들의 잣은 떠남을 다양한 강도로 받아들인다. 생활지도원이 떠날 때 방에서는 퇴사 약 일주일 전에 방에서 작은 송별회를 하고, 사무실 직원은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떠남을 말한다.

연구자가 2022년 4월부터 1년 넘게 도담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방문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주로 연락하던 자원봉사 업무 담당 직원이 2 번 바뀌어 총 3명과 연락을 주고받아왔다. 또한 2009년부터 13년 동안 도담원에서 근무하던 사무국장 최성진이 2023년 2월에 다른 시설로 이직 했다. 최성진은 많은 아이에게 아빠라고 불리던 직원이었으며 마지막까지도 떠난다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했다. 몇몇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울었고, 몇몇 아이들은 왜 가는 것이며, 이제 누가 오냐고 되물었다. 한편으로 퇴사 이후에도 최성진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아이들과 생일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다.

#### [사례] 최성진 직원 남 40대/심충면담/2023.04.07.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여기에 계속 있으면 그다음 께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거기서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야 앞으로 십 년, 십오 년의 사회복지사로서 삶에 뭔가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결심은 했지만 뭐 도담이 싫어서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직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제 원장님하고 상의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직에 대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직원들한테는 그래도 한 달 전에는 얘기해서 전체 회의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만나는 직원들 마지막 만나는

날짜 체크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보는 것 같다고 잘 지내고 있으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인사 따로따로 했는데.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인사를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인데도 용기가 안 나서 진짜 마지막에 몰려서 허겁지겁 방을 돌아다니면서 잘 지내라 이렇게. 못 보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고맙게도 이번에 얼마 전에 생일이었었는데 아이들한테 문자도 오고. 곧 보러 가려고요, 멀리 있는 거 아니니까.

이처럼 여러 사람이 머무는 만큼 떠나고 떠나보내는 일도 많지만, 도담원에서 시작한 관계는 때로 퇴사나 퇴소 이후에도 도담원을 매개로 지속된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만큼 여럿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것도 가능한 곳이 도담원이라는 집이다. 여러 양육자를 둔 아이들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투자와 관심을 더 많이 받으며, 아동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강력하고 신뢰하는 관계 형성을 장려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Keller 2020: 37). 도담원에서도 관심은 아이들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말해진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물론 전체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돌보고,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은 어른이지 아동의 역할은 아니라고 인식된다. 다음 절에서는 도담원에서 아이들의 취약성이 강조되며 아이들이 도담원의 일상적인 돌봄 관계에서 가려지는 방식에 대해 다룬다.

### 제 3 절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들과 돌봄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아이가 적응할 때 도움을 주는 거? 그거는 학년 초월해서 관심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 좀 초기에 관심과 사랑을, 아이가 벼겁

게 느낄 만큼 퍼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 근데 길어봐야 일단 안정을 찾는 것까지는 길어야 2~3일 차이라고 봐야 해. 왜냐하면 잘해, 생활지도원들이 굉장히 초기에 잘하고. 여기가, 우리 보육원이라는 특성이 또래들이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초기에는 그런 게 위로가 되는 느낌도 좀 있더라고 애들이. 또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놀면서 적응하고. 근데 그게 아기들은 통하는데 보면 또 이게 저항값이죠, 또래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큰 애들은 처음에는 텃세도 부리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도담원에 들어온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 “버겁게 느낄 만큼”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해된다. 이때 아이들이 많은 환경은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양육시설 입소 전 가정에서 방임되었던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또래 관계는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김기화 · 양성은 2017: 585). 성민이 보기에도 또래들이 있는 도담원의 환경은 “초기에는 같이 놀면서 적응”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은 결국 입소 초기, “아기들”에게만 통하며, 이후에 생활하면서는 “또래들이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해진다.

비슷한 또래들과의 공동생활로 자연스럽게 집단 활동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같은 사회성 형성에 도움이 되며, 특히 공동체 · 협력 · 위계 · 의존 · 복종 등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화 관습에서 중요시되는 가치이다. 그러나 지난 몇 세기 간 진행되어 온 한국의 개별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창의력 · 우수성 · 다양성이 주요 가치로 대두되었다(안준희 2014: 194). 한국의 유치원 현장을 참여 관찰한 안준희(2014)에 따르면, 토착화의 과정에서 ‘자아’가 경쟁, 획일화, 비교 등과 대비되는 가치로 인식되었으나, ‘자아 계발’은 ‘함께하기’라는 기준의 사회화 목표를 일방적으로 대체하지 않고 긴장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때 공동생활에서 아동들이 보이는 경쟁, 갈등, 위계는 사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아동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적인 또래 문화는 어른들에게 ‘함께하는 삶’의 실천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아 발현’을 가로막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습으로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안준희 2014: 198). 안준희는 유치원 교사들에게 아동들의 협동성과 공동체성이 평가 절하되고, 심지어 비판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혼재된 사회화 가치에 부여된 위계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아가 있는 아동 기르기’라는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화 현장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한편으로, 아동의 공동체성이 평가절하되고 심지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변화된 사회화의 목표 때문만이 아니라, 아동만을 일방적인 사회화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아동기에 대한 전제와도 관련이 깊다. 아동은 사회화 목표를 일단 습득(acquire)해야 할 주체이지, 성인과 동등하게 행위(do)할 주체로는 강조되지 않아왔다(Woronov 2007). 사회화, 애착, 그리고 돌봄에 대한 가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성인에서 아동으로 흐르고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아동기 전제는 결과적으로 아동이 호혜적이고 균형적인 돌봄 관계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Garc'ia-Sa'nchez 2018: 171).

아동의 돌봄 능력에 대한 의문은 특히 도담원처럼 아이들의 ‘취약성’이 강하게 전제되는 환경에서 더욱 강화된다. 직원들에게 아이들이 여럿인 도담원의 환경은 입소 초기에는 적응에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다른 아이들은 내부에 서열을 만들어내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은 서로 같은 것을 위해 경쟁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

####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비공식면담/2023.05.25.

어느 보육원은 미취학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골고루 생활하는 시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도 해봤는데 아이들 서열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서열에 되게 예민한 아이들이라서, 형들이 아이들을 선생님 안 보는 데서 괴롭힌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

시 지금은 또래별로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맨날 보는 얼굴이 또 또래야. 집에는 뭐 쌍둥이가 아닌 이상에는 좀 세대가 달라서 이런 같은 것을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고. 우리 애들은 같은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갈등, 스트레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특히 아이들 간의 폭력을 경계하며 생활 방을 같은 연령대 아이들로 뮤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모인 것은 도담원 밖의 ‘집’, 즉 ‘일반 가정’과 다른 부분이며 코로나19 시기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이 아이들은 이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지내는데, 나는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고.

도담원 아이들은 성인에 대비해 ‘아동’ 일반이 가진다고 전제되는 취약성을 공유하는 것에 더해, 도담원이라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들”로 인식된다. 이러한 아이들의 전제된 취약성은 후원자들을 도담원으로 이끌고, 직원들이 도담원을 ‘일반 직장’과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노동 조건을 감수하고 자신의 노동을 평가절하당하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지속하도록 한다. 그런 한편으로 도담원의 일상 유지에 기여하는 아이들의 돌봄 수행을 가리개 한다.

아동보호시설의 맥락에서, 아동의 또래 집단 관계는 성인 직원의 치료적 개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해되어왔다(Stockholm 2009). 실제로 처음에 시설에 배치된 아동은 종종 상실감, 거부감,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같이 생활하는 한 방 안의 아동들이 서로의 낙담, 걱정, 분노와 같은 감정에 노출될 때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Steels & Simpson 2017: 1715). 그러나 또한 원가정과의 관계가 유지되거나, 반대로 가족과 함께 한 이전 삶이 너무 “형편없었던” 아이들은 시설에서 오히려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보고된다(정정호·정익중 2012: 198). 이를 고려할 때,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데 본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거나 거의 제한적으로만 반영되는 상황에 놓인 아동의 행위성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아동들이 시설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돌봄의 관계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례] 산악회 정기행사-생일잔치/참여관찰 일지/2022.08.12.

나와 중학생인 민지, 서현이 한 테이블, 총무님과 별명이 병아리인 삼촌, 고등학생 유진과 초등학생인 지우가 한 테이블. 뷔페식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내내 서림이가 은지 손잡고 같이 이동했다. 민지와 서현은 도담원에서의 열애설,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잘생긴 봉사자 삼촌, 원의 잘생긴 남자애들 이야기를 했다. 식사 끝나갈 때쯤 생일선물로 용돈 4만 원씩, 초등학생인 지우는 3만 원을 이름이 적힌 봉투에 건네받았다. 원래 함께하기로 했던 인기 많은 삼촌은 가족분이 확진되어 식사는 같이 안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멀찌감치 앉으셔서 아이스크림만 사주셨다. 유진이는 삼촌들에게 감사 인사와 평소보다 큰 리액션,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하고, 다른 아이들 챙기기까지 도맡아 한다. 20시 30분 경 용돈 받은 것으로 근처 대형마트로 이동, 21시경 도착. 아이들끼리 고르고, 삼촌들은 푸드코드에 앉아서 대기하기로 했다. 총무님 차가 먼저 도착해서 나는 아이들을 찾아 2층 완구 코너로 이동했다. 유진이는 지우와 손잡고 다니며 인내심 있게 함께 콜라주었다. 유진이는 안 고르나 물어보니, 자기는 여기 말고도 살 데가 많이 있다고 대답했다. 지우는 목걸이와 팔찌, 스티커북. 서현은 나무 이용한 조립북, 150피스 퍼즐, 민지는 물통과 목

걸이를 골랐다. 원래 21시 30분까지 고르기로 했으나 지연돼서 40분쯤 어른들과 합류했다. 총무님이 원하는 과자 한 상자씩 고르게 했다.

Erikson은 인간의 생애주기를 8단계로 설명하면서, 성인 단계에서 돌봄은 다음 세대의 강인함과 역량을 육성하는 세대 간의 임무라고 제한했다(번팅 2020: 69에서 재인용). 그러나 돌봄은 어른에서 아이로만 흐르는, 어른에게 한정된 ‘일’이 아니다. 도담원의 일상에서 드러나듯, 아이들은 단지 돌봄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제공자이며, 어른-아이 간의 돌봄을 돋는 ‘돌봄의 중개자’(Garc’ia-Sa’nchez 2018)이기도 하다. 돌봄 중개란 중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잠재력을 예상하고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Garc’ia-Sa’nchez 2018: 177). 돌봄 중개자로서 아동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돌봄 관계를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축소해온 것을 넘어서도록 돋는다. 그러나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 역시 도담원의 일상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돌봄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덜 보고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며,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기도 했다. 방 단위가 아닌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행사 때마다 고등학생 박유진은 늘 어린 동생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손을 잡고 챙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이미지 관리”라고 말했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연구자: ‘도담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김성민: 자유? 아이들의 자유. 철저하게 아이들의 인권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직원 교육도 하고 슈퍼비전도 주고 하다 보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많이, 초창기에 김성민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 봤을 때, 비교도 안 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충면담/2023.02.15.

하라는 대로 잠시 몇 년을 날 놓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인생에서 편하지 않을까요. [...]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거 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그 애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실제로 저는 그랬어요. 전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믿어요. 제가 학원에 가기 싫은 날에는 진짜 가끔 한 번씩 학원 빠졌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당연히 얘는 학원을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저는 그걸 악용했죠. 근데 그 정도 악용은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애들처럼 막 그렇게 학원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냥 날 놓으면 신뢰가 생겨요. 대신에 진짜 여기서 생활할 때는 그냥 이게 제일 최선인 것 같은데? 약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질 게 뻔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 애가 원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원들은 도담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다 같이 사는 집”에서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질 게 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뷔페에서 동생과 같이 음식 골라주기나 동생을 돌볼 선생님 대신 음식 떠다주기, 돈가스 먹기 좋게 썰어주기, 물놀이 후 옷 갈아입는 것 돋기, 퇴소 후 찾아온 퇴소인에게 침대 내어주기 등의 돌봄 행위를 비롯한 자신의 수행을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대신에 박유진처럼, 어른들로부터 ‘착한 아이’로 비춰지기 위한 이미지 관리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한 행위들은 마치 로봇같이, “날 놓는다고 생각”한 채 이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자

유를 전략적으로 얻어내며, 이러한 ‘이미지 관리’를 나중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돌봄의 중개자로서 아동의 역할 중 이름 알려주기의 중요성은 특히 강조할만한데, 여러 아이의 이름을 외우는 것과 틀리는 것을 걱정하는 건 직원과 봉사자들의 주된 걱정거리다. 최성진이 2023년 2월로 근무를 마무리함에 따라, 4월에 박상훈이 새로 오게 되었으며 5월에 그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아이들 이름을 익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었다. 자치회의 공약이었던 5월의 어린이날 기념 야시장 행사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작년에 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풍선 다트 던지기 게임을 보조했으며, 5학년 박예은을 포함한 몇몇 아이들은 행사 준비를 맡았다. 박예은이 연구자와 함께 풍선을 정리하던 중 박상훈이 다가와 함께했다.

#### [사례] 도담원 비정기행사-야시장/참여관찰 일지/2023.05.18.

박상훈: 기특하네, 네가 이름이 뭐였더라?

박예은: 저번에도 알려줬잖아요. 박예은이요, 박-예-은. 다음에는 초성만 알려줄 거예요.

외부 봉사자들은 매번 약 2~30여 명의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악회와 교회 봉사자들의 프로그램은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대부분 오랫동안 봉사자이자 후원자로 참여함에 따라 자연스레 얼굴과 이름을 익히기도 하지만, 봉사자 한 명이 많아야 2~3명의 아이들과 주로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의 이름을 외우지는 못한다. 나아가 모든 봉사자가 매달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달 참여하지 못하는 봉사자 정호는 아예 공평하게 모든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전략으로 취하기도 했다.

#### [사례] 산악회 비정기행사-봉사자 뒷풀이/참여관찰 일지 /2023.03.11.

**차정호:** 민규야,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도 시설을 다녔었거든. 근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첫째, 애의 이름을 기억하지 말 것, 우리 이제 한 사십 명? 오는 애는 이제 스물여섯 명에서 한 삼십 명, 그 원에 가면 한 6~70명 되잖아. 개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말아야 해. 내 뒤에 있는 애를 기억하지 말라. 네가 아까 지금 얘기하는 서영, 애를 하나 하면 나머지 서른아홉 명에 대한 정을 못 준다는 거지. 40명 중에. 그러니까 우리 배울 때는 절대 하여간 애들 이름 기억하지 말고 [...] 나는 지금도 [이름 부르기를] 안 하려고 하지. 너 3학년? 너 4학년? 우리 한 달에 한번 이렇게만 오니까 이제.

**박성호:** 이름 아는 게 기본이지, 이름을 아는 건 기본이야.

**차정호:** 전체 애들의 이름을 알면 상관없는데-.

**손민규:** 나도 이름은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

**박성호:** 기본이야.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중요한 관심의 표현이자 “기본”으로 이해된다. 이때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어른들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어른에서 아이로의 돌봄이 잘 이뤄지도록 중개한다. 한편으로 김준호는 아이들에게 “보육원 아이”라는 소속이 드러나게 되는 명찰을 달도록 했던 것이 도담원에서 봉사해 온 “20년 동안의 가장 큰 실수”로 회상했는데, 시설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주는 낙인을 고려하는 것만큼이나 주목할 것은 봉사자들이 느끼는 이름 외우기의 부담이자 중요성이다.

[사례] 김준호 후원봉사자 남 48세/심충면담/2022.12.12.

처음에 저희가 아이들 이름을 빨리 외우고 싶어서 명찰을 달게 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극도로! 표현이 센가?

굉장히 좀 히스테릭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잘못된 건지 내가 그 아이들이 안 되어봐서 몰랐었는데. 그게 밖에서 이렇게 프로그램하거나 아니면 같이 돌아다니며 명찰을 매고 있으면, 그 것도 주말에,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는 걸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우리 20년 동안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을까**.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 한두 달 하고 나서 왜 그렇게 명찰을 싫어했지, 이런 고민해 보니까 내가 보육원 아이인 거를 누가 선전하고 싶겠어요.

아이들은 이름을 매번 알려주는 것에 피로감과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거듭 묻는 어른들에게 이름을 재차 알려주며 다음에도 물어보면 초성만 알려주겠다고 답하고, 다른 아이의 이름을 대신 알려줌으로써 매끄러운 돌봄 수행에 기여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시설 생활이 오래된 만큼 직원 및 봉사자들과도 오래 교류해왔기 때문에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한다. 이에 보통 아이들의 이름 알려주기 수행은 어른들이 어린 아이의 이름을 물을 때 조용히 귀띔해주거나,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어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돌봄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아동이 더 어린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이와 무관하게 아이들 간에 매년 방 바꿀 때 짐 옮겨주기, 생일 쟁기기 등 어른들의 “잡스럽고 허드렛일”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도담원의 일상을 지속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성인 돌봄자들은 자신이 아동이었을 때 받았던 돌봄을 기준으로 돌봄을 수행하기 쉬운데, 이러한 인식은 ‘아동’의 개념, 즉 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연관된다. 어른들은 그 자신이 과거에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아동들이 어떤지 알고 있다고 느낀다. 또한 어른들은 아동을 그들 자신의 덜 완성된 버전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Thorne

1993: 16), 자신을 스스로 아이들의 공정한 대표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 (Prout & James 2015).

[사례] 유지혜 실습생 여 30대/심충면담/2022.08.25.

유지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돌봄은 어른이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해주고, 아동이 원하는 걸 해준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아이를, 아동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유지혜: 그냥 작고 천진난만하다.

[사례] 김현우 사회복무요원 남 24세/심충면담/2022.09.02.

아동은 일단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없다.

아동기의 현대적 형태들은 2가지 주요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인과 아이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엄격한 연령 위계이며, 그 거리는 아동기를 ‘황금기’라고 인식하는 두 번째 측면에 의해 강화된다. 행복은 순수함과 연관된 핵심 용어로, 아동기는 반드시 행복한 시기여야 하며 어른 사회의 부패로부터 분리된 시기여야 한다(Ennew 1986: 18; James & Prout 2015: 235에서 재인용). 특히 학대의 경험은 “어린 시절의 참된 경험”과 대조된다고 인식되어왔다(Kitzinger 2015: 162). 이때의 ‘어린 시절’이란 편안한 놀이의 시간으로, 아이들은 성인, 특히 가족의 보호적인 품 안에서 무성적이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야 한다(Kitzinger 2015).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동 시설이다 보니, 성에 대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안 그렇더라도, 제가 보육원 과장이지만 애들을 가서 안아주고 뾰뽀하고… 나는 전혀 그런 성적인 매력을 개네들한테 안 느낀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결면 결려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조심스럽고.** 그리고 한편으로 만약에 진짜 그래서 접근한 거면… 그 아이 안 그래도 상처를 가지고 들어온 애가 또 상처를… 그건 진짜 씻을 수 없을 것 같아. [...] 그래서 좀, 실습생은 남자를 받았을 때, 보낼 수 있는 방이 3개. 201, 202, 203. 여 선생님들은 다 갈 수 있다, 203호 빼고. 근데 실습을 할 때 어느 정도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연차의 직원들이 있는 방을 고려해서 뽑아요. 근데 그 방에 뭐 예를 들어서 아기들 방 위주다, 큰 방에는 현재 슈퍼비전을 줄 만한 연차의 직원이 없다, 안 뽑죠 그러면. 그러면 여 선생님들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 남성 실습생이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성적 학대 발생 가능성의 측면에서 여성 실습생이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다르게 인식되었다. 도담원에서 여자 실습생은 중고등학생 남자 아이들 방인 203호 외에는 다 갈 수 있지만, 남자 실습생은 초등학교 이상의 남자 아이들 방인 201호, 202호, 203호‘만’ 갈 수 있다. 도담원의 남자 직원과 사회복무요원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여자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도 주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신경쓰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의 남성 생활지도원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오해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여자아이들이 남성 양육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편견 없는 성역할을 익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이 없어도 부당한 취급을 받을까봐 미연에 움츠려들었다”고 제시되었다(김서현 외 2015: 196). 아동양육시설에 남성 실습생과 직원의 “이력서 자체가” 잘 안 들어오는 상황에 더해, 시설에는 “안 그래도 상처를 가지고 들어온” 아이들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또 상처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별에 따라 편향적으로 이해됨에 따라 채용에 영향을 주며,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설에 ‘엄마’가 많은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원가정에서 상처 입은 아이라는 전제는 혹시 모를 학대의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했고<sup>30)</sup>,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처

30)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더워서 땀을 흘리더라도 성인 남성이 주변에 있을 때는 옷이나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것은 아이의 배경을 모르는

를 보듬을 시간을 보내도록 충분히 기다려줘야 한다고 인식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첫날에 김현우는 “들어가자마자”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첫 번째는 여자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 무조건 노크를 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 무엇보다 “욕하면 안 되고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애초에 문제”가 되는 금지 행위였다. 그러나 몇몇 직원들은 자신이 양육되지 않은 방식, 아동일 때 대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아동을 대해야 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김현우는 몇몇 생활지도원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도담원의 아동 돌봄자들이 “로봇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혼내고 싶어도 아이들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도담원이 아이들을 “완전 오냐오냐해서” 키운다고 생각했다.

#### [사례] 김현우 사회복무요원 남 24세/심충면담/2022.09.02.

저는 가정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혼을 나고, 그게 애들이 이제 잘못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걸 안 하게 하고, 그런 게 다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제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선생님도 그 정해진 틀 안에서만 제재를 해야 하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약간 생활방 선생님들이 한두 분 정도한테 들었는데, 이 보육원은 좀 잘못된 것 같다. 때리지도 못하고 욕도 못 하고, 근데 그걸 애들이 당연하게 다 아니까, 제재 방안이 없는데 터치를 안 하시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담배도 피우는데 그냥 보시고. 게임을 해도 놔두시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고 선생님 마음은 실제적으로는 제재하고 싶고, 뭐라 하고 싶고, 혼내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안 되고. 진짜 그냥 완전 오냐오냐 해서 개를 키우는 느낌이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사회에 나가서 힘들 텐데, 걱정하시는 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로봇 같은, 그래

---

봉사자들에게 학대의 상흔으로 추측되었다.

서 로봇 같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동과 성인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식은 아동과 직원 모두에게 낫설었다. 직원들은 자기가 양육되지 않은 방식으로 아동을 대해야 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고 아이들의 퇴소 후 사회 적응을 걱정했다. 아동 ‘인권교육’은 아동들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한 강한 경계와 권리의식을 갖도록 했으나, 아이들이 자기 존중 우선의 방식을 습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활지도원들은 자신의 인권이 소외되고 있다고 의식하기도 했다.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모든 애들이 그렇진 않지만, 한동안 인권교육 초반에는 정말 아이들이 권리만 주장했어요. 권리를 찾으려면 사실은 의무가 따라야 하는데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선생님한테 막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은 나한테 막 하면 안 돼, 그건 나는 신고해도 돼 이런 것들이. [...] 살다 보면, 아이들의 인권은 중요해요, 정말. 근데 선생님의 인권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희의 인권은 어디서 찾나요?’ 항상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범의 잣대로 봤을 때 아이와 교사가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은 아이보다 강자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아이는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벌을 받아요. 아이가 선생님한테 인권 침해를 해도, 선생님이 똑같이 인권 침해를 하면 선생님이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더 노력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소진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도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체벌과 학대, 훈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해왔다. 오늘날 주요 입소 원인으로서 ‘학대’의 통계상의 증가치는 학대의 발견과 신고로 이어지는 학대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제고된 상황을 반영하며, 다양한 시기에 도담원에서 생활했거나 근무하고 떠난 이들에게 다양하게 체감되었다. 1990년대까지 사회 전반에서 매우 강한 수준의 체벌이 학대로 인식되고, 그 이하의 체벌은 훈육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특히 2010년대 이래로 학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제고되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뿐만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육설이나 협박, 위협 등의 정서학대와 방임도 명백한 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증가했다<sup>31)</sup>. 특히 아동양육시설 안에서의 학대와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졌다.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한 미디어 보도를 통해 관심이 제고되고,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시설평가를 통해 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학대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시에서 분기별로 양육점검을 나와 아동별로 시설 생활의 어려움과 학대발생여부를 묻는 일이 제도화되었다.

1988년도에 도담원에 들어온 이정훈이 2000년도 2월에 퇴소할 때까지, 그는 형들과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체벌과 폭력을 경험했으며 자신도 행사했다. 이정훈보다 1살 아래인 조지훈은 폭력을 이유로 1999년에 도담원을 스스로 떠났다. 이후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 생활을 하던

31)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이때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의 사례로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나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역시 포함된다.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과 ‘유기’가 있는데,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와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32>)

때, 당시의 도담원 직원들이 조지훈을 면회하러 오기도 했으며 이정훈과는 그 안에서도 지속해서 연락을 이어갔다. 한편, 대학을 졸업한 이정훈이 당시 원장님의 제안으로 2004~5년도 경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때에는 직원들에게 “폭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제재가 있던 시기였다. 그 당시 한 아이가 가출해 “남자 선생님이 폭행해서 나갔다” 말하며 조사가 이뤄졌고, 나중에 정말 큰일이 되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도담원 근무를 그만두었다.

#### [사례] 이정훈 퇴소인 남 42세/심층면담/2022.12.18.

그전에는 되게 뭐랄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재가 없이 조금 재량껏 이렇게 폭행을 했던 반면에, 그 시기에는 이런 폭행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위에서 내려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심해야지 하는 상황이었던 건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저도 자책을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고.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제가 그만뒀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전혀 이 친구들한테 폭행을 안 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큰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좀 지쳐도 갔고. 그렇게 하면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그만 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정훈과 비슷한 나이의 김성민은 자신이 학교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고문 수준의 훈육” 정도만 학대로 인식되었다고 회상한다.

####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층면담/2022.12.30.

2000년대 초반 이야기를 하면, 저도 01학번이지만 대학교 이전에 초중고 때 솔직히 그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맞으면서도 우리가 학대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 그 당시에 학대라고 하면 정말로 진짜 막 피가 터지게 맞는다든지 그 정도가 아닌 이상에

야.... 근데 학교에서도 점점 그것들이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계몽이 되면서. 계몽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아이들은 안 맞아도 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개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균절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아동들은 이제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아동들 스스로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그런 훈육의 개념을 바꿔간 거죠. [...] 사실 그때는 진짜.... 학교에서 그렇게 맞고 와도 엄마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니까(웃음). 학교가 그렇게 변해오는 것처럼, 우리 보육원이나 이런 시설들에서도 또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규제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개선됐다고 봐요.

#### [사례] 성서연 퇴소인 여 22세/심충면담/2022.11.11.

확실히 [체벌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그때 막 그 감사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따로 일대일 면담을 아동들이랑 다 하면서 어떤 체벌이 있었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요. 따로 상담실로 가서. 그때만 해도 이제 거의 다 사라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동 인권이 신장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후로 굉장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가정 내 체벌 금지는 보통 모든 학교와 시설, 기관의 체벌 금지가 이뤄진 뒤 가장 마지막에 달성되곤 했는데, 김희경(2017: 31, 49)은 부모의 체벌은 용인하면서 보육시설 체벌은 요란하게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자녀는 부모의 소유이고 부모가 가르치는 행위에는 폭력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통념이 작용해온 결과라고 지적한다. 2020년 10월의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2021년에는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

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자녀가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경우, 친권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21년에는 도입증거 없이 학대 의심만으로도 분리 가능한 ‘즉각분리 제도<sup>32)</sup>’가 도입되었다. 한편 2021년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sup>33)</sup>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훈육을 하다 보면 체벌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응답(58%)이 반수를 넘었다. 특히 오늘날 학대로 인식되는, 유년 시절 맨손이나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손, 발,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위 등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 10명 중 8명 이상은 자신이 받은 체벌이 학대가 아니라고 답했으며, 자신이 체벌을 받았지만 잘 자라왔다는 자기 경험을 통해 체벌의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단 체벌을 아이 훈육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때리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된다”라는 제재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는 일부 직원들이 “오냐오냐” 자란 아이들의 사회 적응을 걱정하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이 모두 가정에서 체벌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훈육 목적의 체벌과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직원들이 자신이 자라온 방식과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직원들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체벌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체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환경과의 차이로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때리고 욕하는 일이 ‘호(방)’의 테두리 안에서 발생했을 때, 아이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공유하며 때로 개입했다.

###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충면담/2023.02.15.

32) 즉각분리는 명확한 학대 정황 없이도 학대 의심만으로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 명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폭행 현장을 목격한 경우처럼 명백한 학대 증거가 있을 때만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기준 ‘응급조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33) 한국일보, 2021.05.20., “자녀체벌금지법 안다” 40% 불과... 훈육·학대 구분 모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716240001150> (최종 접속일 2023.06.18.)

저희 305<sup>34)</sup>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어떤 한 분이. 근데 그분은 진짜…욕을 막 달고 살고, 애들을 막 때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저는 제가 겪지 않으니까 욕하는 거 때리는 거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애들은 애들끼리 그냥 다 말해요 숨기는 거 없이.** 애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 저건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어느 밤에 11시 넘어서 제가 한번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방에서 XX 이러면서, 근데 이게 애들 소리가 아니라 선생님 소리인 게 확실하고, 너무 집안을 울리듯이 얘기하니까. 그때는 다음날 돼서 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 선생님이 자꾸 욕하고 그런다고, 그리고 막 애들도 때리고 그런다고. 솔직히 애들 때린 거 애들 다 아는데 약간 참고 넘어 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솔직히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 나중에 이 선생님 징계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돌봄은 쉬운 것도, 선하기만 한 것도 아니며 아동들은 때로 양가감정을 느끼는 순간에도 돌봄 실천, 과정, 관계의 중개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Garcia-Sanchez(2018: 169-170)는 아동의 돌봄 노동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준 세 가지 편견을 지적한다. 첫째는 아동을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발달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는 존재로 지정한 지배적인 담론적 구조이다. 이는 둘째로, 아동 돌봄 노동을 부적절하거나 병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경향과 이어진다. 그리고 성인이든 아동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돌봄 노동이 평가절하되는 것 역시 아동의 돌봄을 가리는 데 기여한다.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상징적 장소 안에서 직원들의 돌봄 노동뿐 아니라 아이들의 돌봄 역시 간과되어왔으며 여기에는 공통으로 일상을 유지하고 더 살 만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데 지속해서 노동이 투여되지만 ‘티가 나지 않는’ 돌봄 자체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아동’, 그중에서도 ‘이미 상처 받은 아동’이라는 시설 아동이 취

34)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호수이지만, 호수를 일부 공개하더라도 특정할 수 있어 가호를 명기했다.

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기여했다.

도담원의 돌봄 실천은 아동양육시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이자, 보다 가정에 가까운 장소가 되기 위해 향하는 과정이다. 안정적 가정에 대한 이상이 공고하게 남아있는 한, ‘집-가정-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들은 아마도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한편으로 다른 가족들의 수행만큼이나 아이들의 가족이자 가정, 집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도담원의 돌봄, 일상 수행들 자체가 그 수행의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돌봄을 수행하며, 직원들은 ‘가정’을 끊임없이 비교의 자원으로 호출하면서 돌봄 실천의 긍정적 요소들을 가정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정 이상’과 같이 그 경계를 넘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담원의 구성원들에게 수행되는 그러한 다양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진 일상들이 끊임없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 목표의 재확인 때문에 가려지고 있다. 5장에서는 그러한 목표의 도달 불가능성이 재확인되는 방식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룬다.

## 제 5 장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가족’

가족은 부부와 자녀들  
다문화 가족은 외국인과 한국인과 자녀들  
모자 가족은 엄마와 자녀들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자녀들  
세상에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족을 못 찾아서 속상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가족을 찾았다는 소리를 듣고  
축하해 주고 싶지만 침대에 누우면 친구가  
가족을 찾았다는 얘기가 머릿속에 남아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친구가 가족을 찾았으니 나도 찾을 수 있겠다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희망을 놓지 않고 꼭 가족을 찾아야겠습니다.**  
- <가족>, 김준영

매년 12월, 전체 아동들이 시와 수필, 독후감을 출품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한 편씩 선정된다. 수상작은 정문으로 들어와 바로 보이는 좌측 벽에 게시되어 오가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 중 <가족>은 초등학교 6학년 김준영이 출품한 시로, 2022년에 대상을 수상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담원을 비롯해 아동양육시설에 들어오는 많은 아이들은 다양한 가정 경험을 기반으로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꼭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소망을 담은 이 시가 대상작으로 선정된 배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제 1 절 대체 불가한 핏줄의 갈망

도담원 직원들은 원가정 또는 연고자라 부르는 아이들의 가족들을 마주하거나, 지속적 연락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함에 따라 원가정이 반드시 아동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족과 분리되어 ‘최후의 수단’인 도담원으로 오게 된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아동 카드상에 친부모가 있다고 나오지만 고모 등 다른 친척 중 일부와만 연락되거나 누구와도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중에서 가족들과 연락이 이어짐에 따라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떨어져 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로서 사회화”도 필요하다고 인식된다. 가정 복귀를 앞둔 부모에 대해 도담원은 아동보호전담기관의 교육이나 상담과는 별개로, 아동과 부모에게 개별 및 동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한다. 부모-자녀 관계에도 “떨어져 산 시간의 캡(gap)”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 측에서 아이를 데리고 갈 상황이 아니라고 느껴 귀가를 철회하는 사례도 있다.

###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원가정 귀가를 이제 상담했는데 귀가가 가능하겠다 싶으면, 이제 학대 아동 같은 경우는 아보전[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수료했어도 아이랑 부모가 떨어져서 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심리상담 치료 10회기 정도 진행을 해요. 처음에 부모만 따로 하다, 아이만 하다가, 나중에 뭐 한 5회기 정도는 또 같이. 그러면서 이제 아이 부모가 와서 아이 데리고 치료센터 같이 가서 상담하고 아이랑 끝나고 이제 외출해서 밥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산 시간의 갭을 줄이는 거죠. 아보전이든 어디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저는 지금 애 테리고 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이가 이미 커버렸고 아이랑 10회기 정도 해보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2년 전에 하셨다가 가정 귀가를 보류하신 어머님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또 가정 귀가 신청해서 10회기 작년에 진행했고, 가정 귀가를 하반기에 하기로 부모님이랑 얘기가 돼서 이제 그 아이들은 자주 외출 나가고 있어요. 부모님 만나고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것 같아서.

연고자와의 연락, 만남과 외출, 외박은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해진다. 이때의 부모-자녀 관계는 자연적인 것뿐 아니라 함께한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정 복귀 계획이 있는 아이들은 연고자를 명절뿐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정도 외박을 하고 오기도 한다. 직원들은 원가정과의 외출이나 외박 후 혹시 모를 학대의 징후를 철저히, 그러나 티 나지 않게 살핀다. 생활지도원들은 특히 학대로 인해 입소한 아이들이 연고자와 외출하거나 외박하고 왔을 때, 상담이 아닌 척 무엇을 했고 무엇을 먹었는지를 묻고, 조심스레 혹시 모를 신체적 학대나 방임 학대의 혼적을 살핀다. 이때,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만남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부모를 만나고 자주 보는 게 좋다는 생각 때문이다.

####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보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왔을 때 아이들의 상태도 어디 맹은 없는지 그런 건 저희는 또 다 봐야 해서. 학대로 온 애들 특히.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또 어떻게 손을 잘못 냈을 수도 있어

서, 애들은 또 와서 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그 위험보다는 아이들은 부모를 만나는 게 더 좋으니까.

도담원 직원들에게 시설이 가족을, 직원이 부모를 대체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보다 “정체성”的 측면이다. 시설이 채울 수 없는 가족의 빈 자리는 “핏줄에 대한 갈증”, “뿌리에 대한 갈망”, “존재에 대한 갈망”과 같은 용어로 표현된다. 즉, 원가정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충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연고자와의 연락, 면회, 외출과 외박을 계속해 언제라도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도담원에서 시작한 관계가 결코 아이들의 “뿌리에 대한 갈망”을 해결해줄 수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 [사례] 최성진 직원 남 40대/심충면담/2023.04.07.

시설에서 아이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배울 거 얼마든지 풍족하게 해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지만 결국 아이들이 채우지 못하는 거는 부모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자기 친부모, 자기 핏줄,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근데 그게 물론 없이도 훌륭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가 다시 그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는 너무 힘들죠.

직원들은 아이들이 공통으로 부모님 이름과 태어난 곳을 궁금해한다며, “와서 부모님 얘기하면서 우는 시기는 한 번씩은 있다”라고 말한다. 성진은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와 배울 거까지 “얼마든지 풍족하게” 해주고 사랑과 관심을 준다고 해도, 도담원이란 시설은 아이들에게 언젠가 찾아올 “자기 친부모, 자기 핏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줄 수 없다고 본다. 뿌리 또는 핏줄 추구가 자연적이며 충족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갈망’이라는 인식은 심한 학대로 인해 도담원에 온 다른 아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보육원이 집보다 낫다”라는 아이들의 말을 다르게 해

석하도록 이끈다.

###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애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다쳐서 오면, “다행이에요”, 아래요. “왜?”, 그러면, “저는 저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깁스하고 온 애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애를 저렇게 하냐, 이러면서 그러면 저 부모는 교도소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애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자기 같으면 저런 부모랑 사느니 보육원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아이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자기 입장이 그렇게 돼버리면,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선택해요. 왜냐면 자기 부모라는 애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저희 아이들 한쪽에는 항상 자기 뿌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아무리 나쁘게 해줘도 감싸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시설이 “얼마든지 풍족하게 해”준다 해도, 부모가 “아무리 나쁘게 해줘도” 자기 부모를 감싸는 아이들은, ‘아무리 나쁜 가정도 시설보다는 낫다’라는 시설과 가정의 상징적 위계를 상기시킨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가정이 이상과 달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가정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가중하는 요인이지만, 가정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아이들이 갖는다고 인식되는 “자기 부모라는 애듯함”에 의해 봉합된다.

‘갈망’이라는 표현은 특히 해결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강한 필요를 부각한다. 특히 시설과 가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진술들보다 이 ‘뿌리에 대한 갈망’은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한 경험적 사실이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언젠가 아이들은 자기 뿌리를 궁금해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관찰에 기반한 예측과 ‘자기 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가치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갈망의 구조 속에서 ‘뿌리’가 왜 ‘갈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갈망은 그저 관찰된 사실로 말해지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아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Howell 2009: 157). 그러나 아이들의 뿌리에 대한 갈망이 정말 본능적이고 자연적일까?

Woodhead(2015)는 정책과 관행이 구축되는 기초로 사용되는 아동의 ‘필요(need)’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필요가 아동에 대한 잠복한 가정과 판단을 은폐한다고 주장했다. ‘X에게 Y가 필요하다’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필요문(need statement) 형태는 사실 ‘Z를 위해서는, X에게 Y에게 필요하다’의 축약본이다. 필요문의 간결성 아래 숨겨진 것은 매우 압축된 경험적 평가적 주장이다(Woodhead 2015: 65). 필요문들은 단지 주체(X)와 목적(Z), 방법(Y) 사이의 경험적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Z라는 목표가 대상 X에게 바람직하며, Y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최성진의 말을 필요문 형태로 다시 써보면 아이에겐(X), (시설이 줄 수 없고 아이들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자기 핏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Z), 친부모(Y)가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이어진 최성진의 말에서 그 필요를 채우지 않고도 훌륭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스스로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필요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크게 제한한다. 특히 이러한 문장은 아동의 수동성과 취약성에 대한 잠복한 가정인, 아이들은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 필요를 채워줄 보호자를 기다리는 ‘필요 상태’에 있는 아동의 무력함과 수동성에 대한 함축은, 이 필요를 채워줄 책임감을 강조하는 감정적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필요문의 힘은 직원들의 진술이 전제하는 바와 달리, 그러한 필요 또는 갈망이 아동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 경험적 관찰을 통해 발견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진정한 힘은 그 필요가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어질 심각한 결과에 대한 암시를 통해서 온다. 뿌리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벗어날 수 없는 “평생의 그리움”이며, 지금 충족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사례] 최성진 직원 남 40대/심충면담/2023.04.07.

그래서 저는 부모, 내 친부모에 대한 어떤 갈증은 평생 있을 거 다라는 생각을 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외면하거나 의도적으로 본인이 거부하거나 뭐 이런 거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발현될 거고, 그럼 해결이 돼야지만 된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빨리 아니면 좀 누군가가 옆에서 좀 지켜줄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시설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냥 마구잡이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정이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증이 된 상태에서 돌려보내야 되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그 핏줄에 대한 갈증은 있을 거다.

2023년 4월, 매달 둘째 주의 정기 산행 프로그램은 충남 서대산과 천태산 사이에 있는 보곡산골을 걷는 트래킹이었다. 이곳에는 수령 300년이 넘은 자전리 소나무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에 산신제를 지내고, 관광객들은 소원을 뵙고 간다. 6학년 김서준이 떠난 자리에는 가족과 살고 싶다는 바람이 적혀 있었다. 방의 생활지도원들을 엄마라고 부르며 엄마들은 물론 동생과 언니들의 생일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는 6학년 김서윤은 찾아오지 않는 아빠와의 중국 여행을 꿈꾼다. 퇴소인 최수빈도 고등학생 때 원장에게 부모님의 존재에 관해 물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서류상 생존 여부만 알 뿐이지 본 적이 없어 얼굴도 모르고 연락도 못 하는 부모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키워준 생활지도원 두 분뿐이다. 성서연은 ‘가족’이란 말을 들으면 “혈연과 DNA”를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도, 그렇게 이어진 의미로서

‘가족’은 필요 없다고 느낀다. 이처럼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질문하고 ‘갈망’하는 모습만큼, 혈연으로 이어졌지만 그 이후 이어지지 않는 관계보다는 10여년간 함께해오며 지금 도담원에서 활성화된 관계를 소중히 하는 모습도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언젠가 찾아올 것이 전제된 갈망의 논리는 지금 ‘가족’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리고 갈망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낸다.

## 제 2 절 고아 부정과 고아-됨의 의미

직원들에게 시설이 대체할 수 없는 “자기 핏줄, 정체성에 대한 부분”과 연관된 가족의 정서적 위치는 시설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경험하는 낙인감과도 연결된다. 아이들은 종종 ‘우리 집 애들’ 관계를 가족(부모)의 부정을 나타내는 기호인 ‘고아’를 통해 연결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아이들이 ‘고아’를 자칭하는 것을 보며, 낙인적 장소인 시설에서 자라는 것이 주게 되는 자기 낙인화(self-stigmatization)를 우려한다.

### [사례] 산악회 정기행사/참여관찰 일지/2022.10.09.

보통<sup>35)</sup>은 주차장에서 라면 물을 끓이는데, 여기는 주차장에서 취사하는 행위가 금지라서 버스를 타고 정차할 수 있는 갓길로 조금 이동하고 나서 다시 물을 끓였다. 갓길은 안전했지만 국도 주변이었고, 아무리 버스로 가려져 자세히는 안 보인다고 해도 도로 주변에서 30명 남짓의 인원이 라면을 먹는 모습은 이동객들이 한 번쯤 쳐다보고 갈만한 모습을 연출했다. 등산을 위한 편한 복장이었기에 대부분은 양반다리로 바닥에 철퍼덕 앉았다. 몇몇

---

35) 산악회 활동은 오전 7시에 버스로 산으로 약 2~3시간 이동해 10시부터 등산을 하고, 12시 즈음 정상이나 쉴 수 있는 정자 부근에서 싸 온 김밥을 간단하게 먹은 다음 2~3시쯤 산행을 끝내고 내려와 버스에 내장된 온수 공급장치나 쟁겨온 베너와 주전자로 물을 끓여 컵라면을 먹고는 다시 버스를 타고 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들은 쪼그려 앉아서, 몇몇은 서서 먹었는데, 중학생 이민지는 도로 쪽을 향해 앉아 있었고 고등학생 김예진은 도로를 등지고 서 있었다. 민지와 예진으로부터 다섯 발자국 정도 떨어진 자리에 초등 남자아이들이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고 생활지도원 이주원은 그들 옆에 서 있었다.

이민지: (어색한 표정으로 웃으며) 사람들이 쳐다보고 가

김예진: 민지야,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끄러워? 그게 고아들의 삶이야.

이주원: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달래는 말투로) 그렇게 말하지 마~.

연구자의 눈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가는 이유는 도로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신기하기 때문이었다. 김예진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고아들의 삶”이라고 말할 때 말투는 평이했고, 동생인 이민지를 향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생활지도원 이주원은 즉시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김예진을 타일렀다. 그 이후 대화가 더 진행되지는 않았다.

직원들은 ‘고아’를 부정하기 위해 입소 배경을 기반으로 아이들 간 이질성을 드러낸다. 자신들을 ‘고아’라고 지칭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연락을 안 할 뿐이지 낳아주신 분이 당연히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라며, “낙인감을 주는” 고아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직간접적으로 말한다.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너무 낙인감을 주니까. 솔직히 그런 용어를 스스로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애들이 뭐 ‘우리는 고아야’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고아가 어딨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네 고아의 뜻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같이 찾아주고. 고아 아니야 부모님이 있어,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안데, 너희들은 지금 연락을 안 할 뿐이지 계셔 놓아주신 분이 당연히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이렇게.

‘고아(孤兒)’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지칭한다. 이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강한 대비를 이루며 하나의 명징한 정체성 범주를 구성한다(박선주 외 2014: 49).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담원 아이들의 입소 배경을 고려한다면 아이들 대부분은 정의상 고아가 아니다. 그러나 때로 ‘보육원 아이’나 ‘고아원 아이’로 불리는 아동양육시설의 아이들은 부모가 있더라도 시설 밖에서 ‘고아’로 말해져왔다. 1990년대에 이미 널리 퍼진 ‘고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고아원’에서 ‘보육원’으로의 명칭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자라야만 한다는 전제 아래서, 여전히 시설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거나 시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시설을 ‘고아원’으로, 또는 시설 아동을 ‘고아’로 칭하기도 한다(조아현 2023: 53). 부모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부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처지를 ‘고아’로 강조한 것이다(박혜리 2019: 22). 한편 고아원에 있는 ‘고아 아닌 고아’, 즉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고아원에서 보육원으로의 명칭 변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후반 언론 기사들은 얼마나 많은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살아 있는’ 부모나 연고자가 있는지 부각하기 위해 통계 결과 수치를 인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 안의 아이들을 부모 생존 여부에 따라 ‘순수 고아’와 ‘고아 아닌 고아’ 등으로 구분해냈다(조아현 2023). 이처럼 좁은 의미의 ‘고아’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고아됨’은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된 현실 속에서 재현되는 존재성을 의미한다(박선주 외 2014: 5). 즉, 부모가 부재한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인지되고 다뤄지는지가 한국 사회에서 ‘고아-됨’의 진정한 의미다. 입소 이유의 하나로서 ‘부모 사망’이라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할 때 ‘고아’는 도담원 아

이 중 5%도 안 되지만, 부모의 부재(不在)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도담원에서 생활하거나 생활했던 이들 모두가 ‘고아-됨’을 경험한다. 직원들이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아이들이 ‘고아’라는 것을 부정하지만, 아이들이 말하는 “고아들의 삶”에서의 ‘고아’란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의 서사와 제도의 경계선 밖에 놓인 이질적인 존재로서 아동양육 시설 아동의 삶의 경험을 말하기 위해 때로 유희적으로 사용된다. 이미 3, 4장에서 살펴보았듯 아이들은 시설 생활이 주는 낙인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잘 알고 있다. 또한 2장에서 나타나듯 ‘가정에서 살다 온’ 아이나 ‘진짜 아무도 없는 아이’ 등 입소 배경의 차이 또한 짐작하고 있다. 부모가 사망한 아동은 극히 제한적일지라도, 일상적으로 체감되는 부모의 실질적 부재 상황은 아이들 간에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부모의 생존 여부와는 별개로, 다양한 이유로 지금 그들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낙인감을 주는 바로 그 동질화 기능을 위해 ‘고아’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우리 집 애들”은 외부에서 고아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고아로 이해되기 때문에 여기 오고 만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족 관계를 부정하는 기호로서 고아는 혈연가족 관계의 부정을 통해 도담원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낸다(Agha 2007).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고아’란 외부의 낙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도담원의 일상에서 짜내어진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Dilthey 1976)(터너 2014: 21쪽에서 재인용). 아동이 곧 자녀로서,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한 아동기를 보내는 것이 당연히 전제될 때, ‘자녀가 아닌 시설 아동’으로 살고 살았던 경험은 “그런 삶 자체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삶 자체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맞춰나갈 수가 없는 것”, 그런 삶을 “안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경험이다. 돌봐준 ‘엄마’가 여럿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고, 사진을 많이 찍고, 학교에서나 외출해서, 그리고 시설을 나가고 나서도 줄곧 숨겨야 하는 일상이 김예진을 비롯한 아이들이 말하는 ‘고아들의 삶’이 가진 의미일 것이다.

### 제 3 절 가려지는 퇴소 이후의 이어짐

이처럼 아이들은 ‘고아’라는 호칭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도담원 안에서 활성화된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또한 ‘가족’과 대비해 그들의 관계에 끝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상기하며 관계를 제한적인 관점에 가둔다.

[사례] 정민준 퇴소인 남 20세/심층면담/2023.02.20.

가족도 아니고 어차피 퇴소하면 거기서 끝이고.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층면담/2023.02.15.

어차피 나는 나가면 얘네들 다시는 안 볼 건데 내가 뭐 하러 그 렇게까지 마음을 쓸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물론 도담원에서 시작한 관계들은 퇴소와 동시에 “거기서 끝”이고 “나가면 다시는 안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1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구자가 지켜본 바 많은 관계들은 ‘끝’이라고 말해진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4장에서 일상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돌봄 중개자로서 아이들의 모습에 주목했다면, 여기서는 퇴소 이후에도 실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도담원 관계가 ‘나가면 끝’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이는 동시에, 이상적인 관계의 모델로서 ‘가족’과 대비됨에 따라 도담원의 관계들이 가려지고 간과되며 때로 부정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다.

도담원을 퇴소한 후, 즉 도담원을 나간 이후에도 도담원에서 시작한 관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퇴소인들이 공식적으로 도담원을 방문하는 행사는 추석과 설 명절의 ‘홈커밍 데이’이다. 그러나 공식 행사가 없더라도 퇴소인들은 다양한 빈도로 때론 불쑥, 때론 약속을 잡고 도담원을 찾아오곤 했다. 2022년 2월에 퇴소한 이후에도 임현우는 도담원

의 어린이날 행사나 산행이나 연말 후원 행사에 참여해왔다. 임현우는 사회복지사를 전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학회장으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아동보다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심이 가서 도담원에 근무할 생각은 없지만, 선생님들의 책장에 있던 책들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퇴소인 중에는 대학 전공을 사회복지학으로 정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지만 도담원에서 실습하거나 근무를 하며 “퇴소와 퇴사를 다 한” 경우도 있다.

####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2011년인가 12년에 우리 보육원을 퇴소해서, 사회복지과를 가서, 졸업해서, 우리 보육원에 취업한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지금은 장애인 복지 쪽에 가서, 거기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어.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해가면서. 퇴소와 퇴사를 다 한 애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잘 일하다가 지금 장애인 복지로 갔는데 여기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퇴소한 아이 중에 장애 쪽 문제 가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자원이 돼줘요. 내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자원이 돼줘요.

2023년 2월에는 이동현, 김준서, 강준혁, 그리고 오지영이 퇴소했다. 경중의 지적 장애가 있는 이동현은 시설장의 주선으로 서울의 한 장애인 작업장에 취직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동현이 퇴소한 이후에도 자주 그와 마주쳤는데, 생활지도원과 영양사는 반찬 좀 갖고 가라며 그의 손에 김치통을 쥐어주었다. 3월 초의 평일에는,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왔다면 A 시 인근 대학에 진학한 김준서가 불쑥 원을 찾았다. 3살 아래의 동생에게 용돈도 줄 겸 방문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입학이 다가 아니라며 졸업장도 꼭 들고 올 것과 돈을 아껴 쓸라고 당부하며 그를 배웅했다. 올해 퇴소한 이들 중에서 특히 오지영은

혼자 사는 집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 항상 여럿이 함께하던 도담원을 나감과 동시에 심한 외로움을 느끼며 홀로 있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둘째 날에 원장 차은주에게 연락해 그날부터 차은주의 집에서 잤다. 그 이후에도 먼저 퇴소한 최수빈의 집에서 자거나, 수빈을 집으로 부르기도 하고, 같은 방을 쓰던 동생인 백지민을 초대하기도 했다. 차은주가 직접 자신을 대신해 현재 휴학 중인 최수빈에게 오지영의 집에 가서 지영의 상태를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직원들의 이직 및 퇴사에 따라 퇴소인들이 도담원을 찾았을 때 아는 얼굴들이 많이 없다는 점은 퇴소 후 도담원에 방문하는 것을 꺼리게 한다. 그러나 찾아오지 않더라도, 퇴소인들은 도담원과 시설 아이들의 삶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사례] 조지훈 퇴소인 남 41세/심충면담/2022.12.15.

지금은 바뀌어서 24살? 저도 이거 뉴스에서는 봤는데요. 저희도 그런 거 꼼꼼하게 챙겨봐요.

2022년 6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 즉 퇴소 시점을 일괄적인 만 18세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999년 도담원을 나간 조지훈은 자신이 원에 있을 때에도 근무하던 전 원장이 2010년대에 떠난 이후로는 도담원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전 원장이나 함께 생활하던 이정훈과는 여전히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가끔씩 도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뉴스에서 아동양육시설이나 시설 퇴소인에 관한 소식이 나오면 꼼꼼하게 챙겨본다.

이처럼 퇴소 이후 물리적으로 도담원을 찾아오는 찾아오지 않든, 도담원에서 기원한 관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를 신경 쓰고 걱정하며 돌본다.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이 시설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 윤명숙과 박신애(2014)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결코 원하

지 않았던 부모 분리와 만 18세 퇴소 규정에 맞춰 시설을 떠나는 시설 퇴소라는 ‘재분리’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보였다. 이는 “부모 분리와 시설 분리를 분리와 재분리라는 관점에서, 재분리는 보다 더 강력한 외상일지도 모른다는 연구자들의 선이해”(ibid.: 147)와는 매우 다른 결과였으며,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시설 퇴소가 주는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도담원 아이들과 퇴소인들에게도 원가정이 아닌 시설이야말로 또 올 수 있는 장소이자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였다.

그러나 시설에서 기원한 관계를 말로 설명할 때 이러한 이어짐이 가려졌다. 왜 퇴소인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나가면 ‘끝’이라고 말할까? 이와 연관된 측면은 퇴소를 앞둔 아이들이 연장 보호를 가능한 선택지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 [사례] 차은주 원장 여 48세/심충면담/2023.03.09.

애들을 이사시켜주고 혼자 두고 올 때가 제일 안쓰럽고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그렇긴 한데, 예상은 했지만 지영이가 혼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 자기 왜 퇴소를 시켰냐, 퇴소는 네가 선택한 거야, 연장도 있는데 네가 결정하지 않았냐. 자기 왜 A시에서 안 살게 했네요. 네가 선택한 거야 그것도 집도 본인이 선택한 거고, 학교도 A 대학교도 불고 뭐 여러 군데 B대도 불고 뭐 그랬지만 [가장 멀리 있는] C 대학교를 선택한 건 너야, 본인이 선택했거든요.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다른 사람이랑 바꾸면 안 되냐고 해요.... [...] 지금 이제 적응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영이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 온대요. 그래서 어차피 2년 계약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그때도 이사 오고 싶으면,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사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그때 되면 적응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이사한단 말 안 할 거예요. 보통 처음에 이사한다고 했던 애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타지로 가는 애들이. 근데 결국에는 다시

재계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인데 조금 심하게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지영인 것 같아요.

퇴소 당일부터 혼자 사는 집에서 자는 것을 어려워한 오지영은 퇴소 전 원장과 사무국장, 자립지원전담요원, 임상심리상담사와 담당 생활지도원들이 시간차를 두고 돌아가며 퇴소를 앞둔 심정을 묻고 다양한 선택지를 말해주었음에도, 연장 보호도, 자립생활관 입소도, A 시 근처의 대학 진학도, 그에 따라 A 시 근처에 사는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물론 만기 퇴소를 앞둔 이들이 오랫동안 집단 생활을 하고 적어도 2명이 함께 쓰는 방에서 생활해오며 혼자 쓰는 방에서도 살아보고 싶어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서연은 대학을 졸업하면 원장 차운주가 알아봐 준 학사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있는 학사는 월세를 내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집단생활을 해온 성서연은 이제 한번 혼자 살아보고 싶었다.

#### [사례] 성서연 퇴소인 여 22세/심충면담/2022.11.11.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립전담선생님과도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LH가 30살까지가 최대로 지원이 되는 거고 2년 연장을 세 번을 해서 6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24살부터는 LH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셔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대학 졸업하고 LH에서 살 것 같아요. [...] 왜냐면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공동 양육시설에 있었고, 1살부터 3살까지도 그랬고, 네 살부터 스무 살 까지도 그랬고. 중간에 고등학교 기간에는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4인실에서 있었고, 그리고 퇴소하고 나서도 친구랑 같이 살았고, 지금도 한 10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또한 지금까지 일상 속에서 힘들여 수행해왔던 숨기기의 부담에서 벗

어나고 싶어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담원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숨겨야 하거나 이미 시설 아동임이 드러나 동정을 받는 상황에 놓여왔던 이들에게,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과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자유를 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주차장까지도 나가지 못하고 도담원 건물 안에만 있던 아이들 퇴소로 인한 해방감을 크게 느꼈다. 그 자유는 이제는 집단생활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에 더해진 것이었다.

####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층면담/2023.02.15.

퇴소할 때요? 행복했어요. 일단, 나간다. 그리고 제가 19살 때 코로나가 딱 터졌거든요. 2020년도에. 2019년도 말부터 2020년도에 터졌잖아요. 이때 진짜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학교랑 학원가는 거 빼고는 그냥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힘듦 때문에 나가서 이제 약간 자유로워진다는 행복이 더해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벗어났잖아요 (웃음).

여기서 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나가야만 하고, 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이 실제 수행되고 있는 관계들까지 가리고 그 관계를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관계가 갑자기 단절된다는 인식은 큰 외로움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설의 다양한 관행들이 아이들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나가면 끝’이란 때로 실제와 다른 인식이 퇴소 이전의 일상 속 안정감과 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례] 최수빈 퇴소인 여 21세/심층면담/2023.02.15.

와 재는 진짜 나가서 어떻게 살까, 약간 이런 걱정이 되는 애들도 몇 명 있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같이, 남이라 해도 같이

살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쟤는 나가면 어떡하지? 쟈는 진짜 가족 아니면 답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각자도생해야죠.

퇴소인 최수빈은 도담원에 있을 때도 계속 돌봄을 수행해왔으며, 퇴소 후에도 오지영을 포함해 동생들을 걱정하고 돌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담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생들에 대해 “가족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퇴소를 기점으로 도담원 관계의 끝을 강하게 염두에 두며, 끝나지 않는 돌봄은 가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사실로 수용한 결과이다. 적어도 도담원의 상황을 살펴보면, 시설에서 시작한 관계는 때로 혈연가족 관계보다 오래 이어진다. 그러나 “같이 살았었”지만 “남”인 도담원 관계와 달리, 사회 적응이 걱정되는 이들에게는 ‘가족’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최수빈의 말은 결국 가족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자 대체 불가능한 관계라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사례] 김현우 사회복무요원 남 24세/심충면담/2022.09.02.

(가족은) 의지할 수 있는 곳? [...] 가족은 좀 뭘가 아무리 미워도 봐야 하거나, 끊임없이 약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계속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사례] 김준호 후원봉사자 남 48세/심충면담/2022.12.12.

연구자: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김준호: 끊어지지 않는 거? 가족은 안 봐질 수 없는 거.

[사례] 유지혜 실습생 여 30대/심충면담/2022.08.25.

저도 처음에 가족이란 혈연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원장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같이 생활하며 엄마 엄마 편하게 부르고… 꼭 혈연관계만 아니더라도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역할이

**있는 거를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 여기서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퇴소한 아이들을 관리해주고 뭐 아이들 결혼, 출산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고 말은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진짜**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가족처럼 하는 건데 이게 또 쉽게, 진짜 내 혈연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쉽게 다 될까라는 생각을.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체를 통해서만 “너무 어둡고 부정적”인 “보육원”을 접해온 유지혜는 한 달 동안의 실습으로 “너무 밝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은” 아이들을 보며 “내가 생각하던 거랑 틀리”라고 느꼈다. 또한 이전에는 “혈연관계”만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역할이 있는 거를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느꼈다. 이상적으로 가족이란 “끊어지지 않는” 관계,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이며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계속 지원”해주는 관계이다. 즉, 가족은 관계나 지원 범위의 “끝”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의 가족은 기본적으로 혈연관계를 전제한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혈연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도담원으로 온 아이들을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한 혈연가족의 구성원은 관계에서 풀려날 수 있으며, “아무리 미워도 봐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 봐질 수”도 있으며, 다른 가족에 편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습생 유지혜에게 여전히 “진짜 내 혈연이 아닌데”도 퇴소인들의 결혼이나 출산까지도 “정말 가족처럼” 지원을 하는 것은 의심스러웠다. 아낌없는 지원은 “정말 가족”이자 “진짜 내 혈연”일 때 정당화되며, 또한 가족은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된다.

실로 ‘나가면 끝’과 연관된 문제 제기 이후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비롯해 퇴소 후 지원과 연장 보호와 같은 제도가 보장하는 관계의 이어짐이 보강되었다. 부모로부터 한 번, 그리고 시설에서 또 한 번, 이를바 “두 번 벼려진 아이들<sup>36)</sup>”로서 퇴소인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문제로

---

36) 1990년도부터 2022년 중반까지, 제목에 시설과 ‘벼려진’을 포함하는 기사가 13건 있었다. 설 연휴 앞두고 모진 모정/고아원에 갓난 남매 벼려(난류한류) (세계일보 1996.02.17); “고아원에 내팽개친 아버지” 10대 아들이 양갈음 살해 (문화일보

지적되며 2000년대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2007년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시설에 배치되어 퇴소 후 5년 간 사례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2000년대 중반에 경기도에 시범 사업이 도입된 이후 2011년 전국에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이 정착되었다. “보육원을 나서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다루는 기사를 역시 2010년대 들어 더욱 증가했다. 이 당시 기사에서 퇴소인들은 주로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조명되었다(조아현 2023: 59, 63). 이처럼 2010년대 이후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보도와 연구는 퇴소인이 겪는 어려움에 집중되었으며, 정책적으로는 특히 경제적 지원이 확충되어왔다. 2012년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으로 자립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 따라 2019년 5월부터는 자립 수당이 신설되어 보호 종료 5년 이내 퇴소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했으며, 2022년 8월에는 5만 원 인상되어 매월 35만 원, 그리고 현재는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2007년 신설된, 만기 퇴소인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5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2023년 경기도에서는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2010년대 아래 시설 퇴소인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이 부각되고,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이 퇴소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집중된 배경에는 성인기 이후에도 자녀를 지원할 가족의 기능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측면이 기여했다. 2016년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연구」(문무경 외 2016)에 따르면,

---

2001.12.22); 아이 버린뒤 ‘되찾은 모정’ - 보육원에 “돌려달라” 탄원 경찰 선처 (문화일보 2004.02.02); “어쩐지 닮았더라”/ 따로 버려져 같은 보육원 생활-남매, DNA검사로 “핏줄” 확인 (한국일보 2004.08.17); 두 번 버려진 아이들 <중> 보육원이 더 좋아요 (중앙일보 2009.01.15); ‘버려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가정 파탄.가난 등 이유로 보육원에 맡겨져 (한겨레 2009.09.03); 입양특례법 개정 후 실태 인터넷서 ‘아기 거래’ 불법입양, 보육원엔 버려진 아기들 급증 (국민일보 2013.01.05); ‘마이웨이’ 박일준 “세 살 때, 생모가 고아원에 버리고 가”(세계일보 2017.08.25); 정신장애인을 ‘코피노’라고 속여 팔리핀 고아원에 버린 한의사 부부 (조선일보 2019.07.17); 아이들 돋는 보육원 선배들 “버려진 아픔 아니까요” (조선일보 2021.02.04); 보육원 버려졌던 아이, 보육원 ‘희망 셀’으로 (동아일보 2021.05.15); 18세 아이 낳고 보육원 버린 아들 서장훈 “무책임, 천벌 받을 것” 분노 (세계일보 2022.01.18); ‘가출’해도 찾지 않는 보육원 아이들 ‘버림받음의 반복’ (세계일보 2022.06.21).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평생 동안 언제라도(33.4%), 대학입학 전까지(19.5%), 그리고 대학 졸업까지(17.2%) 순으로 나타나, 부모들은 자녀를 언제까지라도 정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인식이 직원들이 가족과 시설을 ‘뿌리에 대한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 역량 측면에서 대비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부모들의 생각을 2008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2008년에는 ‘대학입학 전까지’, 혹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3.8%였던 반면, 2016년에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혹은 ‘취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2.9%로 자녀를 더 장기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했다(문무경 2017).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혹은 ‘평생 동안 언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2016년에 더 증가하여, 결혼 후에도 원가정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도담원에서 생활한다. 만 18세 이전의 충도 퇴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퇴소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는 사실상의 ‘영구적 배치’가 되는 와중에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나가면 끝”이라고 말해진다. 반대로 “평생 동안 언제까지라도”라는 이상과 달리, 가정에서의 돌봄도 다양한 시기에 떠남과 상실, 즉 끝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설처럼 항상 끝을 염두에 두고 일상 용어에 끝이 포함되진 않는다. 시설의 일상 속에 끝이란 용어가 만연해진 것은 퇴소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촉발되면서 자립 지원과 준비가 시설의 중요한 기능으로 드러난 변화와 연관된다. 현장에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을 위한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인 「2022년 자립지원 업무메뉴얼」은 자립을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서 자기-충족 적이고 상호-협력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로, 자립지원사업을 원가정 외 보호체계 아동이 자립생활 능

력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보호종료를 준비하여 성인기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치직후부터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매뉴얼은 자립 지원의 필요성을 “자립은 모든 아동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일반가정의 아동은 성인기에 도달했는데도 자립하지 못하면 부모나 가족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립이 자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대상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일찍”, “자립준비정도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나이에 기초하여 보호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9).

3장에서 시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시설에 산다는 것을 왜 숨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기보다는 숨기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지는 상황이 관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현실적으로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자립이 더욱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립지원과 준비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일반가정과의 차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만들어지고 인식 상의 차이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립 준비를 위해 방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에는 “우리는 퇴소를 해요”라거나 “집 떠나기”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한다.

#### [사례] 김성민 직원 남 41세/심충면담/2022.12.30.

김성민: 일단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퇴소를 해요’라는 말이 있었어요.

연구자: 프로그램 마지막쯤에요?

김성민: 그러니까 퇴소할 때쯤… 퇴소 앞두고 ‘집 떠나기’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행 가는 게 아니고 퇴소 준비하는 프로그램인데, 전·월세의 개념이라든지 부동산 용어들이 나오고. 또 돈 관리 기술이라고 그래서 뭐 예·적금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올 때 좀

어려워하죠. 근데 보통 그 나이대 아이들이 가정집에서 는 예·적금의 개념 정도를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전·월세 개념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 아이들 처럼 정말 내가 가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립 준비 역시 가능한 프로그램처럼 안 느껴지게 생활지도원들이 일상 속에서 교육하지만, 특히 중학교 이후에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퇴소에 대한 상담과 전·월세 개념 등의 교육과 준비는 ‘끝’이 머지 않았다는 인식과 떠나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인지하게 한다. 이러한 점이 연장 보호를 선택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만기 퇴소’인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설에 더 머물 수 있도록 변화되었지만,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며, 나가면 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연장보호제도가 2022년에야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만큼, 도담원에서 아직 연장 보호가 이뤄진 적이 없는 상황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과 2022년 이후에 퇴소한 이들이 연장 보호를 선택지로 고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의 제약에서 오는 답답함을 크게 느껴온 점이 성인기를 앞둔 아이들이 연장 보호를 고려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도담원의 돌봄과 관계에 대한 때로 실제와는 다른 인식이 도담원의 돌봄 관계를 제약하고 있으며, ‘끝’이 없다고 간주되는 가족과 ‘끝’이 있는 시설 관계의 대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퇴소 선택과 퇴소 이전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뿌리’와 ‘고아’에 대한 구성원에 따른 상이한 수용과 그에 따른 제재, 퇴소 전 자립 준비의 일상화를 통해 강화된 가족과 대비되는 ‘끝’에 대한 인식들이 서로 맞물리며, 시설 관계와 가족, 시설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사이의 다양한 현실이 가려지고 이상적인 ‘가족’에 근거해 시설과 가족의 경계가 공고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 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2020년대 한국의 아동양육시설이 가정이라는 아동 양육의 상징적·규범적 장소와 비교되어 오며 어떻게 일상을 수행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도담원이라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시설이라는 장소와 그 안에서 맺는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도담원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고, 실습하거나 봉사하고, 퇴소하거나 퇴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어온 구성원들에게 도담원은 어떤 장소였는가?

도담원의 일상은 ‘아무리 나쁜 가정이라도 시설보다 낫다’는 시설과 가정 사이 일방적 대립 구도를 흔든다. 하지만 아동 돌봄과 일상 수행의 장소로서 집-가정-가족이 (집단)시설과 대비되고 전자가 시설의 목표로서 추구될 때, 오히려 도담원에서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돌봄과 관계를 가려 정상 가족이 대체 불가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3장에서는 생활 공간으로서 가정-집과 시설이 대비되는 모습에 주목했다.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전제를 수용한 바탕에서 도담원이라는 시설에서는 “시설스러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 왔다. ‘시설스러움’은 한 방에 대여섯 명이 같이 자던, 공간 증축 및 인원 감축 이전의 도담원 공간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인 현재의 도담원 공간은 구성원들이 시설과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직원들은 방의 인원 축소와 각 방 사이의 명확한 분리를 근거로 현재의 도담원 공간이 가정집과 더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공간 분리는 전체가 하나의 집이던 도담원 구성원들 간 교류를 더 어렵게 만들어 아이들과 퇴소인들은 “가족 같은 느낌”이 없어졌다고 인식했다. 구성원들이 도담원 공간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비유들은 서로 다른 장소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가정형 공간의 조성이라는 목표가 구성원들에게 다르게 체감된다는 것을 드러냈다.

4장에서는 아동 돌봄을 수행하는 단위로서 가정과 직장 사이 대비에 주목했다. 직원들의 돌봄 노동이 수행되는 장소로서 도담원은 ‘일반 직장’과 ‘일반 가정’에 끊임없이 비교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교대 근무와 이직으로 인해 바뀌는 도담원의 엄마들은 ‘일반 가정’의 영구적인 엄마와 대비되어 아동의 안정을 해치는 조건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편 이직을 줄이기 위한 ‘일반 직장’과 같은 근무 조건 개선은 아동 친화적이지 않다고 우려된다. 분명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함께 한 엄마의 떠남, 즉 직원의 이직 또는 퇴사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아이들은 많은 직원이 이직하는 배경으로서 이곳이 일하기 힘든 직장이라는 것을 이해한 채 이별을 다양한 강도로 받아들인다. 여러 사람이 머무는 만큼 떠나보내는 일도 많지만, 도담원에서 시작한 관계는 퇴사나 퇴소 이후에도 도담원을 매개로 지속되었다.

5장에서는 돌봄을 이어 나갈 관계로서 가족관계와 시설관계가 대비되는 양상에 주목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도담원에 오는 이유인 가정 내 학대는 가정을 반드시 아동에게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직원들이 가진 가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아이들이 갖는다고 인식되는 ‘뿌리에 대한 갈망’으로 통합된다. 뿌리 또는 핏줄에 대한 추구가 자연적이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갈망’의 논리는 ‘보육원이 집보다 낫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혈연을 대체 불가한 관계로 본질화한다. 시설이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되는 가족의 위치는 시설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경험하는 낙인감과도 연결된다. 직원들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낙인을 우려하며 아이들이 고아라는 것을 부정했다. 입소 이유의 하나로서 ‘부모 사망’이라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할 때도 고아는 도담원 아이 중 5%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은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의 서사와 제도의 경계선 밖에 놓인 이질적인 존재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삶의 경험을 말하기 위해 때로 유희적으로 고아로 서로를 호명했다. 실제로 많은 도담원 아이들과 퇴소인들에게 원가정이 아닌 도담원이야말로 또 올 수 있는 장소이자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망이었으나, 아이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결국

“나가면 끝”일 관계라고 제한했다. ‘끝’이 없는 가족과 ‘끝’이 있는 시설 관계의 대비라는 때로 실제와는 다른 인식이 도담원 관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이것이 퇴소 이전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도담원의 일상과 돌봄 실천은 아동양육시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이자, 보다 가정에 가까운 장소가 되기 위해 향하는 과정이다. 다른 가족들의 수행만큼이나 아이들의 가족이자 가정, 집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도담원의 돌봄, 일상 수행들 자체가 그 수행의 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으로 말해지는 정상 가족에 대한 이상이 공고하게 남아있는 한, ‘집-가정-가족’이 되기 위한 도담원의 노력들은 아마도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집-가정-가족들의 현실과 시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호성 자체가 아니라, ‘안정된 가정환경’의 절대적 우위 아래 경계가 모호하다는 사실이 계속 가려지고 부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담원이라는 시설 안에서 시설이 아닌 집과 가정, 가족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말해질 때, ‘시설스러움’을 없애기 위한 관행들은 시설과 가정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클 수 있는 시설 간의 차이, 가정 간의 차이들을 가리면서 수행된다. 나아가 시설 안의 차이들, 즉 해당 장소에서 적응해 오며 구성원들이 갖게 된 서로 다른 장소감을 가리기도 했다.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가족주의가 구성원들에게 시설 관계를 실제보다도 부족한 것으로 깎아내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대피해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을 오랫동안 보호하고 돌보는 노하우를 구축해온 아동양육시설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특히 시설보호는 아이들이 관심을 주고받을 많은 성인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적절한 애착 대상을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Keller 2020; Steels & Simpson 2017). 또한 학대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 또는 반대로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폭행했던 부모를 다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아동 중심적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세운 보호조치 상의 위계를 따르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안

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류정희 외 2021: 276). 진정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장소에서의 일상적 돌봄 관계가 펼쳐지지 않는 것이며, 이는 시설 안에서의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시설에서의 삶이 언제나 시설이라는 장소와 시설에서 기원한 관계를 숨기라고 종용하는, 시설 밖에서의 인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정이 부재한다는 것은 아동기는 물론이고 아동기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큰 어려움으로 경험된다. 특히 끊임없이, 아낌없이 헌신하는 가족에 대한 이상 속에서 가족이 없다는 것이 주는 공포와 낙인, 그리고 이것이 숨겨야 마땅한 약점이라는 인식은 더 커진다. 1950년대에 설립된 ‘고아원’에서 2020년대의 보육원 또는 아동양육시설로 존재하면서 도담원이라는 아이들의 집은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여전히 ‘집’ 밖에서는 ‘집’과 관계된 어떤 것이든 기본적으로 숨기는 편이 낫다. 언제 시설에서 살았던 지와 거의 무관하게, 좋은 ‘집’은 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티 내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즉 ‘숨기기 좋은’ 시설이었다. 구성원들은 이곳이 나와 우리에게 좋은 ‘집’이든 아니든, 어쨌든 사람들 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산다는 것은 ‘굳이’ 드러내서 좋은 것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학교라는 주요 환경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숨기기의 부담과 드러남의 공포 문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강현아·이종은 2018; 장혜림 외 2017),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다.

본고의 서론과 본론 4장에서도 제시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설인식개선 목적의 행사에서, 교사들은 교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것이 전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할 때,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런 자리들이 있어야 했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아동보호전담기관 등 중앙기관 차원에서 시설 생활인에 대한 낙인감 해소를 위해 올바른 인식과 캠페인, 시설에 대한 미디어 재현 방식에 관해 꾸준히 감독하는 등의 노력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안은미·정의중 2019).

실로 끝이 없고 아낌없이 지원하는 가족에 대한 이상은 현실의 다양한

역량을 가진 가족이 지는 부양의 부담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 부담은 종종 가족의 위기로 이어지고, 가족들은 때로 해체와 구성원의 상실을 겪는다. 시설 돌봄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돌봄 종사자와 시설에 개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만, 돌봄을 둘러싼 공적 담론을 바꾸는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Buch 2018). 돌봄 종사자, 특히 생활시설 노동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노동에 대한 허탈감과 소진을 완화해야 한다. 왜 그렇게 이직을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가정보다 불안정한 환경이 되도록 하는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직률이 높은 노동 조건 속에서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노동을 지속하도록 하며,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노동하도록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아동양육시설의 구성원들에게만 부담되어온 낙인에 대한 소명·해명 부담을 이제 시설 밖의 사회가 함께 부담 할 차례다. 그 대신 구성원을 부양할 부담 역시 가족 밖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분담할 수 있으며, 이제껏 때로 가족 이상으로 분담해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담원의 관계가 가족이라고 주장하거나 도담원 관계와 혈연가족 관계 사이의 우위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구성원들이 도담원의 관계를 말할 때는 언제나 실제 또는 이상적 ‘가족’이 투영되어 말해진다는 것과 도담원 구성원들의 관계됨, 그리고 아이들의 원가정 관계가 복잡하고 매우 가변적이며, 종종 어렵고 상충하는 감정을 생성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 [사례] 정민준 퇴소인 남 20세/심층면담/2023.02.20.

**정민준:** 어른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아이는 아직은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아이일 때는 주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건 불변의 법칙. 진짜 주변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 환경은] 약간 아쉽고 불우하다.

**연구자:** 어떤 점에서 아쉽다고 생각해요?

**정민준:** 시설은 아니고 부모님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시설까지 안 갔을 것 같아요.

도담원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질문했을 때, 퇴소인 정민준은 도담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좋았고 나쁘고보다도, 자신이 태어난 가정이 다른 “일반적인 가정”이었다면 “시설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즉 ‘일반 가정’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환경으로 전제되며 도담원과 대비되며 도담원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애초에 도담원으로 오게 된 이유로서 원가정과 대비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90% 이상의 아동에게 혈연가족이 있음에도 대부분이 만 18세 이후 만기 퇴소를 하는 현재 도담원의 상황은 영구적인 부모 자녀 관계의 이상을 방해하며 대조적으로 혈연을 포함한 모든 유대 관계의 유연성을 강조한다(Wasmey 2008). 그러나 또한 구성원들이 겪는 가족 경험의 다양성은, 도담원 구성원들에게 도담원 관계가 혈연가족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도담원 직원들은 일상에서 가정을 대체하고 가정의 모습을 최대한 모방하면서도, 또한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원(原)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은 엄마나 고아라는 호칭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혈연이 아닌 지금 도담원 안에서 활성화된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동시에 ‘끝’이 없다고 간주되는 가족과 ‘끝’이 있는 시설 관계를 대비하며 나가면 끝인 관계로 제한했다. 일상 속에서 도담원 구성원들에게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에 대한 인식은 아동과 돌봄에 대한 개념, 아동과 직원, 후원자 사이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혈연가족과 동일한 집에서 거주하며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돌봄 받으며 살아가는 경험이 전형적인 사회에서, 시설에서 거주하는 이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혈연가족의 중요성은 그들이 가진 혈연에 대한 자연적 본능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 사회가 비전형적 삶을 살아가는 이에 대해 무지하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형성을 끊임없이 숨겨야 한다는 부담을 일상 속에서 지속해온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담원에서 혈연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피로

이어진 가족 구성원이 한 가족에서 풀려나 다른 가족에 편입되는 것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담원의 사례가 모든 아동양육시설의 관계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화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자가 만난 도담원 구성원들은 도담원을 잘 운영되는 시설로 보고했으며, 직원들도 그러한 점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다. 다른 아동양육시설 연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담원의 사례연구는 그 자체로 시설과 가정의 차이만큼이나 시설 간의 차이도 볼 수 있음을 보이는 한 사례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잘 운영되는(well-run)” 시설의 사례연구가 드물었다는 점(Huynh 2014)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시설의 일상이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시설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여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부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커졌을 수 있음을 상기할 때, 앞으로도 다양한 시설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다양한 장소감에 주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장인화. 2021. “홈리스의 가족(해체)경험으로 본 ‘홈home’의 의미”. 아시아여성연구, 60(1), 7-39.
- 장현아 · 이종은, 2018.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학교생활 경험”.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34-558.
- 권명아. 2021.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 권지성 · 김정득 · 상혜진. 2006. “아동양육시설 보육교사 2교대 제도에 따른 시설 내 변화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115-142.
- 권지성. 200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아동과 권리 11(1), 1-29.
- 권지성 · 정선숙. 2009.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229-253
- 김경희 · 강현아 · 안소영. 2009. “시설아동의 현황 및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 30(6), 405-441.
- 김동춘. 2020. 『한국인의 에너지, 가족주의』. 피어나.
- 김미영 · 최정숙. 2022.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자의 자립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적기업 (주)브라더스키퍼 참여자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1), 3-35.
- 김서현 · 임혜림 · 정익중. 2015. “아동양육시설 남성 생활지도원의 직무 경험: 뮤비우스의 띠 위를 걸어가는 남자들”. 사회복지연구 46(3), 179-213.
- 김유경. 2018.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대근무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66, 5-23.
- 김정은 · 이상록. 2018.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직업존중감의 영향”. 사회과학연구 34(4), 147-175.
- 김진숙 · 정선숙 · 정선영 · 강지영. 202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복귀체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회과학연구

- 15(1), 91-128.
- 김희경. 2017.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아시아.
- 도린 매시 (정현주 역). 2015.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류도향. 2022. “열린 가족과 진보적 장소감”. 인문학연구 120, 215-240.
- 류정희 · 이상정 · 이주연 · 권지성 · 김진석 · 이현주. 2021.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주연 · 손유경. 2017. “사회복지사의 소진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 미래사회복지연구 8(2), 65-94.
- 문무경 · 조숙인 · 김정민.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2017.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육아정책연구소. 6-16.
- 매들린 번팅 (김승진 역). 2022. 『사랑의 노동 : 가정, 병원, 시설, 임종의 침상 곁에서, 돌봄과 관계와 몸의 이야기』. 반비.
- 박선주 · 오경환 · 홍양희. 2014. 『고아 족보 없는 자』. 한양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기획, 책과 함께.
- 박신애. 2016.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혜리. 2019. “1970-80년대 소년소녀가장 담론과 ‘정상가족’ 기획”.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9. 『사회복지시설 표준근로형태 가이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2년 자립지원 업무메뉴얼』.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빅터 터너 (김의두 · 이기우 공역). 2014. 『빅터 터너의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민속원.
- 소현숙. 2007. “경계에 선 고아들- 고아문제를 통해 본 일제시기 사회사

- 업”.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3, 107-141.
- 신유정. 2021. “돌봄과 모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27(1), 201-238.
- 안수란 · 권영지 · 김지민 · 김태은 · 류진아 · 조영림 · 하태정. 2020.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381, 1-11. <https://doi.org/10.23064/2020.04.381>.
- 안준희. 2014. “‘함께하기’와 ‘자아’ 사이에서: 한국 중산층의 사회화에 나타난 혼란과 모순”. *한국문화인류학* 47(1), 173-205.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이세원. 2020. “아동에게 윤리적인 연구인가? 아동 대상 연구에 대한 성찰”. *학교사회복지* 52, 29-51.
- 이용교 · 안희란. 2021. “시설퇴소 청년의 인간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65, 129-168.
- 이용숙 · 이수정 · 정진웅 · 한경구 · 황익주. 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일조각.
- 임민정 · 우민지 · 백지혜. 2019. “보육교사에 대한 신문기사와 TV뉴스의 담론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3(3), 59-86.
- 윤명숙 · 박신애. 2014. “퇴소를 앞 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재분리 준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4), 133-155.
- 장경섭. 2018. “가족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사회재생산 위기의 미시정치경제적 해석”. *사회와 이론* 32, 189-218.
-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7, 9-42.
- 정소희. 2021.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애착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 정정호 · 정익중. 2012. “요보호 아동의 표류(drift)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9, 181-212.
- 정향진. 2014. “담임학급제도에서 나타나는 가족비유와 가족주의 : 지속과 변화”. *비교문화연구* 20(1), 157-189.

- 정현목. 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107-141.
- 조상미 · 정희수 · 한예선. 2020.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조건: 무엇이 변화되고 그 경험은 어떠한가?”. *한국사회복지학* 72(3), 85-107.
- 조아현. 2023. “1990년 이후 한국 아동양육시설 보도의 명칭 변화 분석: ‘고아원’에서 ‘보육원’으로”. *가족과 문화* 35(1), 36-73.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 최경옥 · 김수정. 2018. “그룹홈 퇴소 청소년의 자립 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44(3), 211-245.
- 최아라. 2020. “코로나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인문사회* 21, 11(4), 1379-1390.
- 최윤경 · 김근진 · 정익중 · 최영 · 송신영.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재구조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채효정. 2020. “누가 이 세계를 돌보는가?-코로나 이후 돌봄의 의미와 가치의 재구성을 위한 단상”. *오늘의 문예비평* 32-50.
- 황수연. 2018.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30대 성인들의 시설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0(4), 7-35.
- Agha A. 2007. *Language and Social Rel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 Bejenaru, A. and S. Tucker. 2014. “Challenging dominant representations of residential childcare in Romania: an exploration of the view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living in the care system”, *Journal of Youth Studies* 17(10), 1292-1305.
- Black, S. P. 2018. “The Ethics and Aesthetics of Car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7(1), 79-95.
- Bowlby, J. 1953.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A Summary of a Report Prepa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the Importance of Mother-Love in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Character and Personality and the Problem of the Motherless Child*, abridged and edited by M. Fry. Harmondsworth, UK: Penguin Books.

- Boyden, J. 2015. "Childhood and the policy makers :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globalization of childhood". In James, A., & Prout, A. (Eds.),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Childhood: Contemporary issues in the sociological study of childhood* (3rd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745008>.
- Bresnahan, M., and Zhuang, J. 2016. "Detrimental effects of community-based stigm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0(11), 1283-1292.
- Buch, E. D. 2018. *Inequalities of Aging : Paradoxes of Independence In American Home Care*. New York University Press.
- Buchbinder, M., J. Longhofer, T. Barrett, P. Lawson and J. Floersch. 2006. "Ethnographic approaches to child care research: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4(1), 45-63.
- Butler, A., Schafran, A., Carpenter, G. 2018. "What does it mean when people call a place a shithole? Understanding a discourse of denigra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ublic of Irelan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3(3), 496-510.
- Butler-Warke, A. 2021. "There's a time and a place: temporal aspects of place-based stigma",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56(2), 203-219.
- Calheiros, M.M., Garrido, M.V., Lopes, D., Patrício, J.N. 2015. "Social images of residential care: How children, youth and residential care institutions are portraye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5, 159–169.

- Clackson, A. M., S. Lindsay and A. D. MacQuarrie. 2007. “The homes from hell? Media perceptions of residential child care”. *Scottish Journal of Residential Child Care* 5(1), 25–36.
- Dorrer, N., McIntosh, I., Punch, S and Emond R. 2010. “Children and food practices in residential care: ambivalence in the ‘institutional’ home”, *Children’s Geographies* 8(3), 247–259
- Franklin, B. and G. Lavery. 1989. “Legislation by tabloid?”. *Community Care* 23, 26–29.
- Freymond, N. 2003. *Child placement and mothering ideologies: Images of mothers in child welfare* (Rep., 1–86). Waterloo, ON: Wilfrid Laurier University, Partnerships for Children and Families Project.
- García-Sánchez, I.M. 2018. “Children as Interactional Brokers of Car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7, 167–184.
- Goffman, E. 1961.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 and other inmates*. NY: Anchor Books.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wenzi, G. D. and J. Ringson. 2023. ““Why would they call me an orphan when I have parents”: Care leavers’ experiences of labelling and stereotyping whilst living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in Zimbabwe”. *New Ideas in Psychology* 68, 1–8.
- Horgan, M. 2020. “Housing Stigmatization: A General Theory”. *Social Inclusion* 8(1), 8–19.
- Howell, S. 2009. “Adoption of the Unrelated Child: Some Challenges to the Anthropological Study of Kinship”.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8(1), 149–166.
- Huynh, H. V. 2014. “New directions in orphan and vulnerable children

- policy and research: A focus on supporting “suitable” institutions when placement is “necessary” for a chil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4(4), 387-394. <https://doi.org/10.1037/h0099847>.
- Keller, H. 2020.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cross Cultures”. *Annual Review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 27-46.
- Kendrick, A. 2013. “Relations, relationships and relatedness: Residential child care and the family metaphor”.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8(1), 77-86.
- Kitzinger, J. 2015. “Who are you kidding? : Children, power, and the struggle against sexual abuse”. In James, A., & Prout, A. (Eds.),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Childhood: Contemporary issues in the sociological study of childhood* (3rd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745008>.
- Kuznetsova, T. I. 2005. “Social stereotypes of the perception of graduates of children’s homes”. *Russian Education and Society* 47, 19-30.
- Mattingly, C. 2014. *Moral Laboratories: Family Peril and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Univ of California Press.
- Mayeza, E. 2017. “Doing Child-Centered Ethnography: Unravelling the Complexities of Reducing the Perceptions of Adult Male Power During Field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6, 1-10.
- Meade, R. R. 2021. “Territorial stigmatization in theory and practice, and its implications for community development: an introduction to the themed sectio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56(2), 191-202, <https://doi.org/10.1093/cdj/bsab002>.
- Moore, R. S. and Moore, D.N. 1977. *Better late than early*. McGraw-Hill.

- Prout, A. and James, A. 2015. "A new paradigm for the sociology of childhood?: Provenance, promise and problems". In James, A., & Prout, A. (Eds.). 2015.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Childhood: Contemporary issues in the sociological study of childhood* (3rd ed.). Routledge.
- Riggs, D. W., D. King, P. H. 2009. "Children Out of Place",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3(3), 234-248.
- Scott, S. 2010. "Revisiting the Total Institution: Performative Regulation in the Reinventive Institution", *Sociology* 44(2), 213-231.
- Slater, T. and Anderson, N. 2011. "The reputational ghetto: territorial stigmatisation in St Paul's, Bristol",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7, 530-546.
- Steels, S. and Simpson, H. 2017. "Perceptions of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Home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7(6), 1704-1722, <https://doi.org/10.1093/bjsw/bcx107>.
- Stockholm, A. 2009. "Forming identities in residential care for children - maneuvering between social work and peer groups". *Childhood* 16(4), 553-570.
- Thorne, B. 1993. *Gender play: Girls and boys in school*. Buckingham,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Wacquant, L. 2007. "Territorial stigmatization in the age of advanced marginality Thesis", *Eleven* (91), 66-77.
- Wacquant, L. 2008. *Urban outcasts: a comparative sociology of advanced marginality*, Polity Press, Cambridge.
- Waddoups, A.B. Yoshikawa, H. Strouf, K. "Developmental Effects of Parent-Child Separation". *Annual Review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 387-410. <https://doi.org/10.1146/annurev-devpsych-121318-085142>

- Walmsley, E. 2008. "Raised by Another Mother: Informal Fostering and Kinship Ambiguities in Northwest Ecuador". *The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nthropology* 13(1), 168-195.
- Wästerfors, D. 2012. "Analyzing social ties in total institutions". *Qualitative Sociological Review* VIII(2), 12-27.
- West, A. 1999. "They make us out to be monsters: Image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are." In Franklin, B. (Eds.), *Social policy, the media and misrepresentation*. 253-267. London: Routledge.
- Whetten, K. Ostermann, J. Whetten, R. A. Pence, B.W. O'Donnell, K. et al. 2009. "A Comparison of the Wellbeing of Orphans and Abandoned Children Ages 6-12 in Institutional and Community-Based Care Settings in 5 Less Wealthy Nations". *PLoS ONE* 4(12), e8169. doi:10.1371/journal.pone.0008169.
- Woodhead, M. 2015. "Psychology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children's needs". In James, A., & Prout, A. (Eds.),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Childhood: Contemporary issues in the sociological study of childhood* (3rd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745008>.
- Woronov, T. W. 2007. "Performing the Nation: China's Children as Little Red Pioneers". *Anthropological Quarterly* 80(3), 647-672.

## Abstract

# Building a ‘Home’, Not a Facility

- An Ethnographic Study on a Childcare Facility  
in Korea -

Ahyun Cho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reveal how child care facilities in Korea in the 2020s have been compared with the home, the symbolic and normative place of childrearing, and how they perform the daily life.

Sense of place refers to a comprehensive sense in which the subject experiences the place to which he or she belongs as an inside separated from the outside, and is a concept that emphasizes the attachment felt to the place and the sense of security felt as an internal member. Members of a child care facility also feel a sense of security within the facility and experience a sense of belonging as a member of the facility. However, members are always conscious of the prejudice against the facility in their daily lives and form a sense of place refracted by the external prejudice while forming a strategy to respond to such prejudice. In order to emphasize this point, the researcher refers to the sense of place formed by the members of

child care facilities through their daily life in the facility as ‘stigmatized sense of place’.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understand how members perceive the place of the facility and the relationship they have within it, and through what process they come to recognize it.

To this end, the researcher conducted an anthropological field study from May 2022 to June 2023 at the ‘Dodamwon,’ a child care facility in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major members of the facility, including children and employees,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bu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hildren and their specific daily experiences. It also included various actors who made up their daily life at the facility together, including those who left the facility, volunteers, and social welfare trainees.

Efforts have been made to eliminate the “facility-like” sense in the Dodamwon based on the premise that children should grow up at family home. The effort to eliminate the “facility-like” sense of the Dodamwon is also the result of adapting to the continuous demand for abolition toward the facility. However, the current Dodamwon space, which is a result of the staffs’ continued efforts to eliminate the facility-like sense, is understood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its members understand the facility and the home. Based on the reduction of number of people in the room and the clear separation between each room, the staff recognized that the current Dodamwon space is more similar to a family home. However, the separation brought the entire family from a single house(Dodamwon) to the so-called a house inside the house and a family within the family, and mad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embers of one family and the other more difficult, leading to the elimination of the overall “family-like sense.” The different comparisons depicting the changed space reveal that the goal of creating a ‘home-type’ space touches differently to the

members and reflect a different sense of place about the facility.

The contrast between the facility and the home reflects the ideal of the ‘mother’ as the child’s primary caregiver. Given that the presence of an unchanging mother is essential to the child’s mental health, the changing mothers was a deep-rooted concern and the shift and turnover of employees were feared that they can harm the stability of the children. Evidently, for the children, the departure of a mother who has been with them for a long time, that is, the transfer or resignation of a staff, comes as a shock. But at the same time, the children understand well that it is a difficult place to work as a background for many staff to leave. As many people stay, they often leave, but the relationship that started with Dodamwon sometimes continue through Dodamwon even after they leave the workplace or leave the facility.

The ‘general home’, which is premised on the best environment for children, is a place in contrast to Dodamwon and at the same time the goal that Dodamwon aims for. However, on the other hand, ‘general home’ was also a place that contrasted with the children’s original home as the reason why children came to Dodamwon in the first place. As Dodamwon’s staff face the families of the children whom they call their original home, or because the children are unable to meet them despite constant contact, the staff also think that the home is not necessarily an ideal environment for the children. The occurrence of abuse in the home is an increasing factor to the negative feelings of the home in that the home is an unstable environment for the children, but the negative feelings of the home is sealed by “the sense of affection that they are their own parents” that children are perceived to have. The unfulfillable vacancies of a family are expressed in terms such as “the thirst for blood relationship,” “longing

for roots,” and “longing for existence.” The logic of ‘longing’ that the pursuit of the root or blood relationship is natural and that it cannot be escaped until it is met, conceals the voices of the children who say that they don’t need a “family” now and makes the longing something that they cannot evade from. To the staff, the family’s emotional position is also linked to the sense of stigma that the children experience by living in the facility. Children often connect to the relationship of ‘the children of our home’ through the symbol ‘orphan,’ which is a sign of denial by family (parents). But when the staff saw the children calling themselves ‘an orphan,’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self-stigmatization of growing up in a stigmatic place. Given the narrow concept of ‘parental death’ as the reason for admission, an ‘orphan’ occupies less than five percent of Dodamwon’s children, but everyone who has lived or lived in Dodamwon experiences ‘being orphaned’ according to various ways of understanding their parents’ absence. Although the staff denied that the children were ‘orphans’ based on whether their parents were alive or not, but the children often playfully called each other an orphan to talk about the experience of a child’s life in a child care facility as an alien being placed outside the normative and normal ‘family’ and institutional boundaries.

As such, children cherish the relationship established in Dodamwon in various ways, including the title of mother or orphan. After leaving the facility, relationships that originated in Dodamwon, whether they visit Dodamwon physically or not, continue in a variety of ways, and they worry and take care of each other in any way they can. For many children of Dodamwon and children who left the facility, Dodamwon, not the original home, was a place to visit again, a place and a network to rely on when in need. However, this connection was

obscured when the relationship that originated from the facility contrasted with that of the family. The children constantly reduced their relationship to one that would eventually “be done as get out”. The contrast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mily without an ‘end’ and a facility with an ‘end’, sometimes different from reality, leads to a limited perception of the Dodamwon relationship, which also affects daily life before discharge.

As such, Dodamwon’s daily life and the practice of care are the process of becoming a place closer to home. As long as the ideal of the normal family remains solid, Dodamwon’s efforts to become a ‘house-home-family’ will probably always fail. On the other hand, Dodamwon’s care and daily performance itself as the process of becoming the children’s family, home, and house can be understood as the purpose of the performance. What is truly necessary for the ‘child’s best interest’ is that the daily care relationship in the place where child care is provided is not belittled, which does not change solely by the effort in the facility. It is now the turn of the society outside the facility to bear the burden of clarifying and explaining the stigma that has been borne only by the members of the child care facility.

**keywords** : Child care facility, stigmatic sense of place, family, house, home, care, COVID-19

**Student Number** : 2021-20432